

아시아跆拳道人의 祝祭

韓國一八體級席卷 綜合優勝

第一回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10月18日 午後2時！

가을비가 永東山頂을 즐기차게 두드리는 가운데도 五色의 아취와 새로 단장된 國技院正門으로 끊임없는 人波와 車輛이 물려들고, 어둠의 장막이 커튼을 드리운 듯한 國技院 天井으로 부터 휘황한 照明燈이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海軍 광파르가 정적을 깨고 開式通告에 이어 大會旗를 先頭로 알파벳順序에 依해 오스트렐리아, 自由中國, 關, 香港, 日本, 크메르共和國,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韓國의 選手團이 입장했다.

귀빈석에 자리잡은 金雲龍大會長, 柳基春 文教部長官, 金鍾洛 大韓體育會副會長, 서울시副市長과 三千觀衆의 박수속에 선수들은 경기장을 행진했다.

2時 8分 國民儀禮

2時 10分 開會宣言에 이어 世界跆拳道聯盟總裁이며 大韓跆拳道協會會長인 金雲龍大會長은 開會辭를 읽어 내려갔다.

『이 자리를 빌어 韓國의 國技인 跆拳道를 世界人의 現代競技로 膳物하여 各國間의 理解增進과 友情을 새로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金雲龍 大會長은 『跆拳道는 護身의 武藝이며 謙讓과 忍耐의 禮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現代스포츠가 指向할 目標과 올림픽 精神에 基盤을』



開會辭를 하는 金雲龍 大會長

푸른 韓國의 가을하늘아래 펼쳐지는 이 跆拳道의 祝祭는 우리 跆拳道가 나갈길을 다시한번 다짐하고 現代 스포츠競技의 하나로서 發展하고 있는 모습을 과시하는 機會』라고 말하고

『跆拳道는 韓國의 跆拳道로서 發生한 것이지만 이제 世界의 跆拳道로 發展시키는 일은 여러분 全體의 責任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모든 跆拳道人의 總和된 前進에 依해서 이룩될수 있다고 確信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跆拳道史의 한페이지를 創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 대회의 '백관' 뜻을 밝히고 『跆拳道世界 스포츠化의 里程을 힘차게 밟은 以來 지난해의 世界選手權大會와 世界跆拳道聯盟의 結成 그리고 今年의 第1回 國際審判講習會등으로 꾸준한 발판을 다져 이제 아시아跆拳道人의 宿願인 『第一回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가 열리게 된 感激을 맛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金鍾泌 國務總理의 祝辭를 代讀한 柳基春 文教都長官은 『그동안 金雲龍 跆拳道協會長을 비롯한 韓國의 全跆拳道人은 跆拳道를 한낱 文化遺産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옛날에 化石化한 것으로서 받아 드리는 것을 拒否하고 研究를 거듭하여 이를 現代化하였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國技로 昇華시켰으며, 이제는 沉世界的인 스포츠로 發展시켜 왔다』고 말하면서 이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를 中心으로 跆拳道가 世界 곳 곳에 普及되고 及其也는 올림픽의 廣場에 나아가게 하는데 값진 寄與를 하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새로운 跆拳道史의 한 焦點이 될 것이며 永遠한 友情의 求心點이 되리라는 것을 確信하면서, 앞으로 사흘 동안 繼續된 이 跆拳道의 祝典에 아낌없는 激勵을 보낸다』고 祝賀했다.



(金鍾泌 總理의 祝辭를 代讀한 柳基春 文教都長官)

이어 선수 代表선서에서 韓國팀 主將 崔廷壽 選手는 『대한 태권도 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 공동 주최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각국 임원,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명예를 걸고 태권도 정신을 발휘하여 선전 분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것』을 金雲龍 大會長에게 선서했다.

←選手代表의 선서



이어서 제-회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를 自祝하는 示範이 벌어져 김봉기사범이 이끄는 어린이 示範과 朴海滿團長의 指揮로 成人部 示範이 있었다.

國民學校 在學生들로 構成된 어린이 示範團은 품세 겨루기 등의 跆拳道 基本姿勢와 綜合된 技術 그리고, 공희배어린이의 七方축, 3명넘어 180도회전격파등으로 滿堂의 팬들을 매료시켰다.

이어 成人部 示範團은 完熟한 跆拳道의 境地를 보이면서 기본기 외에 南宮明錫孺의 호신시범, 한영근의 가위열차기 김정광의 어깨넘어 복합격파와 종합격파등으로 觀衆의 흥분은 절정에 達하게 했다

특히 金正廣君은 피나체를 장식한 綜合격파에서 7가지의 벽돌을 가로로 배열하고, 거의 찰나적인 순간에 왼손날 왼손등, 오른손날, 오른손등, 등주먹돌아치기등으로 격파물을 격파한 후 곧 뒤돌아 10名の 장어가 엮드린 위를 뛰어넘어 겨룬지 5분뒤에 두장의 송판을 격파 跆拳道의 위력을 유감없이 發揮했다.

아시아大會를 갈망하는 팬들의 분위기가 한결 무르익은 가운데 午後 三時 첫 아시아跆拳道優勝者를 뽑을 경기는 閉幕되었다.



(少年部의 품세 시범에서...)



(김정광군의 어깨넘어 복합격파)

첫날競技 向上된 아시아의 競技水準

七개국에서 參加한 프라이급에서 말레이시아의 발란·수바와 自由中國의 林瑞山選手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競技場에 들어섰다.

競技開始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林瑞山은 재빨리 左右로 발을 바꾸면서 虛點을 노리다가 열차기와 앞차기의 거리를 만들기 始作했다.

탐색을 벌이던 林은 드디어 정확하고 스피디한 열차기를 배에 命中시켜 다운을 때앗고 이어 二회전에서도 다운을 때앗는등 一方의인 競技를 벌인 끝에 승리했다.



프라이급 一回戰 홍콩아우 옛심과 필리핀의 對戰 아우 옛심 이 앞차기로 相對의 명치를 노리고 있다

다음 홍콩의 아우·옛심(區悅誠)은 미처 여독이 풀리지 않은 필리핀의 미구엘·곤잘레스를 攻略 가법세 二回戰에 올랐다.

그리고 日本의 馬場義昭(Baba-Gisho)도 아직 基本技가 充分히 잡히지 않는 판의 로버트·터존(Robert Turgeon)을 만나 재치있고 理智의인 프레이를 보이면서 攻略을 거듭 着實이 得點 大望의 아시아大會의 첫 關門을 通過했다.

반탐급 一回戰

4時30分부터 거행된 반탐급1회전에서 싱가포르의 서니·츄·킴은 필리핀의 폴·엠·레옹을 맞아 압도적인 競技를 벌여 2回 36초만에 통쾌한 K.O勝을 거두었다.

필리핀選手團은 朴容萬교치가 競技하루전에 到着했을 뿐 마닐라發 서울着 비행기의 接線이 如意치 않아 開幕과 同時に 겨우國技院에 到着 道服을 바꿔입고 競技場에 나서 컨디션 조절에 失敗하고 있었다.

兩選手는 모두 지난해 世界大會에 參加한 經歷을 갖고 있었는데 서니·츄·와는 그동안의 忠實한 연습으로 國技院의 大觀衆 앞에서 조금도 屈하지 않고 自身에 넘친 공격을 퍼부었다.

身長面의 優勢까지 갖고 있는 서니·츄·와는 1회에 돌려차기로 첫 다운을 땀은 後 앞차기와 옆차기로 세 번이나 다운을 빼앗아 大勢를 가르코 말았다.

二回戰들어 이미 位置를 잡기 힘든 狀態가 된 폴·엠·레옹을 서니는 다시 空中옆차기로 상대를 왼쪽 코너까지 몰아세운 후 최심의 돌려차기를 턱에 命中—— 폴·엠·레옹을 수직으로 플로어에 댄쳐 버렸다. 폴·엠·레옹은 K.O敗 直後 意識을 회복치 못해 金容瑞의 부부장과 取材中이던 記者에 실려 의무실에서 곧 회복되었다.

다음 自由中國의 鍊登標(Jong Deng Mao)選手는 광의 안토니·라스리오짜(Anthony Lastimoza)를 여유있게 누르고 二回戰에 進出했으며 승강용사범이 이끄는 홍콩의 陳裕源은 말레이시아의 프란시스·유시퐁(Francis Yu Sie Funk)과 得點을 주고 받는 接戰을 벌리는 듯 했으나 2回戰들어 陳裕源은 돌려차기 一擊을 相對의 눈가장자리에 명중시켜 기권승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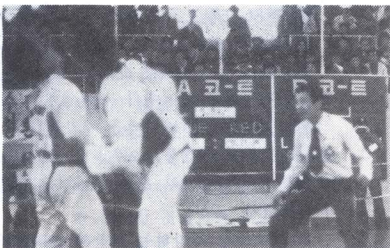
페더급 一回戰

自由中國 郭明裕(Kyo Ming-Yu)는 體力の 支配에 失敗하고 종반에 허덕인 Malasiya의 에네스트 고메즈를 맞아 回戰이 거듭 될수록 猛攻——가볍게 二回戰에 進出했다.

Hong Kong의 찬·유·앤도 필리핀의 마누엘·오이네자를 先制攻撃——着實히 포인트에 앞서면서 二라운드에 접어들어 스프링가 떨어진 마누엘에 自由롭게 접근 위력적인 공격을 퍼붓고 序戰을 장식했다.

이어 벌어진 싱가포르 陸軍소속 존·츄·킴은 광의 벤산토스(Ben Santos)를 맞아 여유있고 유연한 푸트윅으로 마음대로 발차기를 相對의 득점부위에 연결 가볍게 이김으로서 싱가포르 全勝의 날을 기록했다.

특히 첫날 경기에서는 自由中國·싱가폴·홍콩이 全勝하고 팔라 필리핀이 全敗해서 심한 對照을 보인 가운데 이날 마지막 경기인 韓國의 朴元 對 크메르의 록·히엥의 對戰이 벌어졌다.



이어 돌아선 서니의 오른 발 돌려차기가 폴의턱에 명중 턱이 뒤로 제껴진 時間



10초동안 2회 36초부터 46초까지 폴은 쓰러진채 일어 나지 못했다.

觀衆들은 宗主國 選手의 出現에 興奮을 지르고 잘 다듬어진 體格의 록·히엥은 아시아大會의 舞臺에서 어유를 잃지않고 自信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一回戰이 始作되자 意外로 파이팅을 보인 록·히엥은 左右발차기와 接近공격으로 朴元에게 거리를 주지 않았다.

接近으로 밀어내는 록·히엥은 갑자기 몸을 돌리거나 뒤로 빠지면서 날카로운 발차기를 보여 朴元을 당황케 했다. 朴元은 조바심이 난 정도로 相對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위기를 넘겨갔다.

몸이 풀리지 않은메다가 긴장한 朴元은 간절한 동작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相對方은 원천히 방어를 위한 공격을 퍼 뜰을 보이지 않았다.

별다른 得點없이 二회전을 맞은 朴元은 초조한듯 자주 자리를 바꿨으나 간발의 차이로 得點打는 터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한 공격은 득점직전에 그치면서 상대의 맹렬한 反擊에 휘말려 苦戰 一見 막상막하의 熱戰을 벌이는 듯했으나 朴元은 상대의 공격을 完全히 따돌리고 면도날같은 공격을 퍼부어 록큰·히영의 복부에 계속 得點 一・二回戰의 不振을 씻고 깨끗이 勝機로 잡아 緒戰을 장식하고 相對를 虛脫에 빠지게 했다.

첫날 전적

프라이급 1회전

(自由中國) 林 瑞 山 ○—×(말레이시아)발란·수바

(홍 콩) 아우·엣·싱 ○—×(필리핀)미구엘·공 자레스

(日 本) 바바·기쇼 ○—×(괌)로버트·터존

반탐급 1회전

(싱가폴) 서니·츄·화(K.O 2회 46초) ○—×(필리핀) 풀·엠·레웅

(自由中國) 종·명·마오 ○—×(괌)안토니·라스리

(홍 콩) 탕·참·롱 (기권승) ○—×(말레이시아)프 란시스

페더급 1회전

(自由中國) 귀·밍·요 ○—×(말레이시아) 에네스트 고메즈

(홍 콩) 찬·유·엔 ○—×(필리핀) 마누엘·오이 네자

(싱 가 폴) 존·츄·킵 ○—×(괌) 벤·산토스

(한 국) 박 元 ○—×(크메르)록큰·히영

이틀째 競技 東南亞 有望株의 浮上

이틀째 週末을 맞이한 國技院은 正午부터 입추의 여지없는 滿員을 이룬 가운데 加熱된 아시아大會競技를 기다렸다. 午後 1時 正刻 閉幕된 競技에서 라이트급 1회전부터 열린 攻防이 벌어졌다.

라이트급 1회전

싱가폴의 로저·탐·파이쥔은 장발을 휘날리면서 유연한 몸놀림과 지난 世界大會參加의 경력을 바탕으로 여유만만하게 競技場을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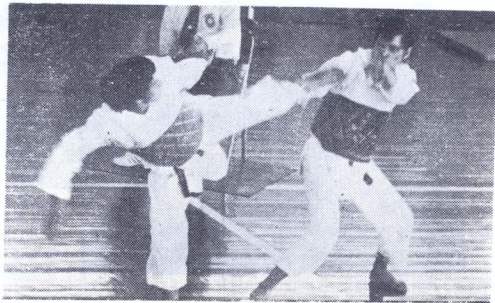
잘 다듬어진 유연한 體力에서 볼륨듯 쏟아지는 발차기의 연결로 필리핀의 떼오돌·빠또은을 궁지에 몰아넣고 쉽게 得點을 얻어 아시아大會의 有望株로 각광을 받았다.

이어 벌어진 韓國의 이기형은 日本의 森脇 森昭(Morinaka Nonscho)選手와 對決——合宿訓練으로 다져진 技倆을 유감없이 發揮—確固한 基本技위에서 華麗한 左右 돌러차기 되돌러차기등을 구사해 相對의 得點 부위를 요소요소 공략해 觀衆의 歡呼를 자아냈다.

특히 1회전 中半에 코너쪽에서 터진 뒤돌아차기로相對의 옆구리를 一擊 다운시키고 이어 타임아웃 直前3m 가까이 날으며 正面공격을 성공시켜 相對의 銳氣를 完全히 꺾었다.

二回戰들어 森脇은 體力에 마져 뒤져 허덕이다가 이기형의 원발열차기로 失點 뒤이어 中心을 잠을 겨룰없이 오른발돌러차기가 턱을 強打—힘없이 고꾸라졌다

그러나 코치들 맡은 강경협사범의 熱火같은 독려를 받고 死力을 다해 일어나 K.O를 모면했으며 三回戰에서 방어에만 급급 一方의인 敗北을 면치 못했다.



웰터급일회전 日本의 몬다·다이·사쿠 와의(左)의 원발열차기가 필리핀의 질레르스·마에라의 턱에접근 라인밖으로 빠지는 바람에 得點에 연결되지 못했다.

다음 라이트급 일회전 마지막 경기에서 自由中國의 왕·티·첸은 크메르의 삼사툰과 비등한 경기를 벌이다가 強한 體力을 바탕으로 삼사툰(크메르)과 팽팽한 對戰을 벌인끝에 간발의 차이로 勝利했다.

웰터급 1회전

한국의 김철환에 싱가포르의 디키·귀·혹·셴의 對決은 對照的인 一戰이었다.

다부진 몸매의 김철환과 키가 훨씬 큰 디키의 對戰에서 김철환은 그의 主武器인 뒤돌러차기를 초반부터 구사했으나 디키의 긴 다리에 걸려 成功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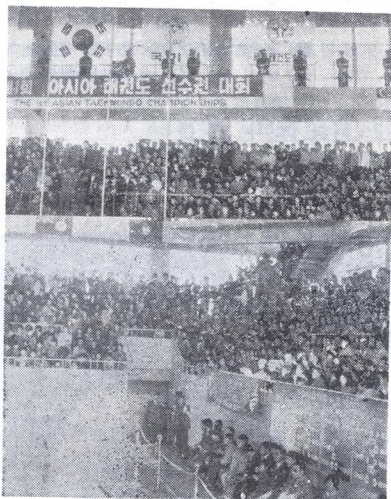
더키는 이에 자신을 얻고 물결처럼 공격해 들어갔으나 김철환은 이번경기에서 드물게 보인 手法로 相對를 옆으로 지나게 하면서 주먹공격을 정확한 角度로 명치에 작열시켜—더키를 그 자리에 끌어 앉게 했다. 體重을 받은 자세에서 공격해 들어간 이 주먹공격으로 더키는 곧 일어났으나 통중으로 게임을 中斷하려 했다.

그러나 코치진의 성원을 얻고 一회전을 마친후 다시 二・三회전에 신중히 게임에 임했으나 동작이 둔해지는데다 김철환의 공격은 더욱 불이 붙어 惜敗하고 말았다.

미끈한 下體와 유연한 몸매는 웰터급選手로 아주 理想의인 것이었으나 一回戰에 意外的 強敵을 만나 不運하게 물러서고 말았다.

日本の 門田大作 (Monda Daisaku)는 몸놀림이 둔한 필리핀의 길레즈브·마에라이를 맞아 二회戰—물러차기가 적시에 득점에 연결 가법게 二회전에 진출했다.

이날 웰터급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크르메와 自由中國의 對戰에서 나타났다.



▷寫眞說明◁ 입주의 여지 없는 觀衆들, 태극기와 국기원의 깃발이 게양된 앞에 陸軍 防파르단이 도열해 있고, 군중들에 밀려 해군취주악대가 가운데로 파문혀 버렸으며 뒤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寫眞左) 오스트레일리아의 알란·화이트웨이가 팔의 엘마·콜라(左)에게 3回 判定으로 이겨 왼손이 높이 올라갔다. (寫眞右)

表紙의 말



이번 表紙는 아시아跆拳道人의 祭典!

제 1회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 입장식 광경. 右端의 태극기로 부터 十個國의 國旗가 필력하는 가운데 아시아 跆拳道人의 希望과 꿈이 부풀어 있다.

이 자리로 부터 跆拳道歷史의 序章이 열리는 것이며 永遠한 發展의 도약을 위한 礎石이 놓인 것이다.

跆拳道 世界競技化!

宗主國 跆拳道人들의 夢과 未來像을 다지는 데 게으르지 말자!

兩選手는 一進一退의 攻防을 벌이면서 向上된 아시아 跆拳道水準의 한 규범을 보였는데 크메르 크·백성選手는 正統의인 跆拳道를 보이면서 正確한 돌려차기로 명치를 명중시켜 自由中國의 盧志偉 選手를 당황케 했다. 失點에 쫓긴 盧志偉는 三回戰들어 猛反擊을 했으나 2分3回戰을 金世宗코치의 지시대로 짜임새있게 움직인 크메·생에게 3회전에 세번이나 得點을 허용 完敗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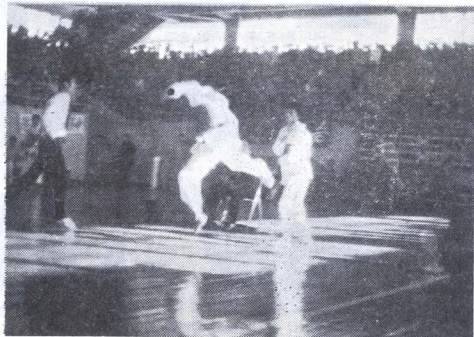
미들급 1 회전 경기

미들급 첫경기에서 한국의 양영관은 필리핀의 엘마·지·빠도를 맞이해 一方의인 攻撃을 퍼붓다가 2회 46초만에 돌려차기로 正確하게 얼굴에 命中—프로에 쓰러뜨려 두번째 K.O勝을 기록했다.

헤비급 1 회전경기

自由中國의 林英壁 (Lin-Ling-Feng)은 크메르의 빅터·본·온과 接戰이 豫想되었으나 천부의 素質을 바탕으로 쉽게 물리쳐 二回戰에 올랐다.

이번 大會는 大體로 宗主國을 除外하고는 技보다는 힘에 依存하는 狀態였으며 跆拳道鍛鍊을 體系的으로 받은 選手일수록 體力的 균형을 갖을 수 있었음을 내보였다.



自由中國 류 지위의 원발공격을 비쳐 공격의 찬스를 잡으려는 크백성(右) 입후의 여지없는 觀察이 確실히 이경기를 觀察하고있다

만 못한 趙섭을 제자리에 못박아놓듯 하고 뒤돌려차기를 命中시켜 가카스로 우세를 지켰다.

三回戰들어 兩選手는 심한 체력소모로 허덕였으나 항가리 의지해 오스트렐리아로 亡命한 빅터는 不屈의 意志로 마지막 돌려차기를 성공시켜 가카스로 銅메달圈에까지 뛰어들었다.

同級 한국의 崔정도는 필리핀의 호세 J. 띠니오 選手를 一回戰에 맹공 간단히 기권승을 거두어 준결승에 올랐다.

輕量級の 準準決勝 및 準決勝도 마쳐

핀급 2회전

핀급에서 크메르의 김사몬은 필리핀의 지미·마틴과 대결 가볍게 누르고 決勝에 進出—最少限 銀메달을 확보했으며 한국의 윤창욱도 自由中國의 劉慶文(Lier Ching-wen)과 一回戰에 接戰을 벌이는듯 했으나 二, 三回戰의 連續攻撃으로 가바이 결승에 진출했다.

自由中國의 團結力과 指導者들의 一致인 指導力 그리고 強力한 지원등은 인상적이었고 모든 技術의 向上도 눈에 띄는 것이었으나 아직 宗主國의 水準과는 뚜렷한 差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라이급 準準決勝

프라이級의 한국 河錫光對 自由中國 林瑞山(Lin Ruey Shan)이 對戰한 이 對決은 이 大會를 통해 技術의으로 가

또한 오스트렐리아의 빅터·브레글렉(Victor Bleglcc)과 광의 趙섭(Joep Francisco)의 對戰은 엄청난 體重의 差로 우선 興味를 끌었다. 120kg이 나 되는 趙섭은 헤비급이 事實上 80kg以上 無制限이기 때문에 더욱 느긋해 몸이 맞는 호구가 없어 特別 주문해 해야했고 겨우 80kg을 유지한 빅터는 음식이 맞지 않아 더욱 험 싸게 보냈다.

17歲인 趙섭과 28歲인 빅터는 연령에 있어서도 最年少와 최고령자의 대결이었지만 兩選手 기술이 보잘것 없어 서로 得點을 얻지 못했다.

빅터는 게다가 二회전초 상대의 반칙으로 良心을 맞아 더욱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지

장 인상적인 시합의 하나였다.

林瑞山은 자그마한 체구가 跆拳道修練으로 잘 다듬어져 있었고 基本技와 競技力을 갖춘外에 銳利한 狀況判斷을 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다.

河錫光은 그 個人技에 있어서 가장 完璧하게 다져진 反面 體力의 劣勢가 뚜렷했다.

두 選手는 好敵手를 意識했음인지 신중한 對決을 벌였는데 一回 1分30초에 林의 열차기가 最初로 하석광의 배에 격중 河를 당황케 했다.

二回戰들어 양신수는 輕量級選手답게 열면 攻防을 벌였으나 河錫光은 攻撃뿐 아니라 방어에서도 날선점을 보여주었다. 二회전을 5:5의 경기로 마친 河는 三회전 들어 맹공 상대의 허점을 노려 自由自在로 공략해냈다.

그러나 林瑞山은 한번의 공격을 당한 뒤 반드시 수비를 취하고 자세를 흐트리지않은 채 반격을 시도해서 大成할 素地를 充分히 보여주었다.

다음 同級 決勝進出權을 놓고 홍콩의 아우·옛·심과 日本 바바·기쇼의 激突은 루트·윙과 連結動作이 좋은 아우·옛·심이 가볍게 이겨 最小限의 銀메달은 確保해 놓았다.

반타급 準決勝戰

한국의 주상현과 前南 필리핀에 K. O 勝을 거둔 싱가포르 서니·츄·화의 對戰은 興味의 一戰이었으나 終盤戰에 一方으로 공략당한 서니·츄·화가 아직 宗主國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본래했다.

주상현의 발차기가 두번씩이나 강하게 서니의 턱에的中한 것은 파인·프레이로 기록될만 했다.

이 경기를 고비로 自由中國의 鍾登德(Jong Deng-Mao)도 홍콩의 탕·참룡을 물리쳐 決勝에서 격돌게 되었다

페터급 準決勝戰

이어 登場한 한국의 朴元은 첫날 광과의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인 존·츄·킴을 맞아 三回戰의 앞차기를 턱에 명중——이어 높이 차 내려누르기로 또 한점을 가세해 初盤에 활발히 움직인 존을 가볍게 누르고 金메달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날의 마지막 경기가 된 라이트급경기에서 싱가포르 로저·탐·파이퐁과 오스트렐리아 미카엘·브로톤(Michael Brouton)의 對戰은 다리가 긴 미카엘이 오히려 로저의 공격에 달려 三回戰을 통해 一方으로 밀려서 패했다.

이어 韓國의 이기형은 自由中國의 왕·티 쉹(Wang. Tiee. Cheng)을 맞아 善戰 觀衆의 흥분을 절정에 달

하게 했다.

원받은 상대앞에 내밀고 오른쪽을 노리다가 그대로 회전 相對의 반대편을 번번히 농락한 이기형은 二回戰에 이어 안정권에 접어들고 三回戰에서는 공중회전차기등——그의 발은 바람개비 처럼 돌리며 金메달에 한걸음 가까이 갔다.



마이클(左)의 공격이 훗날 손으로 잡은 로저(右)로저는 주의하나라 받았다



헤비급 지진表情이 역연한 빅터(右)의 주먹공격 120kg의 조력은 고덕었다

各體級 準準決勝 및 準決勝 戰績

(핀급)

(크메르) 킴·사론 ○—×(필리핀) 지미마틴
(한 국) 윤 참옥 ○—×(自由中國)리·칭·웬
(프라이급)

(한 국) 하 석광 ○—×(自由中國)林 瑞山
(홍 콩) 아우·옛·심○—×(日 本)바바 기쇼

(밴타급)

(한 국)주상현 ○—×(싱가폴)서니·츄·화
(自由中國)종등·마오○—×(홍콩)탕·참·룡

(페터급)

(自由中國)귀·밍·요○—×(홍콩)찬유엔
(한 국) 朴 元 ○—×(싱가폴)존·츄·킴

(라이트급)

(싱가폴)로저탐파이퐁○—×(오스트렐리아) 마이클
(한 국)이 기형 ○—×(自由中國)왕·티 쉹

(웰터급)

한 국(김철환) ○——×(日本)문다·다이·사쿠

크메르(크백·생) ○——×(오스트레일리아) 알란

(미들급)

한 국(양영관) ○——×(오스트레일리아)브로튼

自由中國(장상신) ○——×(크메르)삼·사룬

(헤비급)

自由中國(린링펑) ○——×(말레이시아)루이소·티엔

오스트레일리아(빅터브레그렉) ○——×(팔)조셀·프랑스

決勝戰 — 韓國 八體級 席圈……團體優勝

10월 20일 日曜日를 맞이한 國技院은 바늘하나 들어설 틈이 없는 超滿員을 이룬 가운데 正門에서 돌아간 觀衆들이 많았으며 内部에서는 아시아의 頂上을 눈앞에 두고 긴장한 選手들과 아시아 跆拳道史의 새 歷史에 기록될 순간을 지켜보는 觀衆들의 초조감이 엇갈렸다.

韓國팀 벤치는八個 全體級에 進出하여 어느 한體級도 脫落해서는 안된다는 絶對的 사명에 긴장해 있었고 自由中國 크메르 싱가포르 두번 다시 없을 금메달의 기회를 잡은 여러 나라들은 揮身의 氣力을 다해서라도 한體級の 優勝者를 내겠다는 決然한 闘志로 불타고 있었다.

핀급 決勝: 한국의 윤창욱對 크메르의 김사몬은 主審의 一回戰開始를 알리는 信號가 떨어지자 고무줄에서 튕겨난듯 가볍게 프로어를 돌기 始作했다.

눈과 눈은 마주친채 불을 뿜고 언제든지 일발의 공격을 시도하려 하면서도 쉽게 거리를 잡지 못했다.

순간적인 주먹치르기나 연결된 발차기도 양선수수는 가볍게 벗어나며 2회전에 둘자 경기장 주위를 돌며 거리를 잡던 윤창욱은 드디어 김사몬의 불에 피스톤처럼 직작으로 발을 뻗어 二得點——이어 기습적인 돌려차기로 다시 一得點 安정권에 접어들었다.

3회전에 失點 만회를 위해 무모한 程度로 突進하던 김사몬은 體力만 낭비하고 윤창욱의 決定타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우승: 윤창욱(한국) 준우승 김사몬(크메르)



한국 하석광(左)對 홍콩 아우엡싱(右)의 프라이급결승 높이 치켜진 하석광의 오른발이 내려찍히면서 아우엡싱은 곧 다운 되었다

프라이급: 한국의 하석광과 홍콩의 아우엡싱의 대전에서 아우·엡·싱은 유연한 몸매를 심본 發揮하여 體力이 劣勢인 하석광에게 先制 得點을 얻으려했다. 그러나 하석광은 상배의 의뢰를 들어다보듯 쉽게 피하면서 돌려차기 휘둘러차기로 아우 엡싱의 接近을 막았다.

그러나 一回戰의 아우·엡싱의 대수는 가히 一品이었으며 조금만 더 技術을 연마한다면 훌륭한 경기를 보일 可能性을 품고 있었다. 승강용코치의 督戰으로 휘둘러차기를 피하여 주먹공격으로 得點을 노렸으나 二회전 46초경 하석광은 프로어 왼쪽에서 오른발을 높이 들면서 공중에 뜨듯이 一격 一次 아우 엡싱을 프로어에 쓰러뜨린후에 다시 일어난 아우 엡싱을 완전히 한바퀴돌아 방향을 바꾼 자세에서 짧고 정확한 휘둘러차기를 아우 엡싱의 명쾌에 명중시켰다 아우 엡싱은 두손으로 무릎을 받치고 “헉”하며 주저 앉아 계시원은10초를 카운트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돌려차기는 순간적이고 스피드한 위력적인 것이어서 꿈많은 금메달의 기회를 K.O로 버리게 했다. 觀衆들은 기립한채 높이 올라간 하석광의 손에 박수를 보냈다.

우승 하석광(한국) 준우승 아우엡싱(홍콩)

네티급 決勝: 1回戰 開始와 함께 한국의 주상현과 自由中國의 종맹마오는 양선수 쉽사리 적수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이 두개의 금메달을 確保하자 觀衆들은 드문 드문 歡呼를 보내기도 하고 앞으로의 경기를 초조해 하기도 했다. 意外의 적수를 맞은 주상현은 선제 공격을 위해 스텝을 옮기면서 발차기와 주먹공격을 시도했으나 지나친 견제로 得點에 이르지 못했다.

2回戰들어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템포를 올렸으나 예비공격을 번번히 좌절되어 골맛지 않았다.

3回戰들어 주상현은 더욱 빨리 움직이며 상대를 교란 드디어 복부에 돌려차기를 命中시킨 후 절박한 힘을 모두 쏟아 스피드한 左右발차기로 종·맹·마오를 위협하며 正面에서 돌려차기를 相對의 안면 인중에 격중——二得點했다.

주상현 선수는 힘겨운 勝利를 거두었다.

우승 주상현(한국) 준우승·종·맹·마오(自由中國)

決勝戰 두번째 K.O勝 階級: 朴元은 간결한 스텝으로 상대의 허점을 노리며 相對를 分析했다. 귀·밍·요(自由中國)는 수비를 위주로 하면서 순간적으로 뒤돌아앉차기를 결승의 주무기로 삼아 여러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했다.

朴元은 觀衆이 초조할 만큼 움직이지 않고 가까스로 공격을 빚나가게 하면서 銳利한 눈으로 虛點을 찾았다.

2回戰들어 朴元은 앞차기·옆차기등을 스피드하게 구사하며 기회를 모착 1分30초 경과후 프로어 中央의 대치 상태에서 귀·밍·요의 뒤돌아앉차기를 그대로 받으며 비껴 앞차기를 그대로 내리눌러 턱에 命中——그대로 프로어에 주저 앉았다.

프로어에 쓰러진 귀·밍·요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10초의 制限時間을 침묵——銀메달에 머물렀다.

우승 朴元(한국) 준우승 귀·밍·요(自由中國)

화려한 돌려차기 라이드급: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볍게 물리치고 決勝에 오른 로저·탐·파이퐁(싱가폴)은 1回戰부터 猛攻——어떤 우연을 찾으려는 듯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기형도 공격의 코백을 늦추지 않아 大觀戰이 되었다. 양선수는 패더급의 K.O에 이어 흥분된 관중과 더불어 오직 게임에 全力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로저의 공격이 시작되기 前에 이미 이기형은 재빠른 발공격으로 상대의 접근을 막으면서 거리를 만들어 뒤돌려차기를 命中시켜 得點을 쌓았다.

로저는 뜻밖지않은 공격에 주춤할 겨를도 없이 2, 3回戰에 一方의으로 달려 금메달의 꿈을 霧散시켰다.

우승, 이기형(한국) 준우승 로저·탐·파이퐁(싱가폴)

一方의攻擊과 도피: 웰터급 決勝:

크레버트레이어(Clever player) 크백생(크메르)은 一回戰을 수비로만 마쳤다. 2회전들어 공격을 기대했던 김철환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 힘빠기 作戰으로 나온 크백생의 細技도 김철환의 細技와 힘은 당하지 못하고 또다시 등을 보인 도피가 계속되어 두 번의 주의로 다시 一점을 감점당했다.

三回戰들자 크백생은 마지막라운드에 총공격으로 得點을 얻어보려고 했으나 드디어 기회를 맞은 김철환의 공격에 기쁨을 부어준 결과가 되어버렸다.



김철환의 돌려차기가 상대의 방어를 뚫고 턱에 명중된 순간

다른 選手들의 도전과 달리 初盤에 接近치않고 終盤의 역습으로 得點을 얻어 모처럼의 機會에 幸運을 빌었다
김철환은 다섯번째의 金메달을 위해 초반 끊임없이 크백생을 추적했으나 크백생은 게임이 成立되기 힘든 거리로 빠져나갔다.

심판은 양친수를 모아 주의 宣言을 했으나, 이作戰은 나아지지 않아 두번째 주의를 받고 1點을 감점당했다.
김철환은 활발히 발차기로 상대를 몰아붙이다가 뒤돌려차기의 포즈를 보이다가 갑자기 앞차기를 크백·생에게 명중시켜 中心을 못잡은 크백·생은 휘청 그 자리에 꼬꾸라질듯 하여 2得點을 허용했다.

우승 김철환(한국): 준우승 크백생(크메르)

意外的 强者: 미들급 결승: 1回戰에 K.O勝 2回戰에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볍게 이긴 한국의 양영관은 아시아 大會直前에 입은 상처도 크게 苦戰했다. 위력적인 주먹공격이 말을 듣지 않아 주먹을 주로 방어에만 돌리고 발차기로 승부를 가리려고 했다.

忠實한 기본기와 예리한 상황판단을 주무기로 상대의 공격을 빗나가게 하며 뒤따르는 주먹공격을 주무기로 삼은 장상진은 上下體가 고루 발달 아주 이상적인 미들급 選手였다.

양영관은 상대를 밀고 들어가다 어이없는 기습에 주먹공격 1點을 실점당하고 2회전 들어 양영관도 몸을 사리지 않고 분전——주먹공격의 위력을 되찾아 相對를 격리시키면서 1得點 게임을 原點으로 돌려놓고 나서 強力한주먹 지르기로 得點: 點소한 差로 앞서고 뒤이은 돌려 차기는 상대의 커버밍에 걸려 有効타가 되지 못한채 2回戰을 마쳤다.

3回戰: 한국의 양영관은 더욱 활발히 움직이며 勝利를 굳히려 했고 體力이 조금도 떨어지지않은 張은 1點差의 戰勢를 뒤집으려 死力을 다했다.

그러나 1分 20초 경과時 양영관의 스피드한 앞돌려차기가 장쾌하게 張의 턱에 작열 모처럼의 빅게임은 宗主國의 金메달을 追加시키며 끝나고 말았다.

우승: 양영관 (한국): 준우승 장·상·신(自由中國)

균형잡힌 헤비급 選手 林英壁: 헤비급 아시아 大會 最終戰인 80kg 以上 헤비급의 決勝이 벌어졌다. 跆拳道修練 1年餘의 짧은 經歷을 갖춘 自由中國의 林英壁은 조각처럼 잘 다듬어진 上下體의 균형과 힘찬 근육동 나무랄 데 없는 體力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의 主將 최정도는 다소 비대해 보였으나 순간적인 스피드만은 아주 뛰어났다. 1回戰이 시작되며 최정도는 걸잡을 수 없는 돌소처럼 猛進 비껴 앞차기로 相對의 가슴을 쳐——1點 다시 돌려차기를 힘차게 뺏었으나 턱앞에서 벗어 아깝게 好運을 놓쳤다.

崔의 攻擊에 발이 떨어 지지 않아 몸만 뒤로 제끼며 猛攻을 당한 林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다시 돌려차기를 복부에 맞아 1回戰을 마쳤다.

2點을 先取當한 2回戰의 兩選手는 그야말로 亂戰을 벌여 5:5의 게임을 끝내고 3回戰에 들어 무리한 K.O를 노리고 점프리를 시도한 崔를 제발아 힘껏 오른발을 뻗어 崔를 프로어 주저앉혔으나 아깝게 금스를 피해 1點에 머무르고 말았다.

다소 동작이 둔화된 崔를 林은 맹공 逆戰의 기회를 노렸지만 오히려 崔의 일격에 가슴을 맞고 林은 분부를 삼켜야했다.

그러나 林英壁은 將來를 기약할 수 있는 選手로 촉망을 받았고 최정도는 基礎體力을 整備해야 할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우승: 최정도(한국) 준우승 林英壁(自由中國)

國技院은 떠나갈듯한 환상으로 물끓듯 하고 드디어 宗主國 韓國이 八體級을 席圖 完全한 우승을 거둔 기쁨으로 떠나갈듯 했다.

示範團은 이 大會의 휘날래를 장식하며 觀衆의 아쉬움을 달래고 최종격파자는 하늘 높이 뛰어 올라 3m높이의 바구니를 터뜨려 그 안으로 부터 五色테이프에 매달린 “1976年 國技院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이라는 환송 카드를 펼쳐보였다.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가팀素描

純粹아마츄어의 矜持 濠洲팀 團長: 잭·라이트 코치: 이춘봉

南濠洲 下院議員 잭·라이트씨를 團長으로 이춘봉코치를 助員으로 한 濠洲팀은 항가리義舉에 移民한 朝鮮과 빅터 두 브레그트 兄弟를 비롯 行政廳 秘書官인 알란 화이트헤이 슈퍼마켓 관리자인 마이클 브로튼등 오직 業務時間外에만 跆拳道를 修練한 純粹아마츄어팀!

잭·라이트씨는 『이번 大會는 對陣이 좋아 全員 銅메달 入賞의 珍記錄을 낳았지만 來年 世界大會는 實力으로 上位入賞이라면서 오스트레일리아 跆拳道熱이 팽창하라는 것을 알리고 훌륭한 國技院의 시설과 跆拳道를 크게 普及하겠다』고 했으며 主將이여 최교형선수인 빅터는 『내 一生의 永遠한 追憶이요 榮光』이라면서 兄弟는 勇감하였다를연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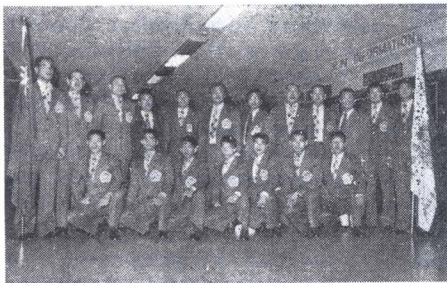
西歐人의 體格을 갖춘 選手들은 東洋人들의 모기연속에 넋을 잃고 奮戰한다

뚱쳐진 意志 世界頂上の 도전 꿈 키워 自由中國

이번 大會에 가장 무서운 強者로 登場한 自由中國은 盧孝泳코치를 中心으로 陳良光의 원동 날치른 임원진에 全員 軍人으로서 全게임을 通해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보여 태권도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프라이급 林瑞山, 미들급 張祥興 헤비급 林英壁등은 大成할 素地가 있고 아직 나이가 어려 數年來 宗主國 水準을 능가하겠다고 버르는 무서운 팀!

특히 自由中國엔 이번 大會 審判으로 招請받은 國際審判合格者가 두명이나 있는데 이번 시험에는 제반 事情으로 參加하지 못했다.

아시아 跆拳道聯盟創設에도 깊은 關心을 보이고 있는 自由中國은 大陸의 슬기와 忍耐를 갖춘 팀!



金浦空港着 記念촬영을 하며 優勝을 노리는 自由中國

太平洋 關島에서 키우는 跆拳道에 꿈

太平洋의 외로운 섬——美國 領土인 關島에서 온 選手들은 서울의 夜景과 民俗村의 觀光에서 한국 文化와 經濟의 發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韓國選手들의 跆拳道를 보니 새삼 跆拳道의 眞價에 눈이 뜨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돌아가면 더욱 熱心히 跆拳道를 修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紅一點 벤취워버로 따라는 루이자 만나오 (16歲 女學生)양은 경기마다 敗한 選手들을 따듯이 돌보면서 女子選手權大會가 꼭 열리게 해달라고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總裁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金雲龍總裁는 女子部 경기가 생기면 꼭 參加해달라고 루이자양의 꿈을 달래 주었다.



太平洋의 섬에서 키운 기술을 다음 기회에 다시 보이겠다는 關島 民俗村에서

제 1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大會 參加팀素描

小數精銳主義 — 홍콩팀 — 全員메달 確保

승강용코치는 國民의 所得水準 스포츠의 草創期에 비추어 볼 때 홍콩팀의 參加는 여러가지 애로가 뒤따랐다고 說明하고 있다.

다만 프랑크·웨더악 홍콩 태권도協會長的 희생적인 努力과 金雲龍總裁의 努力으로 이번 競技가 可能하게 된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發展하는 跆拳道의 世界化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프라이급 아우·엣 성이 善戰하다가 아깝게 河錫光의 一擊으로 K.O.敗—金메달을 놓친것을 끝내 아쉬워했다. 홍콩팀은 그러나 프랑크·웨더악會長의 열열한 응원과 승강용 사범의 과묵한지도로 全員 入賞한 成果를 올렸다.



탐창룡등 세선수들과 함께 戰力分析에 餘念이 없는 홍콩팀코치 승강용(좌단)

大阪産業大學주축 — 日木팀 — 在日同胞강정철 코치 이채



空港에 到着한 日本팀. 左에서 두번째가 강정철 코치

지난 八月 國技院에서 修練하러던 계획이 파견된 日本팀은 이번대회에는 어김없이 강정철 사범의 人술로 김포에 도착—게임에 임했다.

제일동포인 강정철코치는 日本에서 跆拳道를 보급한 숨은 공로자이기도 했는데 日本選手들은 한국말 구령과 完全한 跆拳道자세로 運動하는 것을 볼 때 民族의 肯持를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막상 게임에 임해 母國의 김철환선수와 日本의 Monda Daizaku選手가 對決하여 초반부터 밀리자 끝까지 싸우라고 고함을 지르며 跆拳道不屈의 精神을 강조—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自制力을 잃지 않는 紳士의인 매너는 주위의 好感을 샀다.

가장 組織的으로 訓練된 코치와 選手의 호응一致

中立國인 크메르共和國은 단장 광·피요랏을 비롯 김세종코치까지 5명의 任員과 6명의 選手가 參加 이채 이들 任員은 모두 크메르의 重量感있는 人事들로서 시련을 겪고 있는 國家의 將來를 위해 忍耐과 克己의 跆拳道實相을 보고 좀 더 광범위한 發展을期해 보려는 것 특히 金世鍾 코치의 벤치作戰과 選手들의 呼吸이 一致하는 것은 인상적이었으며. 6명의 選手 全員이 고른 實力을 갖춘것은 그동안의 成果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金世鍾코치는 아시아大會야말로 民間外交의 淸경이 아니냐고 反問하면서 跆拳道의 앞날에 대해 좀 더 技術的研究가 뒤따라야 한다는 助言도



綜合 三位를 하고 國旗를 中心으로 기념촬영

제 1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가팀素描

말레이시아 群島 태권도외기수——이大會를계기로 發展의 轉機를



1976年大會에 上位圈進出을 위해 努力하겠다는 말레이시아팀

에디·용 단장과 말레이시아 사바 國防相 韓자·야신이 任員으로 參加한 말레이시아팀은 김용호사범의 지도로 그동안 宗主國의 競技規定과 判定規定 그리고 競技力의 向上으로 相當한 水準의 向上이 期待되었는데 아직 草創期의 水準을 넘지 못한 印象——

그러나 매너나 競技에 임하는 자세 등은 나무랄데 없었으며 忠實한 연습만 쌓는다면 머지않아 좋은 競技를 보여줄 수 있는 有望株로 登場할 것 같다. 김용호사범이 이번大會에서 영접부일을 맡아 설상가상——강장진 사범이 대신 코치를 맡아 英語를使用하여 作戰을 指示하기도

常夏의 나라 필리핀 選手團——國民의 狂의 태권도불 뒤흔친

스프오오즈의 狂國 필리핀이 이번大會에 뜻하지 않던 飛行機關係로 큰 困境을 치렀다.大會前날 하네다공항에 겨우 到着한 選手들은 자리가 없어 朴容萬師範만金浦에 到着하고 選手들은 겨우 入場式이 끝날때야 國技院에 到着——허둥지둥 도복을 바꿔입고 경기장에 나와야 했다.

긴 비행기여행과 急作한 기후변동과 時差로 苦戰을 면치 못했다.

八體級 全體가 參加한 필리핀은 겨우 지미·마틴選手만이 銅메달에 입상하고 초반전에 脫落하는 不運을 겪었는데 大體적으로 體力의 劣勢가 뚜렷했다. 그러나 自立의 으로 發展하고 있는 필리핀태권도는 成長街道를 달리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후가 맞지않아 苦戰한 필리핀팀 패전한 날씨인데도 오히려 倅선수들은 鎔세터를 입고 있다

宗主國 跆拳道와 빈번한 交流——急速한 成長이뤄 싱가포르팀



단장 에디멘츄를 中心으로 산뜻한 團服이 現代競技의 衞새를 질게 풍긴다

지난달 國技院에서 싱가포르 태권도협회중진 選手들이 태권도를 修鍊한 바 있고 지난해 世界大會에 존·츄·김과 서니·슈·화, 디키·귀, 로저등 等 全選手가 參加한 經歷을 갖고 鎔획을 들고나왔다. 단장인 에디멘은 對陣運에 關係없이 最善을 다해 싸운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싱가포르팀의 戰力이 가장 宗主國 스타일에 가깝지 않느냐고 反問하면서 한국태권도 시범단의 초청문제를 비치기도

싱가포르팀은 4名 參加 銀1銅2의 戰果를 얻었는데 有望株 디키의 패배가 아쉬웠으면서 1976年 國技院에서 만날때는 우리가 跆拳道에 보인 努力이 어떤것인가를 팬들에게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제 1 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참가팀素描…………韓國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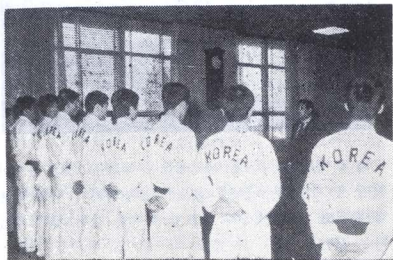
全體級席卷 綜合優勝……自由中國과 親善競技도……

必勝의 信念 ——宗主國代表——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 選拔戰이 자주 미루어져 9월 6日 待望의 第一回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 한국대표선발전이 벌어져 211명이 參加한 가운데 열려 大會의 뜨거운 분위기를 豫見케했고 막상 選拔을 마친 關係인원들은 宗主國 韓國이 果然 全體級 優勝을 할수 있는냐는 궁금증도 달래지 못하고 있었다.

1,2次の 어려운 關門을 뚫고 選拔된 選手들은 高의 민코치의 指導아래 二週日에 걸친 合館訓練을 國技院에서 갖고 激戰에 임할 준비를 갖추었다.

高의민고치는 選手들의 基本體力를 일일이 점검——결승전까지 무사히 오를 體力의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全體의인 技倆의 分配에 이어 特技를 살리도록 最善을 다했으며 철저한 아마츄어 스포츠맨십 培養에 全力을 다했다.



綜合 優勝을 거둔한국팀이 金雲龍 會長의 致辭을 듣고 있다. (解團式에서)

高義敏고치는 먼저 방어에 대해 철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 三日間을 공격거리確保, 공격자세를 위한 무트릭改善에 중점적인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一週間은 공방을 믹스한 연결동작과 實戰연습으로 컨디션을 조절했으며 十月 十五日 國技院에서 結團式을 가졌다.

金雲龍會長은 襄永基團長에게 태극기를 宋祥根 감독에게 단기를 수여하고 나서 “宗主國選手답게 技術面이나 精神面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기필코 한사람의 누락없이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18일 大會에 입한 選手들은 긴장으로 초반전에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경기가 끝나자 시종 침착하게 게임을 이끈 사령탑——高의민고치는 처음으로 함께 웃었으나 시상대에 태극기가 올라갈 때는 자못 긴장되고 근엄한 表情이었다.

그동안 遠征은 選手들이 동전호텔에 투숙한 反面 한국팀은 國技院合宿室과 食堂을 利用——비교적 不便은 겪지 않았으나 一般팬들이나 餘他의 성원은 無關心한 程度였다.

10月25日解團式을 마친 代表팀은 金雲龍總裁의 주선으로 自由中國에 원정하는 幸運을 잡았는데 選手및 高의민고치는 “一生의 榮光”으로, 소감을 집약시키면서 遠征이 跆拳道協會發足以後 첫 代表팀의 원정이라는 무거운 使命感을 밀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代表팀은 보너스비슷한 이 친선 경기의 日程을 無事히 마쳤는데 戰績은 對 自由中國 代表팀과 7:1의 壓勝이었다.

이들 選手들은 今年 9月 열리는 제2회 世界大會에도 끊임없는 精進을 約束했는데 一般 팬들도 너무 그 일말이 그 일곱 이어서 底邊 擴大에 宗主國답지 않은 印象을 주지 않을까 색다른 우려를 表明하기도.

全員優勝——綜合優勝의 成果는 일단 代表팀의 의무를 完全히 수행한 跆拳道精神으로 남을 만했다.



韓國팀 벤치 選手들이 競技를 지켜보는 가운데 (左側)高의민고치는 作戰구상을 하느라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아시아 跆拳道聯盟發足の 胎動

——아시아聯盟 發足 발기회의 國技院會議室에서——

이번 아시아大會 준비를 위해 技術審議會를 비롯한 各小委員會들이 열려 大會에 만전을 기하도록 모든 일이 들다리도 두드리고 지나가는 式이었다.

아시아大會 開幕을 하루 앞두고 열린 代表者會議는 大會執行委員長의 人事에 이어 執行委의 審判分科委에서 競技方式과 추첨이 있었다.

要綱이 이미 傳達되어 各 規定에서는 별다른 異意가 없었으나 體級別 추첨이 진행되자 各國팀들은 韓國팀과 같이 결려 對陣이 決定될 때 마다 喜悲가 엇갈리는 珍風景을 연출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不戰勝이 결쳐 파안대소했고 싱가포르의 에디렌·쥬 團長은 全部가 한국과 결렸으면서 울상이었다.

★

★

★

自由中國은 팀인솔자와 별도로 會議代表를 구성 노효영한국사범을 코문으로 통역케하며 始終 會議에 임했는데 이번 機會에 舉論되어 왔던 아시아聯盟의 結成을 매듭짓고 싶은 논지.

10月20日 決勝戰을 앞두고 午前 10시부터는 自由中國의 提議으로 假稱아시아聯盟發起총회가 열렸다.

各國에서 正, 副會議代表가 二名씩參加한 가운데 이번 이란으로 出發하는 김희근사범이 음식버로 參加했고 매마침 訪韓中이던 치아, 우스칸 터키協會長은 日程關係로 不參했다.

自由中國의 陳良光代表는 『그동안 아시아의 跆拳道가 急速한 成長을 보였고 아직 各國間의 實力이 完全히 平準化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着實한 터전을 잡았음으로 이제 보다 긴밀한 協助과 發展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시아聯盟을 發足시키는 것이 賢明하다는 結論에 到達했다고 하며 또 이 大會에 參加한 모든 關係者들이 같은 意見이실줄 안다』고 提案 說明을 했다.

이 會議의 임시 會長을 맡은 嚴雲奎事務總長은 自由中國의 要旨을 充分히 會員國에 傳達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뜻이 모두 함께 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적법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것이며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하더라도 國際慣例上 충분한 검토와 協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周知시켰다.

오스트레일리아代表 잭·라이트(南호주 下院議員)씨는 이 會議가 成立될 때는 當然히 호주도 參加되어야하며 그 名稱도 汎아시아 내지는 아시아—太平洋跆拳道聯盟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意見도 내놓았다.



또 크메르側에서 正代表 통통은 原則적으로 찬성이지만 좀 더 많은 나라를 創立에 參加시키기 위해서 좀 더 時日을 갖고 充分히 검토할 餘裕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發言을 했다.

또한 필리핀 側은 萬一 아시아跆拳道聯盟이 發足된다면 기존의 國技院과 世界跆拳道聯盟과는 어떤 關係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質問했고 임시회장은 世界跆拳道聯盟規約제2조3항을 擴大해석하여 그 인준을 得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유덱태권도 연맹도 마찬가지이며 國技院은 創設 동기에 따라 世界跆拳道의 本山이며 宗主로서 말은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든 會員國들은 보다 긴밀히 技術을 交流하고 發展을 꾀하며 各國間의 親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시아聯盟의 發足에 찬성을 보였으며 다만 時期과 節次가 問題라는데 意見을 좁혔다.

싱가포르 代表 에디렌, 쥬는 이자리에서 준비위원국을

치아 우스칸 터키 協會長.....大會組織委員으로
잭·라이트 濠洲 下院議員.....濠洲팀 團長으로

—Chiat Uskan Turkish T.K.D Associn. & Jack Wright
Anstralian Assembly Member Visited Kukkiwon—

이번 아시아태권도選手權大會에서는 選手外에도 많은 國內外人士들이 參加했는데 그중 터키태권도협회장 치아, 우스칸씨는 특히 이채를 띠었다.

中, 近東지방 태권도의 한 요충으로 알려진 터키는 이번大會에 꼭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日程의 촉박등 제반 事情으로 포기——치아, 우스칸 터키협회장만이 이스멧즈 副會長을 대동하고 來韓했다. 이번 그는 金雲龍 總裁의 초청으로 來韓 大會組織委員으로 參加하는 榮光을 갖었는데 院長室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터키는 中近東의 交通中心地이며 오래고 아름다운 歷史를 갖고 있다. 주변국가——터키, 그리스,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아, 요르단, 이란, 을 비롯하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十五個國에서 번져가는 跆拳道의 熱은 實로 놀랍다』고 전하면서 『76年 2회대회에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덧붙이면서 가능한 김운용총재의 뜻대로 中近東大會도 開催해보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폐회식의 시상상에 參加하고 卽박 국기원에서 보낸 우스칸씨는 터키체육회 이사이기도 하며 豫備役大領

또한 오스트레리아의 下院議員인 잭, 라이트씨는 말로만 듣던 한국의 경제성장을 직접보고 경이를 느꼈다고 말하면서 精隨跆拳道를 보고 眞正한 태권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오스트레리아와의 體育交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폐회식때 김운용회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받는 치아우스칸 터키 회장



오스트레리아아원단장 잭 라이트씨가 會長과 환담하고 있다

(27페이지에서 계속)

高揚시켰다는 점.

④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 아시아태권도聯盟 創設을 舉論한 發起會議를 가져 來年 世界大會에 앞서 創設하기로 하고, 準備委員長國에 韓國, 委員國으로 自由中國,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크메르를 選出했다는 것.

⑤ 이大會를 계기로 아시아地域選手權大會를 每2年마다 開催하고, 次期大會를 1976年 서울에서 開催키로 한 점.

⑥ 各國의 跆拳道協會가 當該國家體育會에 正式加入한은 물론, 世界跆拳道聯盟 加入에 박차를 가하고 隣接國家에도 자극을 주었다는 점 등이다.

~~~~~  
(32페이지에서 계속)  
~~~~~  
두어 相互 充分히 交流케 하여 來年의 世界跆拳道大會에 앞서 正式으로 發足시키는 것이 어떠한 意見을 提示했으며 이 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會長國에는 韓國이 准비위원국에는 필리핀, 自由中國, 싱가포르, 오스트레리아가 선출되었는데 이 회의에 參席한 代表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배영기 총상군 싱가포르 에디렌 추, 김용호 필리핀 A Hasbollah, 朴容萬 말레이지아 Erania 크메르 Phanghiyorth 金世鍾 日本 강정형 馬場義昭 Hongkong 프랑크 웨더 막송강을 팔 Elmer Golla 지동주 自由中國 陳良光 濟淸洪 노효영 오스트레리아 Jack Wright이출
~~~~~

# 資質검비한 師範의 育成

第十一期 指導者 教育 國技院에서 盛了

The 11th Instructor Training Course



指導者教育에서 鷺山 李殷相 先生은 國技跆拳道를 가르치는 여러분은 主體意識 民族精神 克己와 創造精神을 發揚해야한다고 강의했다

11期 指導者教育이 11月25일부터 一週日間 國技院에서 열렸다.

1974年度 中央마지막 指導者教育인 이번 教育은 예년에 비해 무거운 날씨를 보였으나 아침·저녁으론 덥고 하의 기온에서도 교육이 끝나는 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 指導者教育의 所期의 目的의 3 4은 回를 거듭할수록 높아가고 있다.

跆拳道의 汎世界化에 比例하여 跆拳道를 올바르게 指導할 수 있는 師範은 아직 絶對的으로 不足한 實情이다.

그러므로 世界의 跆拳道로서 基盤을 더욱 確固히 하기 위해서는 充分한 時間과 內容面에 忠實을 期하고 回가 거듭될수록 이를 바탕으로 體系綜合化되어야 할 것이다.

25日 9時30分 백영기 講師의 禮儀規範으로부터 시작된 講義는 跆拳道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禮節이 이어 이 교윤講師의 審判規定, 오후에는 박해만講師의 用語解説, 基本動作등으로 이어졌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跆拳道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體育原理 및 協會의 各種現況과 正確한 품세에 對한 理論 및 實技가 있었다.

29日에는 教育原理(유봉호講師)에 이어 招聘講師인 노산 이은상先生의 敎養時間이 있었다. 이은상先生은 講義를 통해 「참 韓國人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現實속에서도 跆拳道精神으로 참 韓國의 주인으로 眞實한 韓國의 내일을 開拓할수있는 여러분을 만나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努力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創造의인 次元에서 開拓者의 情熱을 불태우는 것이 필요하다 격려했다.

마지막 30日에는 김용서講師의 應急治療法에 이어 金雲龍會長은 異例의으로 受講生들을 一時訪問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指導者教育을 받은 受講生들을 激勵하며 「國技跆拳道는 이제 世界의 跆拳道로 成長했음을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것이며 모든 跆拳道人들은 唯我獨尊의인 것을 버리고 올바른 指導者로서 一致團結하여 國技跆拳道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다 함께 努力



하자」고 激勵했다.

곧이어 一週間 배운 理論科目과 품세 및 師範으로서 實質을 評價받기 위한 筆記 및 實技試驗에서 품세의 連結動作 및 基本姿勢와 各 分科委員會의 機能등 指導者로서 必要한 各種問題에 答하느라고 受講生들은 모든 智慧를 짜내기도했다.

이어 1時10分 協會 嚴雲奎事務總長은 修了式에서 이 정학 修練生에게 修了證을 金진한 修練生에게 紀念페 닌트를 授與하였으며 이교현 修練生은 修練生一同을 代表하여 난로 2개를 기증품으로 國技院에 贈敬했다.

參考로 1974年度 指導者教育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 었다.

제8기 지도자교육 1월16일 國技院 57名

" (2차) 4월 6일 忠南 大田 52名

제9기 지도자교육 5월 7일 國기원 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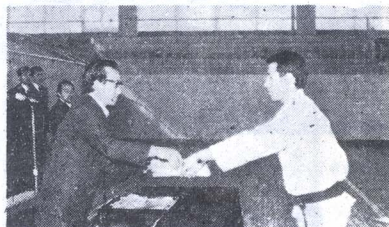
제10기 " 6월29일 國技院 97명

제11기 " 11월25일 國기원

그리고 11기 2次 교육이 港都 釜山直轄市 九德體育 館에서 12월16일부터 12월11日까지 85名이 參加한 가 운데 열렸다.



國技院에 잠시들려 두엇보다 研究하고 開發하는 指導者精神을 강조한 金運容 회장의 격려



修了式에서 修了證을 받는 이정학 수강생

다음은 11期 指導者 教育을 受講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일선지도에 입할 사범의 명단이다.

|     |     |     |     |     |     |     |     |     |     |     |     |     |
|-----|-----|-----|-----|-----|-----|-----|-----|-----|-----|-----|-----|-----|
| 李敎憲 | 金建煥 | 李華珪 | 吳海榮 | 金炳成 | 趙泰南 | 이관모 | 趙慶鎭 | 黃堯煥 | 申石基 | 崔漸喆 | 金匡植 | 張弼基 |
| 金基赫 | 韓在雄 | 元仁熙 | 韓昌彦 | 崔承彦 | 韓光彦 | 李鍾斗 | 金學秀 | 李廣鎬 | 郭權煥 | 韓文男 | 姜明熙 | 金鍾男 |
| 李正鶴 | 金學洙 | 南重國 | 文和龍 | 金正廣 | 朴永鎬 | 權承澤 | 承根亨 | 黃德浩 | 安孝滿 | 趙潤泰 | 任完彬 | 박기복 |
| 洪基厚 | 吳明植 | 金圭益 | 朴泰國 | 李泓鎬 | 채만춘 | 朴永福 | 康斗植 | 여종구 | 朴起學 | 玄政煥 | 李圭烈 | 朴錫天 |
| 羅仁昌 | 韓萬奎 | 朴志潤 | 李鉉坤 | 金鎭聲 | 鄭俊鎬 | 尹容甲 | 姜鎭國 | 韓啓鍾 | 박종민 | 閔舜基 | 조규수 |     |
| 황재규 | 김관균 | 이종훈 | 김태경 | 황병우 | 조규하 | 金榮浩 | 姜光淳 | 申世鎬 | 崔錫仁 | 曹奉煥 | 金在夏 | 安永玉 |
| 金春培 | 韓萬熙 | 鄭漢基 | 邵有泰 | 이왕섭 | 韓孝鳳 | 俞鉉穆 | 姜顯鎭 | 李根弘 | 金完培 | 權寧哲 | 嚴光燮 | 崔鍾學 |
| 金民中 | 박승원 | 梁昌萬 | 金啓烈 | 玄鳳哲 | 張在羽 | 金永潤 | 金斗河 | 林炳角 | 李致遠 | 安城甫 | 李明雨 | 朴光一 |
| 劉秀雄 | 宋寅國 | 鄭東錫 | 李用善 | 禹聖秀 | 金 子 | 尹炳玉 | 이희빈 | 金南錫 | 김상배 |     |     |     |

For the subscribers on abroad each foreign countries, please 100send us your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below.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 Mu Kyo Dong Chung Ku, Seoul, Korea

| Postages | for one copy    | one year term  | (one copy:70 ¢)                                                                                                |
|----------|-----------------|----------------|----------------------------------------------------------------------------------------------------------------|
| 1 Block  | ( \$ U.S.) 0.80 | ( \$ U.S.)3.20 | China. Hong Kong, Macao, Ryukyu. Japan.                                                                        |
| 2 "      | ( " ) 1.0       | ( " )4.00      | Alaska, Burma, Cambodia,Guam, Laos, Malaysia. Vietnam, Philippines. Midway, Singapore, Thailand                |
| 3 "      | ( " )1.50       | ( " )6.00      | Near East Asia, Pakistan, India (except the areas included in 1st, 2nd and 4th zone) Canada, Hawaii.Australia. |
| 4 "      | ( " )1.80       | ( " )7.20      | Europe, Centroal America, South America, West Indias, Middle East Iran,Iraq, etc.                              |

# 今年度 順位決定戦—소병모(高技미들급一位)

1974년도 全國跆拳道 優秀選手 選拔大會

1974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주위에 고전하는 경기장 제1회아시아 대회가 끝고간 국기원 경기장은 쓸쓸하다  
그러나 영하의 참피온탄생을 위해 熊戰 攻防이 계속되었다

금년도 跆拳道競技의 總決算이며 實質的인 랭킹을決定하는 시즌업 경기인 全國跆拳道優秀選手選拔大會가 總 289名이 參加한 가운데 11月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國技院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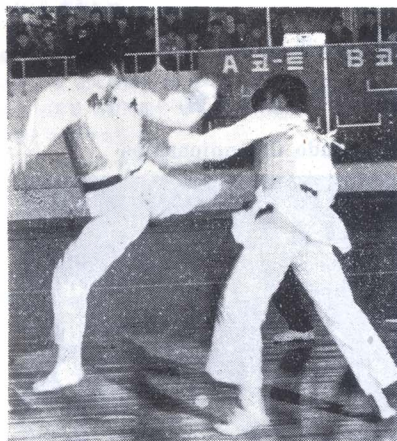
아시아代表選手로 選拔된 選手들이 自由中國원정으로 불찰 아쉬운감이 없지 않은가운데 영하의 기운속에도 열띤 용원속에 벌어진 3일간은 금년도의 랭킹을 다루는만큼 각계급 선수들은 必勝의 信念으로 豫選戰부터 決勝戰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집전을 벌였다.

中技部권급결승에서 이종율(영성고교)은 최 판성(광성고교)의 원족발 부상에 힘입어 여유있게 대망의 타이틀을 얻었으며 루라이급에서는 김계홍이 탄탄급에서는 시합경험이 풍부한 손태환(명지대학)이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이재현의 끈질긴 추적을 물리치고 우승하였고 미들급의 김영환(남산공전)은 윤기원파의 밀리고 밀치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으며 고교선수로서 많은 시합경험을 가진 김진수는 미들급의 유망주로 대성할 소질을 엿보였다.

한편 高技部에서 가장많은 선수들이 참가 열전을 벌인 페터급에서 박관식은 차종길(연세대학)의 부상으로

기권승을 하여 가볍게 타이틀을 얻었다. 라이트급의 박용준도 나종열의 기권으로 앉아서 금메달을 얻었다. 특히 마지막날의 결승전에서는 한계임도 놓쳐서는 탈락이라는 열띤 경기때문에 부상자가 속출 기권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으나 中技部 권급의 최판성(광성고교)은 원족발의 심한 부상에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가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高技部 라이트급의 나종열(해군)은 준결승전에서 안면부상으로 의사로 부터 경기포기권고를 받았으나 결승전에서 74년 신인선수권대회의 우승자인 박정호를 맞아 고전분투 무승부를 기록 제체에서 이겨 결승전까지 올라갔으나 심한 안면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 준우승에 그쳤다. 그러나 不退戰의 투지는 跆拳道精神의 發露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아쉬웠던것은 대회 기간이 각급 학교의 시험기간과 겹치고 날씨가 추워 부상선수및 기권선수가 속출된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고등학교 선수들이 막가짜가 증기부에서의 많은 입상을 차지한 것과 부산 동아대학교의 꾸준한 참가는 내년의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선수재번확대에 밝은 전망을 비쳐주고 있다.



사진(左) 明知大 손태환(왼편) 선수의 멋진 점프  
열차기가 이재현의 열구리에 작렬하고있다 중기  
부반탐급 경기 사진(下) 시상식에서 미들급 스  
범모선수가 상장을 받고있는 벽찬순간

### (우승자명단)

|        | 중            부 |   |   |             |   |   | 고            부 |   |   |             |   |   |
|--------|----------------|---|---|-------------|---|---|----------------|---|---|-------------|---|---|
|        | 우    승         |   |   | 준    우    승 |   |   | 우    승         |   |   | 준    우    승 |   |   |
| 핀    급 | 이              | 종 | 울 | 최           | 관 | 성 | 이              | 상 | 순 | 최           | 주 | 성 |
| 푸라이급   | 김              | 계 | 홍 | 최           | 식 | 천 | 한              | 유 | 근 | 고           | 재 | 상 |
| 뽀    급 | 손              | 태 | 환 | 이           | 재 | 현 | 박              | 수 | 복 | 차           | 성 | 조 |
| 페    급 | 김              | 세 | 혁 | 장           | 석 | 회 | 곽              | 관 | 식 | 차           | 중 | 길 |
| 라이트급   | 이              | 문 | 희 | 이           | 경 | 상 | 박              | 응 | 준 | 나           | 중 | 일 |
| 월    급 | 신              | 승 | 현 | 윤           | 천 | 의 | 고              | 봉 | 신 | 강           | 난 | 구 |
| 미    급 | 김              | 영 | 환 | 윤           | 기 | 원 | 소              | 병 | 모 | 안           | 규 | 현 |
| 헤    급 | 김              | 정 | 식 | 오           | 유 | 열 |                |   |   |             |   |   |

### ◆알           림◆

심사신청서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적과 원주소 성명은 한자(漢字)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증명판 사진 3매를 첨부할 것.
3. 소속 관, 중앙 본 관장의 추천서를 받을 것.
4. 2단 이상 응시자는 협회 발행 단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이상 4항목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 심사원서를 접수치 않음

大韓跆拳道協會 事務處



## 뜻밖의 戰果 慶南팀 三位에—

### 第五五回 全國體典 — 跆拳道競技 —

全國體典 시상식장경 총1000점으로 우승한  
서울팀 김봉기(右)코우치가 우승컵을 받고있다



今年度 體育界는 아시아大會와 國技院의 제1회 아시아 테권도 선수권대회 개최등 内外의로 多事한 가운데 제55회 民族의 祭典인 全國體典이 10월 8일부터 13일 까지 서울運動場에서 開幕되었다.

10월 8일 午前 10時 강화도 마니산에 採火된 聖火가 불타오르면서 開幕된 全國體典에서 朴正熙大統領은 金鍾泌 國務總理가 代讀한 致辭를 통해 「體育의 目的은 國體力을 단련하고 剛健한 精神力을 涵養하는 데 있다」 밝히고 「體育을 통해 연마한 國民들의 強力한 體力과 不屈의 鬥志는 그 어느 時代에 있어서나 國家發展의 基本이며 推進力」이라고 致賀했다.

이어 午後二時부터 各種競技가 서울 運動場을 中心으로 行해되었는데 跆拳道는 8日代表委會議 9日부터 競技에 들어갔다.

이 大會에는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를 앞두고 7명의 選手가 參加했다. 이번 全國體典 跆拳道競技는 明實相付한 全國民의 體典으로 發展시키기 위해 審判員의 構成에 있어 中央會議審判員과 各道에서 選出된 11名の 審判員과 道代表코우치로 選擇된 審判員을 제외한 가운데 行해되었으나 綜合得點을 위한 總力戰으로 심한 競爭의 불씨를 完全히 끄지는 못했다.

아시아 대표선수로 선발된 고등부 프라이급의 하서광은一回戰에서 不戰勝으로 二回戰에 進出했으나 準決勝에서 釜山の 河奉甲에게 어이없이 敗했다. 그러나 河奉甲도 忠南 朴商權에 패해 三位에 머물렀고 反對面 시트에서 올라온 경기의 黃龍洙에게 패해 最大의 亂戰을 벌였다.

그리고 고등부 반담급에서 주상현은 서울代表로 뽑히지 못했으며 高技部해비급에서 경북의 최정도와 전북의 조찬성이 계임을 포기하듯해 一점 一점을 교환무승부로 물고 가는듯 한 태도는 관계자의 이맛살을 찌프리게 했으며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은 二回 20초에 계임을 中斷시키고 共同優勝이 宣告된 것이었다.

승부의 向方에 치우친듯한 이런 임전태도는 앞으로 크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상위권에 있던 忠北 경북 釜山 등이 亂戰을 벌인가운데 意外的 慶南팀이 三位로 浮上 예년에 없는 異變을 낳았으며 서울팀은 3連勝의 위업을 이룩했고 全北도 계속 상위권에 남았다.

아시아大會를 一週 앞두고 들뜬분위기 가운데서 行해된 55회體典테권도는 경기규정의 이해등 주변확대외에 획기적인 發展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사진설명)  
위쪽 全國 體典 태권도  
경기 결승전 주먹 지  
르기의 자세를피해 재  
택른 뒤돌려 차기가  
성공된 것을 주심이  
보고있다

아래 : 김철한  
(서울)의 뒤돌려차기  
가 점프된 상태에서  
상대의턱에 명중된 순  
간



### 55회 全國 體典 綜合戰績

| 순 위 | 소 속 | 득 점   |
|-----|-----|-------|
| 1   | 서울  | 1,009 |
| 2   | 전북  | 984   |
| 3   | 경남  | 839   |
| 4   | 경기  | 825   |
| 5   | 부산  | 822   |
| 6   | 전남  | 805   |
| 7   | 강원  | 794   |
| 8   | 충남  | 746   |
| 9   | 충북  | 727   |
| 10  | 경북  | 721   |
| 11  | 제주  | 660   |
| 12  | 재일  | 106   |
| 13  | 재미  | 62    |

### 제 55 회 全國體典個人 戰績

#### 고 등 부

|     | 우       | 승       | 준 | 우 | 승       |
|-----|---------|---------|---|---|---------|
| 핀   | 윤창옥(서울) |         |   |   | 박임생(강원) |
| 푸라이 | 황용수(경기) |         |   |   | 박상권(충남) |
| 반   | 탄       | 박강원(부산) |   |   | 장배원(강원) |
| 페   | 터       | 윤상훈(경남) |   |   | 김광삼(서울) |
| 라이트 | 이문희(서울) |         |   |   | 김용진(경남) |
| 월   | 터       | 정수근(서울) |   |   | 차석원(경기) |
| 미   | 들       | 김영환(서울) |   |   | 손희철(부산) |
| 헤비  | 김진갑(전남) |         |   |   | 홍영만(강원) |

#### 一 般 中 技 部

|     | 우       | 승               | 준 | 우 | 승       |
|-----|---------|-----------------|---|---|---------|
| 핀   | 김정구(강원) |                 |   |   | 장준호(부산) |
| 푸라이 | 김무천(충북) |                 |   |   | 손태환(서울) |
| 반   | 탄       | 이재현(전북)         |   |   | 문정오(경남) |
| 페   | 터       | 김세혁(경기)         |   |   | 이상천(전북) |
| 라이트 | 박원(경기)  |                 |   |   | 박인항(전북) |
| 월   | 터       | 송영기(충북) 오인규(전북) |   |   | 공동승     |
| 미   | 들       | 백남식(전북)         |   |   | 황수갑(경남) |
| 헤비  | 김정식(서울) |                 |   |   | 최선목(충북) |

#### 高 技 部

|     | 우               | 승               | 준 | 우 | 승       |
|-----|-----------------|-----------------|---|---|---------|
| 핀   | 최주성(전남)         |                 |   |   | 송연호(충남) |
| 푸라이 | 백만기(충북)         |                 |   |   | 김인성(전남) |
| 반   | 탄               | 이철주(경기)         |   |   | 박성국(경북) |
| 페   | 터               | 강희성(전북)         |   |   | 진세범(강원) |
| 라이트 | 이기현(서울)         |                 |   |   | 김현규(강원) |
| 월   | 터               | 김철환(서울)         |   |   | 강관구(전북) |
| 미   | 들               | 양영관(경북) 노봉원(강원) |   |   | 공동우승    |
| 헤비  | 최정도(경북) 조찬성(전북) |                 |   |   | 공동우승    |

## 幻想的 韓國의 跆拳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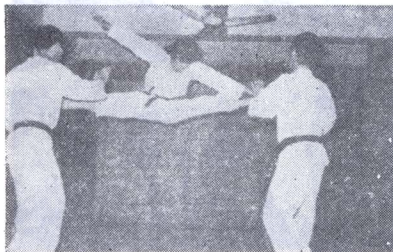
— 英國에서 활약하는 이치근 사범 —



They fly through the air with the greatest of ease. Wayne and Matthew demonstrate one of the arts of taekwondo



The fighting Gates, from left Lee, 12, Mandy, 13, Wayne, 9, and Donnette, 10



Freddie Lee Chee Kin flying into action

싱가폴과 홍콩 등 東南亞에서 활약하다 英國에 건너간 이치근 사범은 英國에서 跆拳道를 보급하기 始作 保守의이고 傳統의인 英國에 태권도의 風을 造成하기에 이르렀다.

李 사범은 브른市에서 每水曜日과 金曜日에 케이니스 메인市에서 月, 木曜日 순회지도를 하면서 어린이에서부터 中年층까지 폭넓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來年の 제2회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를 겨냥하고 世界跆拳道聯盟의 경기규칙과 규정에 의거 英國跆拳道協會를 結성한 이치근 사범은 자세한 內容을 곧 보고해울 것이다.

## Korea Taekwondo in England-organizing British Taekwondo Association!

FREDDIE Lee Chee Kin, of the Bourne TaeKwonDo club, Ruislip, was recently awarded his fifth dan' black belt grading. To take the grading he had to travel to Korea.

While he was out East, Fred also visited Hong Kong, China and Japan.

He has also just formed the British TaeKwonDo Association

TaeKwonDo is a Korean original martial arts.

The new association is affiliated to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Fred has been appoin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to become the instructor for TaeKwonDo in the United Kingdom.

Now Fred is organising a Europea TaeKwan Do Tournament which he hopes will be held early next year.

He is also hoping that some of his boys will participate in the seco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o be held in Seoul, Korea next year.



<LEBANON> Taekwondo Pioneers in LEBANON...David Chaanine

中近東의 태권도 새물결

용감한 三兄弟

宗主國의 指導師範, 技術지원 아쉬워

아름다운 地中海연안에 자리잡은 레바논은 人口百萬程度 面積 1만 400km<sup>2</sup> 이며 50萬人口의 베이루트를 首都로 하고 產油國됨에 끼어 石油은 나지않는 休養都市이다.

이곳에 韓國의 跆拳道가 보급된 것은 이미 10餘年前 1960年代부터 유림駐在師範들의 보이지않는 努力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世界의 跆拳道가 國家單位로 內實을 期하고 自國內 指導者의 수요조차 充足치 못하게 됨에 따라 自然 이들 中進 跆拳道國家는 宗主國과의 對話가 斷絶되게 된것도 또한 事實이다.

이번 레바논의 跆拳道實庫를 發見한 韓光洙 소령은 『레바논의 跆拳道熱은 대단합니다.』——모든 Taxi에는 태극기와 함께 英字로 “TAEKWONDO”라고 새겨져 있으며 먼저 들어온 가라메가 日本의 資金후원을 등에 업고 알파한 商魂으로 자멸하고 있는 反面 한국跆拳道

의 克己, 不屈, 闘志, 忍耐, 等の 純粹한 精神이 認識됨으로서 이제 國家單位 體育會인 레바논 체육회 (Lebano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에 가입시켜 本格的인 國民體育으로 보급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David Chaanine (29歲)三兄弟는 이곳 Y.M.C.A에 태권도 道場을 열고 跆拳道의 宣傳, 普及, 및 技術指導에 임하고 있다. 산하數個道場에 1,500名이나 되는 跆拳道人口를 보유하고 있는 David씨는 그러나 宗主國의 技術 行政 昇段審査를 直接 接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애로이기 때문에 來年初 世界跆拳道의 本山인 國技院을 訪問하여 모든 것을 배워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레바논의 跆拳道는 한소령의 견해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이런 아시아대회 종합三位를 이룩한 크메르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주국과의 關係만 잘 이루어진다면 跆拳道界에 曄曄의 膳物을 安진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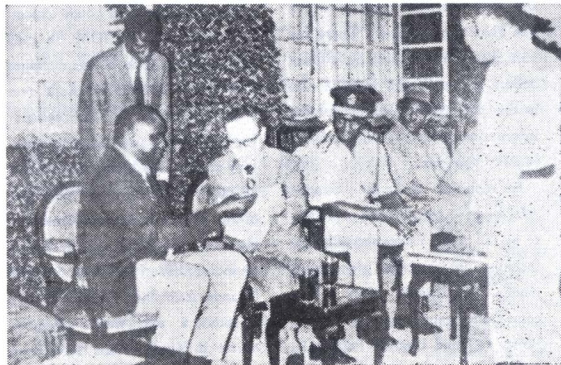


사진左(테비트·샤닌과 한광수소령)그리고(右)는 한소령의 태권도시범(레바논)

〈UGANDA〉

# 金雲龍總裁 이디·아민 우간다 大統領에 감사패 전달

— 이 자리에서 김남석 사범과 우간다태권도선수의 시범도 —



좌단 아민 대통령 그다음 유동한 한국대사 右단이 김남석 사범 —감사패전달식에서—

## President Amin Promotes Professor Ki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has appreciated General Idi Amin's efforts for promoting the Taekwondo in Ugnada. This message was read to Uganda's leader by the Commissioner of Prisons, Mr. G.W. Sentamu at the General's Kampala Lodge on the occasion of the presentation of an appreciational award from the President of World Taekwondo Federation Mr. Un Yong KIM. On the same occasion, President Amin promoted Professor N.S. KIM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ank of superintendent

of Prision in appreciation for the work he has done for this Nation since he came here in 1969 to take up the job of instructing Uganda in Taekwondo. Earlier, the Uganda Taekwondo team demonstrated to President Amin who was very much impressed with their performance

President Amin, (seated left) with the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in Kampala, Mr Yoo Dong Han, in glasses, admires a personal gift to the President from Professor N.S. Kim (standing right) during the demonstration of Tae-kwon-do at Kamala Lodge. The Professor also presented a regulations book about the game, Taekwon-do flags and an engraved plate. Second to the Ambassador is the Commissioner of Prisons. Mr Sentamu.

under professor Nam Suk KIM.

Giving a back ground of the game Mr. Sentamu said; It means self defense and it is also a martial art



시범내치글마치고 사열하는 이디아민 대통령과 안내하는 김남석사범



where a skill of developing the use of limbs for striking an enemy and at the same time use them to defend oneself against an attack, both of which are a peculiarity. It is not only physical training, but it also develops self confidence and calm pose inculcating the highest moral qualities combined with smooth mental discipline. In short; Taekwondo is an art, self defense and sport. The sport dates as far back as twenty centuries. Mr. Sentamu said, and it is a Korean art of self defense which in the olden days was used as a sport and also for defence in the Army in the Korean Military. It was modernized in 1945 after the World War 2 and presently it forms part of the Koreans' life. It comprises of various stances, he added, each with its peculiar nature, but blending into another. There are blocking punch striking, trusting and kicking which can be carried out properly with hands, fists and feet.

Mr. Sentamu revealed that Taekwondo is rapidly spreading around the world from America Europe and Oceania to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 and to some Africa countries like Uganda, Ivory Coast, Ghana, Upper Volta and Morocco. There are over 40 countries actually engaged in the promotion of game. He added among the African countries, Uganda is in her own place as it was the only African country which participated in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which

took place from May 25 to 27 last year in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in which Uganda managed to be the fifth out of the 18 countries that participated. He revealed again to President Amin and other guest that Uganda is the only African country which has black belters and "There are only 12 countries which have black belters in the World. Uganda also is the only Africa country having international referees who qualified in May this year.

He reported that the Uganda referees have been invited to officiate at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which take place next month. The Uganda black belters come from Uganda Army (1) Uganda Police (2) and Uganda Prisons (9)

A Uganda Mr. J.A.A. Etima Superintendent of Prisons is the only African executive member on the World Taekwondo body, which

includes 17 other members from Korea, Germany, France, Mexico, Malaysia, China, Turkey, Singapore. Mr. Sentamu noted that all the achievement Uganda has in the game has been through the cooperation given by the Korea Government who seconded a Taekwondo expert. Professor Nam Suk KIM in 1969 during which time he has managed to bring up 12 black belts and over 3,500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who have passed their elementary stages. He has trained over 80,000 people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He said arrangements are underway to sponsor five members of the Uganda Army and Air forces men to attend a six week advanced course in Korea. Plans have been finalised for the training of 1,500 recruits in the Police Training School and 1,500 recruits in the Prisons staff College.





# 유럽의跆拳道 消息—綜合

활발한跆拳道의 세계化運動이 벌어지고 제1회 世界大會와 國際審判講習會가 벌어진 以來 유럽의 태권도 系에는 일찌기 분수 없던 有機的인 連絡關係와 協助라는 새로운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即 中部에 자리잡은 西獨을 中心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델란드등이 한때 隔絶된 相互의 技術交流——그리고, 底邊擴大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번 金雲龍會長의 積極 訪問 등으로 더욱 이런 무드는 高潮되고 있다.

또한가시 特性은 過去의 소극적태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組織的이며 體系적으로——홍보冊 字의 發刊과 競技大會의 開催 등——發展하고 있으며 跆拳道現代競技化의 礎石들을 着實히 닦고 있다.

이들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紹介하여 이석형기자의 紀行文과 對備시켜 보자. ....<편집부>

**西獨 金萬金** 師範: 지난 10월末 編輯室에 到着한 書信에 依하던 金雲龍總裁가 9월22일 스위스경유 飛來한 空港에 到着하였을때 西獨의 金萬金, 신부영사범 네델란드의 박광철 徐明濤사범 오스트리아 李京明師範등이 歡迎했으며 金總裁는 團結된 유럽사범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돈돈하게 느꼈다고....

그리고 지난 9월28일 프랑스파리에서는 이관영사범이 主催되어 오스트렐리아의 이경명사범, 이탈리아의 정광수사범, 네델란드의 박광철사범과 西獨의 김만금사범이 모여 國際親善시험과 시범을 통해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이번 金雲龍 總裁의 格려에 接한 後에 더욱 분발하여 유럽의 跆拳道를 확고한 기반위에 올려 놓자고 굳게 약속했다는 것

앞으로는 西獨內의 師範들과 연락망조직, 협조, 發展을 꾀하기 위해 시범대회와 경기를 계속 벌일 예정이며 레오마그너부총재의 協助도 구상중이라는 것.

## 西獨 : 이종규

지난 9월7일 이종규사범은 이곳 에빙겐에서 示範과 協會 規定에 의거한 경기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진필식大使의 開會辭, 최동열장학관記席, 테오·바그너 부총재의 祝電이 담지했으며 千餘觀衆이 觀戰했다. 八個 都市에서 參加 市대항戰의 性格을 띤 이 시험에서 서운남사범이 코치로 있는 문현이 우승, 이종규사범의 에빙겐이 준우승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이경명사범) 팀이 三位를 각각 차지했다.



西獨 에빙겐대회입장식 한복의 女人들이 대회표지판을 들고있다



시합후기념촬영 (임원및선수들)



프랑스에서열린 四國示範大會의 팜플렛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 KOREA TAEKWONDO IN THE WORLD

프랑스 : 李觀永

이관영 사범은 9월 유럽四國示範大會를 開催한 以來  
때맞춰 商工使節團으로 이곳에 온 張禮準 商工部長官을  
修行 세네갈에 다녀왔다. 여기서 네델란드 박광철 사



범과 西獨의 김만금사범도 同行했는데 세네갈 靑少年  
들에게 授중 태권도 시범을 펴보이기도 했다.

또 年末에는 프랑스體育人士 만찬회에 跆拳道界 代  
表로 參席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跆拳道를 確固한 地  
위에 올릴 모든 努力을 다 하겠다고



### 各國 사범들 駐在國語 팜프렛 發刊에 熱을려……

### 大韓跆拳道協會도 Spain語版「태권도」紹介冊子發刊

各國에 跆拳道發展을 위한 綜合化와 體系化를 위한  
침경은 書籍을 통한 것——英文敎本이 나온다고 해도  
獨語圈과 佛語 및 스페인關係가 아직 未解決의 章으로  
남게 된다.

徐泳明사범은 今年 가을까지 3卷의 10餘페이지 程度의  
팜프렛을 發刊했는데 사리크로서 뜻이 있을 뿐 道場  
의 紹介와 跆拳道의 斷片的인 知識이 가끔 보이는 程  
度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李京明사범은 비록 40페이지 程度

의 四六版이지만 그 內容이 斬新세고 體系의 일 뿐아  
니라 앞으로 계속될 계획으로 있어 획기적인 里程表가  
되고 있다.

文筆에 뛰어난 才質을 갖춘 李京明사범은 이번 8페이지  
章을 紹介한 後 계속 제2卷에 품세와 기본동작을 說明  
體系化 할 豫定——自費出版 弘報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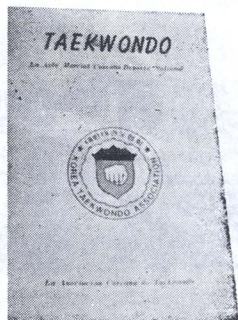
또 大韓跆拳道協會는 英語(改定3版), 獨語에 이어  
西班牙語版(4×6版 44페이지 모조)을 發刊 해 당국에  
弘報用으로 配布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0部 限定版이다



트권까지 낸 네델란드의 서명수사범



이경명사범 독어版 태권도



협화發刊 스페인어版



<Competition News>

# The 1st Middle America Taekwondo Tournament

## 제1회 中美및 멕시코 태권도 선수권 대회

— 멕시코, 파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參加 —

지난 6월29일부터 이틀간 제1회中美 태권도 대회가 세계태권도선라이인 國技院院長의 인준하에 열렸다.

이 대회에는 멕시코(Mexico) 파테말라(Guatemala) 코스타리카(Costarica), 니카라과(Nicaragua)등 4個國에서 參加한 가운데 성대히 開幕되었다. 開會式에는 멕시코에서 문대원, 박종원사범, 파테말라에서 김용덕 사범 코스타리카에서 양원근사범 니카라과에서 이한정 사범이 參加했으며 심판으로 활약했다.

開幕式에서 主催國인 파테말라태권도협회장이며 공군참모총장인 루이스·후엔테스씨는 “한국의 古典경기가 현대화되어 오늘 첫걸음을 내디디는 中美태권도대회를 계기로 젊은이의 體力와 精神力을 高揚하여 韓國과의 友情을 더하는에 도움이 되기를 빈다”고 격려했고 이창희 駐멕시코대사는 축사를 通해 감사를 표하면서 始終게임을 관전—— 박수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폐회식의 市上에 참여했다.

戰績은 멕시코가 金1, 銀2銅3으로 우승 파테말라가 金2 銀3 銅1으로二位를 차지했으며 코스타리카는 金1 銀3銅0으로 三位에 殘留되었고 個人戰 有段者部에서 마누엘·엑카바리가 우승했고 호세·루이스카노가 준우승을 했다.



파테말라 태권도 협회장이며 공군참모총장인 루이스후엔테스의 축사 직후부터 이창희대사부처 로만카스트로 파테말라 체육회장



사진중은 경기장면 아래는 제1회 중남미 태권도대회 입장식장경



# 유럽 및 美洲의跆拳道現況



—金雲龍 總裁 世界一週 隨行記—

合同通信 李 錫 衡

- 今秋 世界射擊聯盟總會에 參加한 후 유럽國과 美國을 돌려 온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總
- 裁를 隨行한 合同通信 李錫衡記者의 유럽 및 美洲의 跆拳道現況을 이번號에 게재한다. ○
- 李錫衡記者가 直接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이 紀行文은 十三號紙의 海外範 座談 ○
- 會에 이어 跆拳道의 實相과 未來像을 鳥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나갈 길에 ○
- 대한 參考로 받아드려져야 할 것이다. 各國의 師範들 뿐 아니라 國內의 跆拳道 ○
- 人 그리고 東西洋의 文化가 接木하는 한 過程에 대해서도 깊은 觀心을 보여주 ○
- 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이석형기자 의 寄稿에 다시 한번 感謝를 表한다. ○

알맞차기 돌려차기 2단알차기등 우리말 구명속에 세계의 태권도는 韓國의 國技院을 정점으로 발났음이 민중속으로 퍼져가고 있으며 이제는 무술의 경지를 넘어 국제스포츠로 뿌리를 뽀어나가고있다. 지구를 한바퀴 돌며 만난 세계각국 여러사람들은 韓國은 어떻게 해서 주먹이 강하고 발이 빠르냐고 모두들 태권도 이야기 뿐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에 얼을심는 것은 이제 태권도가 유일한 것으로 韓國人의 정신을 부각 민간의교에도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태권단에서 만난 트릭운전자가 韓國의 태권도를 배웠다고 자랑하는가 하면 유럽 美洲에서는 코리아하던 「베리굿태권도」로 인사를 대신한다.

지난 9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사격대회에 참석한 金雲龍세계태권도연맹총재와 함께 돌아온 오스트리아 서독·네델란드 프랑스·英國등 유럽태권도계와 美國의 태권도는 이제 거대한 민중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차려」 「정배」 「시작」으로 비롯되는 태권도는 이제 정부대 정부가 아닌 민간대 민간의 교류로 크나큰 비중을 차지 태권도사범들은 민간의교관으로서 조국의 얼을 심는 哨兵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계약 도장운영등에서 주재국의

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정부에서도 이제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정치작업을 끝낸만큼 사범들의 권익과 대동단결을 위해 日本政府가 「가라베」보급을 위해 물량지원을 아끼지 않듯이 각국에 중앙도장 하나쯤은 건립해주고 뒷바침을 해줘야 할때가 왔다.

## 유럽

### 10餘年前부터 始作 整地作業 거의 끝나

유럽태권도는 10여년의 보급기간을 지나 이제 정치작업을 끝내고 있는 단계에 있다. 유럽각국에 산재해 있는 사범들은 작년에 서울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렸던 것을 계기로 단합하기시작, 꼬배(코리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위해 도장단위에서 지부단위·협회단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유럽태권도 연맹이 결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유럽은 일반적인 현상이 영주권이 없으면 도장을 개설할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범들은 도장경영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실정이고 경기심판부도 西獨유도분트(협회)에서 장악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 오스트리아

### 정규時間 배정指導 初·中·高·大學에서 봄

獨語 90% 이탈리아語10%를 사용하고있는 오스트리아는 李京明사범(36才 6단)이 韓國의 태권도를 인스부르크에서 주도 품세의 통일까지 이뤄졌으며 특히 이탈리아국경인 브렌너에서 33km떨어진 스키의고장 인스부르크는 현재 국·중·고·대체육관에서 韓國태권도를 정규시간에 배정,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68년도에 오스트리아태권도협회를 결성, 작년도 서울 세계선수권대회에도 개인전에 참가했으며 지난 70년 오스트리아협회초청으로 파견된 李京明사범이 인스부르크에서 4개의 도장과 9개지 부를 순회하며 유년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 吳勝洪사범이 린즈에서 金良雄사범이 살즈브르크, 徐永哲사범이 요한에서 각각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나 고용되어 있는 상태로 월급에서 소득세까지 물고 있다.

4개도장외에 인스부르크대학과 린즈대학교 「할」교에 1주 2회 출강하고 있는 李사범의 설명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태권도가 더 보급될 여지가 많은 나라로 음악을 사랑하는 것에 못지않게 신변보호와 동양의 신비를 느끼는 태권도를 좋아해 정신단련운동으로 경가를 받고있는 것.

67년도에 문헌에서 사범을하다가 70년도에 오스트리아로 와서 태권도로 立身한 李사범은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인들이 태권도를 이해하지 못해 백화점 또는 술집에서 벽들을 깨고 송판을 가르며 시범을 해보지않고는

경가를 하지않는 이들에게 태권도의 강인성을 증명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日本가라마가 빈과 살즈브르크를 중심으로 먼저 들어와 조직도 잘 되어있으나 심판을 오스트리아에서 장악하고 있고 활동은 현재 활발치 못



이경명사범의 도장에서 중앙의신비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 한 실정이다.

반면 태권도는 아직도 기술은 물론 심판을 韓國사범들이 주도하고 있어 전망이 밝으며 73년에 세계연맹창설로 품세도 협회품세로 통일되었다.

애로는 영주권이 있어야 도장을 경영할수 있는 것과 초보자들이 배울수있는 책자가 가장 아쉬우며 세계연맹이 1년에 한번만이라도 시범단을 파견 기술지도를 해주면 보급도는 물론 韓國태권도의 기반이 확립될것이라는 것이다.

## 서 독

### 유럽에서 가장먼저 태권도를 시작

西獨은 徐允南사범이 문헌에서 2개의 대형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 金萬金사범이 쾰른에서 蔡수용사범이 베르린 신부영사범이 함부르크 이범희(하노비) 박광철(아헨) 김광일(수트트가르트) 송찬호(하겐) 정홍일(프포르자임) 김우광(도르트문트) 송진수(하만) 이종규(에빈겐) 광광명(베비르루센) 박창호(뤼벤)등과 그밖의 사범들이 西獨전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많은 사범들이 활약하며 태권도경기인 구도 가장 많은 西獨은 그대신 현재 혼돈속에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서독에 있는 사범들이 태권도협회에서 파견된 사범보다 대부분 광부출신사범 또는 유학생으로서 주저않은 사범들이기 때문에 기술지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문헌의 徐允南 朴重夫 쾰른의 金萬金사범등



西獨의大會에서 우승컵을 수여하는 이大會 명예대회장 김윤용총재

## 네델란드

### 徐明洙씨 크게 활약 競技力상당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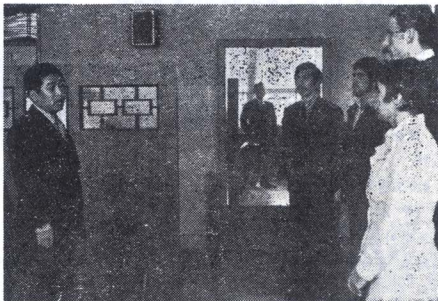
유럽의 여러나라중 가장 精神의 태권도를 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네델란드는, 徐明洙사범이 크게 활약하고 있어 좋은 축당을 받고 있다.

네델란드는 경기보급에 비해 단체인 협회기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흠이나 경기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난 6월에는 국기원에 천지훈련까지 했던 실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네델란드에는 徐사범외에 西獨의 박광철 사범과 김광일사범이 로텔담에 도장을 개설, 국경을 넘나들며 지도하고 있고 허흥택사범이 오쓰, 장광명사범이 펜트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나 네델란드태권도주류는 徐사범이 이루고 있다.

徐사범은 66년도에 西獨에 갔다가 69년도에 네델란드로 넘어가 현재 헬렌에서 개인도장까지 가지고있으며 10여개의 학교와 30여개의 그룹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베테랑으로 그는 제자들에게 경기용어부터 정신교육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韓國式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름이 나있다.

외국사람에게는 서투른 예의나 인간관계의 풍습을



(지난번 國技院에서 수련한 네델란드 선수단의 수료식)

과감히 경기와함께 주입시켜 뒷사람과 아랫사람 부모형제간 친구간의 예를 배운 제자들은 모두 徐사범을 형같이 따르며 존경하고 있다.

네델란드에는 50여명의 유단자가 있고 3단이 3명으로 현재 경기력은 상승일로에 있다.

유학생 교수 기술자등 등포가 40여명 있는 이곳은 태권도가 더없는 韓國의 민간외교로서 부각되고 있어 코리아는 태권도의 나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 有段者 모두 50여명 民間外交로 큰 수확

그러나徐 사범에 의하면 이곳도 영주권이 나와야 개인도장을 세울 수 있게되어 있어 앞으로 파견되는 사범들이 다소 고전할 것으로 보이나 협회는 더많은 우수한 사범을 파견해야 할 것이며 세계연맹의 강력한 통솔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그것은 사범들이 인건에서 넘어와 도장을 경영하는 폐단을 없애고 심도

깊은 기술의 전파를 위해서라는 설명이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세계연맹 관계자 또는 시범단순회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이관영 오흥수사범이 파리에서 활약하며 지난 9월 28일에는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했었다.



## 워싱턴 등 東部強勢韓國 사범 3백여명

태권도 보급 1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美國은 세계 각국 중 태권도역사가 가장 깊고 사범 또한 3백여명이 넘고 있어 넓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다.

美國태권도는 쉽게 東部와 西部로 나누고 있으나 뉴욕·워싱턴 지역의 동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뉴욕에는 韓國인 사범단 50여명이 넘어 곳곳에 태권도 도장이 개설되어 있고 특히 중심지인 1가 1487번지에서 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全麟文사범(40)은 86가에 4백정파의 도장하나를 더 갖고 있으며 趙時學사범은 韓國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윈스태학교 태권도과목교수로 재직, 태권도를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어 美國에서 태권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李俊九사범은 워싱턴에서 태권도 제1인자로 군림하면서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잭·앤더슨가속 7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2백만「달러」를 자본금으로 내내 초에는 은행을 설립하게 되 사업가로서도 성공하고 있다.

美國에는 이들 3거두외에도 많은 실력자들이 군림하고 있는데 金사범은 62년도에 뉴욕에 와서 착실히 기반을 닦아 확고 4단을 정점으로 1백 10명의 유단자를 길러냈고 미국인 유단자 제자들이 도장을 개설, 지도를 받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수련생은 1천명을 넘고 있다. 美國인 대부분들은 태권도를 시작하는 것이 T. V 또는 영화를 보고는 호신술로 익히려고 왔다가 재미가 있어서 계속하는 실정이고 또 여자들은 체중을 빼려고 왔다가 묘미를 발견, 할머니부터 어린아에 이르기까지 태권도를 익히게 된다는 것

美國은 현재 태권도협회가 결성되지 못해 AAU에서 만들기로 한 협회만 결성되면 본격적인 태권도 성장이 기약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日本가라데 먼저 上陸, 70년부터 기를잡아

美國은 당초 日本가라데가 먼저 상륙 활개를 쳤으나 6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태권도가 70년도부터는 완전히 기를잡아 태권도 70% 가라데 30%의 비율로 태권도가 우위를 점하자 가라데는 日本정부의 재정지원등의 힘을 얻어 다시 대항해오고 있다는 실정이다.

그러나 58년도에 渡美 61년부터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趙時學씨는 현재 뉴욕뿐만 아니라 全美國에서 1인자로 메디슨·스프링가든에서 지난 67년도부터 1년에 한번 3월에 태극기와 미국기를 걸어놓고 태권도대회를 하고있는 실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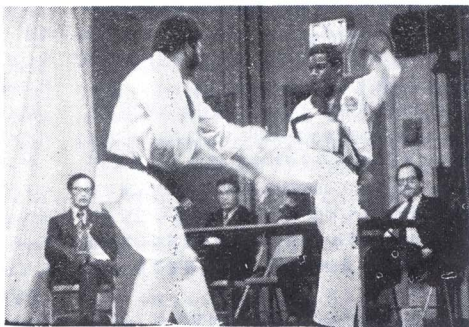
금년에도 1천3백57명의 선수가 참가, 22개팀에서 열렸는데 이대회참관은 TV방영은 물론 뉴욕타임즈같은 대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美國태권도의 성장상을 돕고 있다.

특히 趙사범은 윈스유니버시티 체육과교수로서 태권도를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이리노이대학원 경영학석사를 받은후 한국태권도, 호신법태권도, 아문태권도등의 저서를 출간 학술적으로 체계화했고 윌리엄·D·마크로씨(한미재단이사장)등 미국 상류인사들과 교우 상류사회에 끼어들고 있다.

또한 金사범도 벤푸리트장군등의 지원속에 성장, 롱아일랜드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받고 도장이외에 투자관계조사회사인 「프리안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사업가으로도 입심 라이온즈클럽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金사범은 金雲龍회장이 8년전 UN본부대사관에 근무할 때 부터 태권도보급에 지원을 받은 관계.

金사범은 특히 금·단심사 심판강습·경기보급등을 위해 美國에 중앙도장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美國東部뉴욕에서 활약하는 전인문사범의 도장

## 학부모의 결의로 태권도교육

## 부산 배정국민학교



이 학교는 특수교실로 태권도교실까지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여유있게 특별활동도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구기와 음악가운데서 학부형들의 결의로 운동은 태권도, 음악과 무용은 한국고유의 것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외래 사상에 젖지 않고 또 말로만의 우리나라, 우리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하나라도 익혀 진정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록한 교육정신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는 튼튼한 어린이』가 이 학교의 교육목표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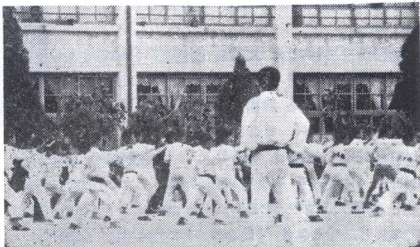
이 학교는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주1시간씩의 교육을 받고 전학년이 주1회의 합동체조 시간에 태권도 기본동작과 품세를 해 「교내체육대회」 때 마스게임을 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방과후에는 태권도 특별활동시간을 두어 박종현, 김동현 두교사아래 조충경 사범(27歲, 지도자교육과 심판자격을 획득한 協會四段)이 직접 지도하여 80명의 태권도부원 50명의 유단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탄탄한 저변과 소질있는 어린이로 모인 태권도부는 조충경사범의 맡은 노력으로 73년도 7월 부산시태권도총별 신인선수권대회에서 6명이 입상 1, 2, 3위를 고루 차지했고, 10월28일 제1회 전국태권도협회장기제량 단체전에서 전국의 강호를 물리치고 당당 3위에 입상 11월7일에는 제1회 스포츠소년대회 모범참가상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의 기술과 예절등을 고루 익히고 있다.

이 어린이들이 내일의 조국을 짊어질때 이 나라는 더욱 몇몇하고 꽃다운 민족정신으로 성장할 것이다.

## 자주정신, 자립정신 태권도교육

## 부산 반송국민학교



부산직할시—철거민들이 정착지인 반송동에 자리잡은 반송국민학교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어 늘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고 있었다. 그러나 5학년 2반을 맡은 김용호선생님은 태권도유단자로서 朴漢秀(박한수)교장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처음 방과후 1시간씩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 어리둥절하고 날뛰기만 하던 어린이들도 담임선생님이 태권도협회공인五段이며, 협회가 실시하는 지도자교육과 심판교육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다.

교장선생님도 「5학년2반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배우 후 비뚤어지거나 난잡해지지 않을까 두렷했었는데 더욱 의젓해 졌으며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할뿐 아니라 교실도 제일 깨끗이 정리되어 감탄했다」고 말하면서 별도의 돈을 마련할 수 없어 테크리에이션이나 정서교육을 하지 못해 아쉬워 하던 차 태권도야말로 이것을 구원해 주었다」고 덧붙이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즐거운 학교, 웃으며 공부하자!』는 자신의 교육관에 일치한 것을 호소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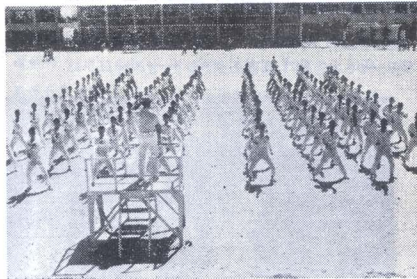
현재는 합동체조시간과 특별 태권도부를 두고 체육시간까지 김용호선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미안해 했다.

5학년2반 임창열군은 「우리학급자랑」이라는 작문에서 『우리선생님은 태권도 선생님이어서 태권도는 물론 모든 운동을 다른 반보다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선생님은 매우 목요일마다 전교태권도부를 가르치시며 또 일일이 우리만...』

한양의 밑일이 뿔여 썩었을 거둔 자주적인 이 움직임은 태권도 뿐 아니라 국민정신의 발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慶南의 跆拳道示範學校

鎭海 鎭海고등학교



조용하고 아름다운 美港——鎭海라고 하면 有名な 빛꽃놀이와 軍港으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馬山에서 南쪽으로 30분거리 산동성의의 길을 뚫고 나서면 視野가 널리 트인 바다위에 市街가 떠있는 듯한 氣分이 들고 浩然之氣를 느낄 만 하다.

慶南跆拳道示範學校로 알려진 鎭海고등학교는 國民體育와 健全한 市民精神으로 昇華시키기위해 民族固有의 跆拳道를 校技로 삼고 또, 그 實力이 알려지면서 跆拳道示範學校로 指定되게 되었다. 鎭海의 名門校로 알려진 人文系 진해 고등학교의 跆拳道教育은 鄭源朝 校長先生의 적극적인지원 아래 具永椿先生(協會五段지도자)과 每週 二時間의 정규수업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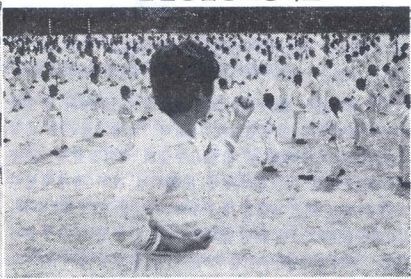
週二時間의 體育科目의 하나로 교육되는 跆拳道는 주로 運動場의 實技와 精神教育으로 구성 되어있다.

各班의 교육은 全體로 모여 召集時間이 끝난 후 合同 태권도품세를 합으로서 靑少年의 단결심 協同心 愛校心과 나아가 市民으로서의 참여의식과 굳건한 國家愛로 昇華시킬수 있는 것이라고 정원조 교장선생은 說明한다. 人文系로서 大學豫備試驗 합격율도 70%를 상회하는 진해고등학교는 71년도부터 年례적으로 二次의 跆拳道示範을 갖고 있다.

具 教師는 『示範은 두가지 目的으로 一般人에게 體育精神과 民族主體性이랄까 우수성을 계몽하는데 目的을 두고 품세, 겨루기, 격파 등을 차례로 보이면 市民들도 공부하는 學校가 果然 體育에서도 우수하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이런 努力을 바탕으로 慶南의 山谷 구석까지 태권도는 올바른 精神과 體力의 양성을 위해 전파되어갈 것이다.

## 安保와 精神教育 校長이 熱意

울진중합중고등학교



경북 동해안의 最北端에 위치한 울진군은 종유굴과 백담온천등 관광지와 명승고적의 고장이다.

이교장에서도 가장 오랜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울진중고등학교는 1,500여명의 학생이 오늘도 진리탐구에 여념이없다. 그리고 吳海碩校長先生任게서는 건전한 일꾼을 만들기위해서는 건전한정신을 길러야된다는 확고한 교육관아래 태권도를 校技로 확정하여

현재는 1,500명의 전교생과 45명의 선생님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이낙만사범을 중심으로 제2교시후 중간체조시간30분과 방과후 시간을이용 체력을 단련하고있다 특히 이사범은 태권도종주국의 국기로서 완전토착화할수있는 방법을 최소년단위인 학교교육에서찾자는 이념아래 태권도정신에 입각한 인격을 닦는 큰 보람과 태권도규범의 예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보람된 인간이 되어야한다는 정신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있다.

시작당초에는 학부형들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태권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도가 높아져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연습함에 따라 벽지 국민학교 학생및 많은 청소년들까지도 태권도를 배우게 된것이다. 지난여름 각학년별로 승급심사대회를 열어 8급150명, 7급500명, 6급200명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吳海碩교장선생은 태권도수련시간에는 직접 도복을 입으시고 얼굴에 구슬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계시며 더욱 노력하여 동교를 태권도시범학교로 성장시키고 학생들의 행동을 통해 태권도정신의 함양및 태권도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우수한 수련생에게 지급함으로써 더욱 더 용기를 북돋울수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울진중합중고등학교의 태권도 앞날은 밝기만하다.



## 제 1 회 충북지부회장기 쟁탈 태권도대회

충북 중·고등학교 선수들 참가 성황리 끝나

◇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충북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이 創設된지 八個月만에 忠淸北道내의 中等學校태권도 發展을 위한 전국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 ◇

이 대회에는 各級 中·고등학교에서 194명의 선수가 참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行해되었는데 태권도보급과 저변확대 및 신인선수들의 대회경험을 갖추게 하기 위해 一二年生만 出戰시킨 것이 특징이었다

8일 열린 핀급결승등 중등부에서는 김수호(주성중)와 지민규(가덕중)가 熱戰 接戰을 벌였으나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共同우승한 것을 비롯 중등부 웰터급과 고등부 반람급 최창학(제천고)과 이재홍(진천농고)도 공동 우승했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

## (중등부입상자)

| 1 위                        | 2 위      |
|----------------------------|----------|
| 핀 급 김수호(주성중)<br>지민규(가덕중)   | 1위 공동우승  |
| 플라이급 여성기(대성중)              | 박현수(대성중) |
| 반 램 급 연규현(청주남중)            | 오경영(내수중) |
| 페 터 급 김태영(괴산중)             | 송인규(대성중) |
| 라이트급 김동욱(대성중)              | 신항수(가덕중) |
| 웰 터 급 장석규(괴산중)<br>이도영(대성중) | 1위 공동 우승 |
| 미 들 급 김춘배(가덕중)             | 이상우(괴산중) |
| 헤 비 급 이중희(괴산중)             | 윤장원(가덕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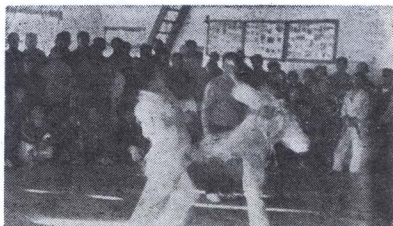
## ※ 단체우승 : 괴산중학교

## 단체준우승 : 대성중학교

## (고등부입상자)

| 1 위                         | 2 위       |
|-----------------------------|-----------|
| 핀 급 나영웅(청농고)                | 김영출(제천고)  |
| 플라이급 정상용(청주농고)              | 박병하(청주광고) |
| 반 램 급 최창학(제천고)<br>이재홍(진천농고) | 1위 공동 우승  |
| 페 터 급 김국환(제천고)              | 이상덕(세광고)  |
| 라이트급 지성규(청주광고)              | 이민희(청주농고) |
| 웰 터 급 박종환(청주농고)             | 이종권(운호고)  |
| 미 들 급 권일규(세광고)              | 박복수(청주농고) |
| 헤 비 급 김영대(청주농고)             |           |

※ 단체우승 : 청주 농업고등학교  
단체준우승 : 청주 세광고등학교



충북지부 회장기쟁탈 경기장면



시상식에서 정갑순 회장이 시상하고 있다

이 대회를 주최한 충북 중고연맹 회장단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                                                                          |
|-------|--------------------------------------------------------------------------|
| 회 장   | 이정조(주성중학교장)                                                              |
| 부 회 장 | 최도국(도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계장)<br>정철진(장학사)<br>이기인(도교육위원회 교육감부속실장)<br>정혜열(청주공업고등학교교사) |
| 전무이사  | 심규환(주성중학교)                                                               |
| 총 무   | 송명국(육산중학교)                                                               |
| 경 기   | 최창원(충북여상고)                                                               |
| 기 획   | 박준용(괴산중학교)                                                               |
| 재 무   | 황인용(내수중학교)                                                               |
| 설 의   | 김진목(증평중학교)                                                               |
| 이 사   | 이근수(청주여고)<br>김동재(충주미덕중)                                                  |
| 감 사   | 김선용(청주고등학교)<br>유광수(내수중학교)                                                |

## 제 2 회 서울 교육대학장기 서울시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The 2nd Primary Schools Taekwondo Championships for Seoul  
Educational College Dean's flag

제2회 서울교육대학장기경매 서울시 국민학교태권도 대회가 74년11월16일 대한태권도협회후원으로 국민학교태권도연맹이 주관 서울교육대학체육관에서 열렸다.

서울 시내 39개 국민학교에서 27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대회에는 아침8시부터 제채가 시작되었고 10시정자 개최선언에 이어 작년도 우승교인 영등포국민학교에서 대회기반환, 이철희대회장(서울교육대학장)의 개회사와 국민학교연맹회장의 축사가 있은 후 탄탈급의 박원기(영신)와 최병윤(영일)의 첫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6시30분까지 계속되었다. 경기는 각 국민학교 응원단의 열띤 응원속에 어린선수의 묘기가 나올 때마다 관전을 하는 학부모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며 무승부로 제채에 추첨패를 당한 선수및 소속학교 응원팀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구르기도 했다.

학교대항 단체전에서는 신림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2위에는 신석국민학교, 남대문국민학교는 3위를 차지하였으며 제급별 개인전에서는 핀급에 이세현(남대문)선수가 푸라이급에는 김준택(동명)선수가 우승했으며, 페티급에서는 정용우(우신)선수가 김상태(남대문)선수를 맞이하여 막상막하의 열전끝에 무승부를 기록 제채에서도 승부를 가릴수없이 추첨승을 하는 등 힘겨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미들급에는 신언우(금양)해비급에서는 정승조(남대문)선수등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금년들어 2회째를 맞는 이대회에는 많은 학교에서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나 하루동안에 경기를 치루기에는 벅찬감이 있었으며, 1회대회 우승교인 영등포국민학교가 불참한 것등은 아쉬운 점이있다. 다음은 제급별 입상자의 명단이다.

## 입상자 명단

|      |   |     |         |      |   |     |        |
|------|---|-----|---------|------|---|-----|--------|
| 핀    | 1 | 이세현 | 남대문국민학교 | 라이팅급 | 1 | 임정규 | 우신국민학교 |
|      | 2 | 이영의 | 중화 "    |      | 2 | 강현근 | 광장 "   |
|      | 3 | 염기훈 | 용강 "    |      | 3 | 양우석 | 사근 "   |
|      | 3 | 심원섭 | 갈현 "    |      | 3 | 방병성 | 여의도 "  |
| 플라잉급 | 1 | 김준택 | 동명 "    | 웰던급  | 1 | 서상원 | 신석 "   |
|      | 2 | 이재봉 | 미동 "    |      | 2 | 정일권 | 후암 "   |
|      | 3 | 안정배 | 풍인 "    |      | 3 | 박경수 | 공덕 "   |
|      | 3 | 이석연 | 신림 "    |      | 3 | 김동진 | 신림 "   |
| 미들급  | 1 | 임경수 | 남대문 "   | 미들급  | 1 | 신언우 | 금양 "   |
|      | 2 | 문유중 | 재마 "    |      | 2 | 이성행 | 신림 "   |
|      | 3 | 포조신 | 종신 "    |      | 3 | 정연수 | 신석 "   |
|      | 3 | 홍성철 | 갈현 "    |      | 3 | 양연동 | 동명 "   |
| 페티급  | 1 | 정용우 | 우신 "    | 해비급  | 1 | 정승조 | 남대문 "  |
|      | 2 | 김상태 | 남대문 "   |      | 2 | 최영훈 | 재동 "   |
|      | 3 | 김부원 | 풍인 "    |      | 3 | 유연규 | 승배 "   |
|      | 3 | 천석기 | 신림 "    |      | 3 | 조선일 | 신석 "   |

## 담력, 인내력, 신중—民主警察의 信條

### 慶南 警察局 경찰학교

이번號에는 一般學校에 比較하여 釜山과 慶南을 現地取材하여 特殊學校를 찾아보았다.

태권도가 民族固有의 스포츠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以來 國民學校에서 大學에 이르는 모든 學校가 跆拳道를 배우기에 이르렀고 近來에는 유치원에서도 跆拳道의 基礎를 가르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來日의 나라를 짊어질 어린이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호신술 體力強化 등 市民을 安全히 보호할 수 있는 警察力을 기르기 위해 關係 運動을 장려해 왔었다. 跆拳道가 歷史的位置에 새로이 體系化하고 技術的問題를 統一함으로써 이제는 民族主體의 立場에서나 능률적인 運動效果에 있어서나 모두 跆拳道를 採擇 修練시키게 되었다. 跆拳道를 통한 體力와 精神力의 強化는 이런 特殊學校에서 뿐 아니라 民族의 安保를 담당하고 있는 國軍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國技跆拳道는 명실상부한 民族의 스포츠가 되었다.

※ ※ ※

釜山市 大新洞에 자리잡고 있는 慶南道警察學校에서는 學科時間에 正式으로 跆拳道를 삼입하고 이 학교에 근무하고있는 손 석진 教授를 中心으로 맹렬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學生들은 一種의 기숙사제도를 통해 共同生活을 하면서 民主警察로서 갖추어야 할 基本的인 자세를 교육받는데 태권도는 그 行動의 礎를 이룰 수 있는 根本적인 教科로 重視되고 있다는 것이다.

即 跆拳道의 끊임없는 修練은 강한 體力를 形成할뿐 아니라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忍耐力을 기르게 하고 訟事에 接하게 되는 時間이 많은 警察業務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方面에 從事할 學生들에게 다시없는 科目이라고 評했다.

하루 2시간씩 午前과 午後에 수업을 실시하는데 이들은 卒業時 외부적으로 昇段을 해야만 學點을 딸 수 있다는 것이다. 釜山直制市 태권도협회전무이사도 겸하고 있는 손석진씨는 이 卒業生들이 각 임지에서 跆拳道精神을 發揮할 때 우리 마을도 밝아지고 또 跆拳道의 보급에도 많은 展望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에 부

풀었다.

※ ※ ※

또 한가지 빼 수 없는 것은 이 地域 警察署에 常設되어있는 慶南代表跆拳道팀이다.

五段인 李 學을 主將으로 김종호, 김복수, 박동영, 하중건, 강재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代表팀은 釜山도내경찰국태권도 선수권대회와 추천으로 선발된 정예들인데 全國경찰武道大會에 對備하고 경찰서내에 跆拳道精神을 中斷없이 보급 자극시키기 위한 道警局長이 광수씨의 아이디어,



경남경찰학교 태권도교육시간 뒤가손석진교수

馬山警察署長 목세정씨는 이들 선수들은 일반군무자보다 고체기 舍宿訓練을 통해 午前 2時半부터 6時間 午後 4시부터 3時間合同연습을 치르면서도 熱心히 군무에 임해 어려운 事件의 해결은 의욕이 들이. 해결한다고 만족해 했다. 특히 李 學主將은 태권도를 군무후에도 열심히 한덕으로 초임자로서 馬山에 군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않고 代表選手로서 모범이 되었다고 다짐했다. 또 김종호선수는 『합숙소가 없는 우리에게 도장을 빌려주고 경기력의 向上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윤대원사범께 감사』를表했다.



경남경찰국대표팀 이학 김종호 김복수 박동영 하중건선수



# 跆拳道의 메아리



.....삼성국민학교 이 을 응 교사

「積健爲雄」—健康을 쌓아 英雄이 되라! 이 말은 國技院의 北門 大理石 懸판  
에 새겨진 自由中國 羅英德大使의 휘호에 써여있는 말이다.

健康이 人間을 存在케 하고 祖國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  
찌 運動競技로서만 말할 것이라!

運動競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뒀는 底邊에 바탕

을 두고 있는것이다. 「선비의 마음」로 지칭되어온 忠北

의 어느 고을엔 이 跆拳道로 未來創造의 활달한 기

상을 기르는—그것도 女先生任 跆拳道教師가있다

女高時節—— 꽃다운 理想의 나이부터 意志

로 跆拳道를 수련한 先生任의 手記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

女性다운 수줍음과 끈기의 美

學으로 昇華시킨 跆拳道의

一面을 찾아보자!

흔히들 “수기”라하면 어려운일을 극복해내고 내일  
을 위하여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사 즉, 곤  
란을 극복하기 까지의 어려웠던 지난일들을 글로써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들 알고있다. 내 자신 또한 그  
렇게 알고 있었기에 이 글을 쓰는 순간 매우 부끄러움  
과 함께 죄스러움이 앞선다. 내가 태권도라고 하는운  
동을 하면서 느끼고 기억하였던것의 모든 어려움을  
몇배 보탠다 하더라도 나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 더한  
술한 역경속에서 생활을 극복하셨을 여러분들에게 줄  
렬한 문장으로 수기라는 큰뜻의 언어앞에 나의 글을  
펼치게되니 죄송스러운 마음 이루 헤아릴길 없으며  
아울러 이해와 양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  
을 쓴다.

교 2매의 일이다.

남달리 체격이 작고 키만 연약하게 우쭐 자랐던 나  
에게 태권도라는 운동은 유달리 호기심과 함께 무심

도록 배우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하는 매력있는 운  
동이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태권도”하면 우상화(?) 된 운동이라 할수있을 정도  
의 인기있는 스포츠였지만 남학생들과 달라 부모님  
들의 이해 부족과 사회의 배서운 눈초리에 감히 용기  
를 내어 배워야 겠다고 결심하여 나서는 여학생은 별  
로 없었다. 다만 하나의 이상(?) 으로서 꿈으로서만  
끝나버리는 말하자면 상상으로만 즐기던 스포츠였던  
것 같다. 그러한 운동을 배우자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기까지는 실로 여러날밤을 잠을 못자고 생각하여야  
했으며 막상 결정을 하고나니 두가지의 커다란 관문이  
앞을 막았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태권도 도장을 찾아가야 하  
는가? 하는것이 가장큰 어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하는것

이었다.

이런문제를 때문에 확고한 결정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때 피느라고 그랬는지 한반 친구였던 여학생이 내가 사범님 한분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같이 태권도를 배우자 하는 고마운 유혹(?)을 나에게 청해 왔다 그리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든 나는 잘 됐구나 싶어 이상 내친 겉음에 아버지께도 용기를내어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께서는 꺾꺾웃으시며 해 볼테면 해보려나 그나마 네가 정말로 하여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시간 이외의 여가를 택하는것이 좋겠다.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끈기도 있어야 된다는—한번 시작하면 중간에는 절대 그만 두지 못한다는 언연중의 암시까지 넣어주시며 말씀을 해 주시어 수월하게 허락을 받았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의 신식 할머니의 조언도 큰 역할을 해주었다. 요세 세상엔 여자들도 못하는것이 없이 전부 배울수만 있으면 배우두는것이 좋다. 이 말씀에 할머니께 큰절을 드린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태권도 과목을 열어주신  
김상남 校長先生任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나선 강심장(?) 여학생이 나를 포함한 세명이었다. 맨 처음 도장문을 들어선 나의 솔직한 심정은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어쩔줄 몰라 시선을 잃고 당황해 하었으며 입관면무에 이름을 올릴때에야 겨우 진정을 하여 도장안에 서 들어오는 기합소리나 또한 그때의 사범이신 정갑순회장님의 도움 말씀을 귀담을 막치 침착 해졌다. 정 갑순 회장님께서는 우리들 삼명의 뺑장센(?) 여학생들께 격려와 더불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아직 인식이 부족한 중북에서 이만한 용기를 가지고 도장문을 들어설수 있었던 여학생들에 고된 운동과 훈련이 겹치는 무리한 운동이 될지라도 그 용기를 끝 끝내 간직하네 좋은 결실을 보도록 하라는 용기칭찬과 아울러 격려 말씀이셨다. 또한 태권도가 생기기 시작한 유래와 그 특성등 태권도가 지니는 무도정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태권도를 배우겠다는 나의 마음 가짐에 확고한 결심과 함께 태권도를 대하는 우리들 모든것들의 호기심만이 아닌 내쉬야 된다는 의무감마저 들어 가슴이 뿌듯함을 느꼈다.

이렇게해서 운동을 시작한 나는 훈련을 쌓아가면서 태권도라는 운동이 그전에 생각하는 것 처럼 미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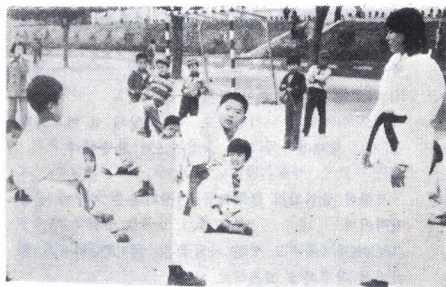
세계에서의 활동만 꿈꾸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쉬운 운동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고달프고 힘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하여 게을러지는 때가 많았다.

용기배배하여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중단하는 결과를 빚었으나 나는 맨처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내와 끈기를 저바릴 수 없었고 또한 항상 옆에서 돌보아 주시는 정갑순 선생님 이하 여러 사범님들의 말씀은 해이해지는 마음에 사람의 충고와 책적이 되어주었다. 고된 하루 1시간 또는 2시간의 훈련이 매일 되풀이 되는 동안에 처음의 그 어색하고 쓰쓰러웠던 동작들은 하나 하나 그들을 몸에 익히게 되었고 겨우 태권도를 시작했던 두달남짓해서 가슴 설레이는 첫번째의 승급심사가 있었다. 여러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심사위원님들의 그 침착하면서도 꿋꿋이 불타는 날카로운 그러면서도 여유있는 시선과 특이한 여자승급심사를 구경키위해 물러든 인근주민들의 유리창사 이사로 내다보는 놀라움과 조용숙인 눈길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것을 느꼈던 내가 지 있는 위치와 방향감마저 아득한 당황함을 감출길 없었고 기억없는 중에서 그러나 열심히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고 막막한 중에서 심사를 치루었던 기억이 난다.

여러번의 심사와 또 그럴때마다 허리에 찬 띠의 바깥은 용기와 인내를 다시금 불어넣어주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초단 심사때는 능숙하게 여러사람 앞에서 자신있게 실력을 평가 받을 수 있게끔 용기와 담력이 센 여학생으로 변해 있었으며 초단증을 손에 쥐었을 때는 꿈과 같은 감격에 이케졌 옆에서 지도해 주신 여러 사범님들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명칭이가 되어 버렸고 알게 모르게 주위에서 비웃는 눈초리로 질시하고 평범한 행동에도 태권도와 나와의 연결시켜 이까지 거리를 만들어 내던 여러사람앞에 내가 이만큼 노력하여 얻은 전과를 소리지르 자랑하고픈 마음도 들었다.

그동안 태권도를 배우면서 나는 항상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보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전보다 내 언행에 무척 주의를 하였고 정말로 여자 다와야 할 행동과 몸가짐을 모색하고 또 조심있게 실천했던것이 이제 초단증을 받고 생각하니 태권도를 배워서 기술만을 습득한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의 태권도인을 키운것같은 감사한 생각까지 든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2단증을 손에쥐고 대학 졸업장을 받게되고 또 나이를 먹고 이러한 연륜이 거듭하여 갈수록 아직도 무한한 듯



어린이들의 태권도 수업장경

한 운동과 진리의 벽 앞에서 모든것이 끝난것 같은 미완성품의 증명서(출업장 이라던지 2단증)를을 대하고 보니 포장안된 상품인양 어딘지 허전한 미숙함을 느낀 것은 지나친 나의 겸손일까?

어린동심들과의 생활을 명령받고 이곳 읍성군 삼성국민학교로 첫발을 딛기 까지 또 무의미한 여러시간들이 지나가기까지 정갑순 회장님의 권유말씀과 주위의 어른분들께서 태권도를 한번 시작해 보라는 충고 말씀은 무의미한 발걸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내자신 또한 처음 태권도를 배웠을 때 느꼈던 그 무게감에 차츰 어깨무거움을 느꼈으므로 74년 3월에는 김상년 교장 선생님께 태권도부를 조직할것을 말씀 드렸다.

배울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아동들 앞에서 시범과 함께 기합을 넣어 가르치려니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정갑순 회장님, 또 여러 사범님들의 노고를 눈에 보는 듯하여 다시금 고개가 수그러졌다.

애초 경향이 부족한 탓이라 희망아동만을 모아서 가르치다보니 워낙 지역사회가 좁은탓인지 부모님이 못하게 한다고 빠지는 학생이 하나 둘 생기고 급기야는 100여명이나 되던 아동들이 20~30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난관에 부딪친 나는 한학생, 한학생의 가정방문으로 설득작전을 펴며 돌아다니는 극성을 피웠으나 반정도밖에 승낙을 얻지못하고 힘없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어떤 학부형은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고생올라며 돌아다니신다고 미안해하며 당신들의 잘못을 사과해주시는 고마운분들이 있는가 하면 태권도를 배워서 누구를 때라도 그런걸 가르치느냐 또는 선생이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 여선생이 되지 못하게 태권도는 무슨 태권도야 하는 비난으로 말도 못 꺼내놓게 입막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어떻든 60명안팎이 되는 아동들을 방과후 꾸준히

운동을 시키게 되니 아동들도 차츰 흥미가 붙는듯 열심이였다.

태권도를 시작한지 3달 즉 5월25일 아동들의 가슴선풍제에는 승급심사가 있었으며 이 심사에서 여자 26명 남자 35명이 모두 6급 아니면 7급 승급증을 받게 되었으며 모두들 더욱 열심히 하여 초단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까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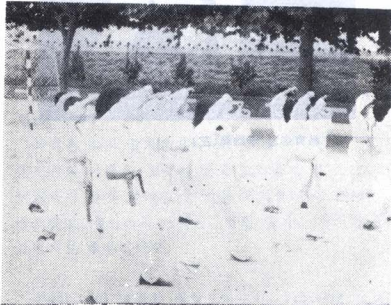
이렇게 좋아하는 아동들을 보고 있는 내자신 또한 호뭇한 마음 감출길 없었으며 아동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것을 다시금 느껴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윤용선생님보다는 태권도 선생으로 더욱 알려진 나는 방학때도 쉬지않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귀여운 꼬마들을 바라보며 기필코 어떠한 난관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꼬마들의 맘의 결정을 결코 헛되이 끝맺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결심을 해본다.



「얼마나 높이 뛰나?」 3학년 어린이의 점프——

「나도 배울까?」 꼬마들이 주위모여 동경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윤용女教師는 방과후 학교운동장에서 태권도와 더불어 내일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가르친다



<隨想>

# 이 가을에 ! 그리고 우리의 人生을 讚美하자

시월의 日記抄에서

인스브르크 李京明(協會師範)



教育中人 李師範(左)

## 秋情(一)

겨울이 오기에는 아직도 이른데 영그는 가을의 향연을 시샘하는가.

밤새,

山 마루에는 하얀 눈이 덮혔다.

아직도 늙지않은 나이인데도 꽤 하얗게 된 머리카락을 지닌 중년신사와 같은 꼴불견스런 모습이다.

세상의 돌아감이 無常하듯 이상기운은 자꾸만 신경질적이다.

그런 변태속에서도 알찬 나의꿈은 굼직한 마음의 줄기에서 착실하게 成長하고 있다.

이 가을을 우리는 讚美해야겠다.

가을 마음은 잔잔한 湖水마냥 깊은 침묵이 있어 좋고 조용한 思索이 있으며, 아름다운 멋과 꿈을지녀서 좋으렷다.

어찌 그 뿐일까?

넓고 깊게 包容하는 힘이 있잖는가——

落葉이 지고 가을노래가 몇트라도 애써 가꾼 園丁의 조그마한 바래움에 보답하듯 저만치 公園에 핀 못가을 꽃들의 마지막 對話를 흔드리지 않게스리 Alpin의 바람은 좀 자렷을 좋겠구나

성급하게 겨울채비를 서둔 노파들의 목직한 외투가 덜쌀스럽다. 게다가 느림보 걸음세가 더욱 눈에 거슬린다.

젊음을 永遠히 간직하고픈 마음  
좋은 마음으로 人生을 對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람찬 삶을 가꾸렷.

하는다는것은 적어도 후퇴이다.

너와의 꿈이 있는 멋의 생활을 회구하며 언제까지나 우리는 人生을 讚美하자.

이 가을에 그리고……

## 秋情(二)

역시 가을은 애뜻한 情과 그리움이 있어 좋다.

저만치 있는 숲은 경연을 耽하고 빨간 세루비아꽃은 가을詩를 읊고있다.

거리는 落葉으로 덮여있고 그뒤에 가을비가 고독을 뿌리면 갯빛 안개는 서리워서 더더구나 짙어진다.

마로니에 열매는 모진生命이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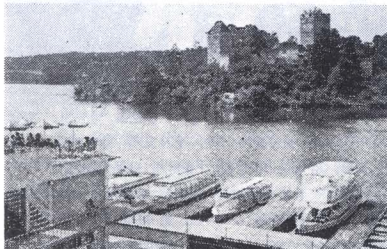
엷진 가지위에 매달려있다.

외투깃을 세우고 散策길에 나서면 고독한 비와 서

리운 안개는 내 마음을 적시며 안정알을 호미하게 視野를 좁힌다. 마음으로 주고받는 고독한 對話가 포켓 속에 담겨있는 군밤의 열기로 데워지면 좋으면만—호미한 가로등은 출몰에 지쳐있고 물기에 젖은 벤치에는 落葉만이 앉아있다.

그리움은 고통이고 고통은 적어도 아픔이다.  
그 아픔끝에 오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더 많은 아픔이 있을거다. 그래서 비틀기는 항상 사랑을 갈구하는 신음을 탄탄다지.  
他人인 人間도 그래서 情을 그리며 사랑을 기도한다.

술을 마시는 마음 詩를 읊는 마음 노래를 부르는 마음,  
다루는 人間, 애무하는 戀人  
시키는 사람, 격노하는 사람.



이경명사범은 가끔 오스트리아 風景에서 東西洋의 미묘한 맥박을 느낀다

이 모두가 외로워서 울부짖고 고독해서 하는 행위이다.

겨울같이 맑은 이 가을에 나서면 마음은 舊해지고 좁은 외로움을 느끼게된다. 그 외로운 맘을 달래고져 더러는 숲길 오솔길의 산책에 나시고, 또 더러는 자동차로, 기차로, 먼 가을여로에 나선다.

詩를 쓰고 음악을 들으면  
다소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술을 마시고 他人과의 對話로 좁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

그 보다 가을이 더 값진것은 人間에게 思惟하는—조용한 自我에게 能力을 부여 했기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哲人은

〈人間은 생각하는 갈대〉 〈人間은 회의 하는 動物〉이라고 부르짖었겠다.

어떤 공포에 對한 不安이라 해도 좋고 내일의 살

립적정도 좋으나, 그 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것은 人生 삶에 對한 진정한 회의인 것이다.

일회적인, 그리고 有限적인 삶!

어찌 그것을 忘却하고서 人生을 참되게 꽃피울수 있을까.

그리하여 고독한 人間은 대화를 더 많이 나눠야하고 외로운 마음에 情을 듬뿍 쏟아야 한다.

양지 바른 처마끝에 뿌려진 먹이를 쪼아 먹으며 만족하는 작은새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애뜻한 이 가을에 나는 안개속의 비를 맞으며 걷고 있다.

마음속에 타 오르는 강한 그리움 그리고 사람의 불꽃이여!

그 불꽃은 결코 비와 안개에 젖어 꺼지지 아니하고 기리 기리 나의 人生을 참되게 줄 것이다.

### 秋情(三)

어릴때 기차를 보면 왜 그렇게 타고 싶은 부러운 마음이었는지 알수 없었다. 신나게 달리는 기차를 보면 마음이 웬지 시원스러이되고, 미지의 곳으로—미지에의 願望 가꿈은 마음의 충동을 가눌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의 Innsbruck역 구내는 여행객들로 만원이다. 만나고 헤어지는 자그마한 哀歡들이 물거품처럼 일고 터지는것이다. 제각기 꿈을 트렁크에 가득 싣고 흥분한 기분으로 여행길을 서둔다. 그 많은 여행객들의 무리속에 있으면 어떤 때는 모두가 제 각 각이 있고 부딪치지 않는걸 보면 참 융하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이, 젊은이, 아이들할것없이 도두가 다 열심히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신문을 읽는사람, 담배를 피우는사람, Bier를 마시는 사람...모두가 제 나름들이다 차창밖에 전개되는 풍경은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다.

여행은 항상 즐거운것이다.

혼자서의 여행은 고독이 있고 그리움이 있다. 그리리는 머리속에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멋이 있어 좋으렷고 물이서의 여행은 넘친 즐거움 대화가 있어 그것대로 좋은것이다.

추3회 여러 支會를 태권도지도자 가는터에 요즈음은 자동차보다는 기차를 즐겨 이용한다. 목적지까지

거의 한시간달리는 찾속에서 머리를 식히며 조용하게 대화를 펼쳐보는 꿈을 그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에 때문이다.

분명히 활동해야 하는 一常生活속에서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가질수있음은 꼭도 유익하고 고마운 것이리라

## 秋情(四)

시월이 저물면 늦가을이다.

鋪道 위에는 수북이 쌓인 落葉들로 가득하여 제법 차가워진 바람이 스칠때마다 훑날리는것이다.

이른 아침의 落葉은 차갑고 축축한 안개와 밤새 나린 서리로 물기로 젖어지고 가로등은 조은듯 갯빛 일글이다.

그렇게 마스하던 가을의 햇빛은 점차 열기가 식어가고, 이슬모를 뭇 가을 꽃들의 對話도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하나보다.

좁은 쇠잔해진 가을햇빛이려나. 두둑한 외투를 지니기엔 아직은 이른감인데 성급한 老人들은 그 옷맵시에 못맞게 그 절음세도 무거웁다.

왜 그렇게도 뜨거웠던 여름은 매정하게도 빨리 지나가 버렸는가고, 왜 그렇게도 人生의 가을이 허전하게 지나가 버렸는가고 老人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릴 것이다.

아직 가을은 우리곁에 머물고있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저 험준한 Alps山을 넘어 세찬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쳐 올 것같은 두려움에 사람들은 숨죽여가며 鋪道を 걷는 것일가.

자꾸만 식어가는 地熱속에서 그나마 가슴의 마스함이라도 없지않으려고 허리를 움츠리면서 사람들은 군심스에 걸는다. 저마다 어린시절의 봄과여름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한아름 젊은 날의 詩를 안고서 일진 가지 사이로 펼쳐진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며 낙엽을 밟으며 그런 시월에 가을이여 안녕이라고 노래부르자.

## 秋情(五)

한국일보와 「태권도」誌 13호가 우송해 왔다. 지난 주간의 신문문치를 펴 읽노라면 진한 인쇄대음과 함께 1면은 국내 정가의 움직이는 기사로 짙어워졌고, 사회면은 양동하는 물가고, 연탄배급에 있어 카드制, 교통사고, 엉터리 감기약이 귀한 生命을 앗아갔다는 슬픈 소식뿐이다.

울분을 가누고 차분히 지면을 넘기면 그런대로, 파아란 하늘아래 펼쳐진 젊은이의 힘과 枝의 채진인 國體의 흐릿한 소식이 있어 다소는 마음에 위안을 가져

다 준다. 그리고 착실히 성장하는 「태권도」誌를 펼쳐보면 갑자기 피가 끼꾸로 솟구치는 용기가 물씬 용솟음치는 기분이다.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은 또 하나의 자랑스런 모습이 될 정문이 새로이 건립되었다는 소식이며 그 밖에 날로 자질향상 피어가는 세계각국의 태권도 가족들의 흐릿한 기사로 가득차 있다.

이것이 조국이 가져다준 소식의 전부일까만, 고개 숙일줄 모르는 거만한 물가고에 대조를 이루는것은 추위를 예고하는 수은주가 차츰 급강하한다는 통보다



희끗희끗한 山마루에는 벌써 눈으로 덮였고, 한낮의 따사로운 태양빛에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면 저 숲의 노랑, 검붉은 단풍은 가을빛에 난무하고있다.

계절이 바뀔때마다 가져다주는 계절감에 따라 사람들은 분망히 땀샘을 내야하고 또 어떤 명목울 부쳐서라도 그 나들이로 삶을 애써 꾸려가는 것이리라.

人口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의 시가는 높은 산속에 있는 맑은 湖水마당 도시가 이루어져 이 도시의 썩임새로 인한 아름다움은 비할데 없다. 아름다운 숲속엔 새들의 和音이 있듯 그래서 음악이있고 Tirol의 훈훈한 人情味가 샘 솟는지도 모를 일이다. 운동을 파한 시간이면 목이결결해 가끔 즐겨가는 주점에 들리던 낮익은 Ober(노파)가 인사를 건넨다 그런 곳에는 외배 老人들은 즐겨 포도주를 마시고 젊은이는 Bier를 시원스레 마시며 人情을 나눈다.

티롤의 고유한 음악은 밤샘출 모르게 絃에서 울려나온다. 이제 곧 가을이 가면ALPS산 넘어서 흰눈과 함께 겨울이 올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이 작은도시는 外地로 부터의 人波로 쓸릴게 될 것이며, 백설위를 질주하는 스키족들로 함꼐 봄비게 될것이다.

한 낮의 눈밭에서 스피드에 지친 어둠을 즐기며 밤이되면 아득한 주점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어 잔술들이 人生을 전배하며 춤을 춘다. 그러는 사이에 티롤의 맑은 길은줄 모르게 새벽을 알릴것이다.



# 跆拳道의 現代競技



姜正浩

원: 李朝氏書 「武藝圖說通法」의 태권권

實로 우연히 明洞에서 親舊들끼리 모여 조촐한 時間을 갖게 되었다. 요즘 大學이나 나온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어떤 스포츠에 從事했거나 적어도 觀戰에 一家見을 갖게 마련인가 보다.

親舊들의 談笑은 아니라 T.V의 主要프로와 新聞의 紙面도 요즘엔 꽤 이곳에 할애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의례히 登場되는 種目을 보면 무하메드·알리의 타이틀이 어떨는지, 헝크 아문이 715號 홈런을 날린 것은 그의 유연한 허리 때문이라니 압둘, 자바의 웃음과 某某의 비교等……實로 多樣하고 재미가 골을 넣을 때마다 테레비가 더 팔려나갔다는 程度이다.

運動에 門外漢인 나조차도 아버지는 라켓을 들고 테니스장에 아들은 축구공을 들고 누구누구의 헤딩폼을 보이는 世態를 흔히 보고 이것이 近代化의 물결이구나, 또는 西歐文明이 흘러드는 탓인가 보다——이 程度만 가깝게 생각했던 터이다.

우리 祖上들의 歷史를 읽어보면 兩班이 나오고 이들은 書冊이나 읽고 수업이나 쓰다듬는게 日課로 되어 있고 기껏해야 黨派싸움이나 했다는 外見上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손운동이나 입술운동이 全部였다는 程度의 印象을 주는 것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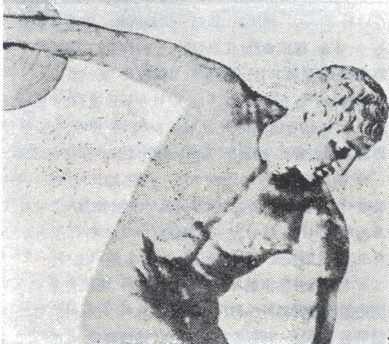
親舊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예의 아니게 球技를 中心으로 농구경기와 音樂의 五重奏(主로 Piano를 中心으로 바이얼린 비올라 첼로 等으로 구성되고 악기의 종류는 바뀔 수 있다)와 비슷하더니 野球의 경기는 두 감독이 黑白을둘고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니 하는 고당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中國의 道術叢書로 얘기가 옮겨가다가 李小龍의 얘기가 제임스, 던과 맞먹는 것이며 天才의 요절이 이러쿵……저러쿵……

그러자 베레모를 쓰고 술만 들면서 서너가닥 선비수업을 일복거릴 뿐 침묵하던 K가 『거跆拳道라는 것이

말이지……』하고 말을 꺼내 우리는 단연 그쪽을 돌아보았다. 얘기인 즉 仁川에 놀러갔을 때 우연히 사귄 친구가 태권도의 名人이었는데 이 친구에게 태권도의 묘미를 듣고 자기도 이 運動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노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 생님의 運動始作說에 웃지 않을 수 없었으나 『跆拳道가 高句麗時代壁畫에 이미 오늘날과



그리스섬에서 發掘된 미론의 「원반던지기」 Discobolus, disco는 Greece 語로 원반이라는 뜻이며 원작은 전하지 않는다.

거의 같은 모습의 跆拳道 폼 (Form)이 있다는 얘기는 新羅時代 석굴암의 本尊佛 앞에 金剛力士의 폼이 태권도와 똑 같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우리도 눈으로 본 기억이 새로운 지라 이상한 감회에 젖는 것이었다.

또 花郎들이 이 태권도를 修練했다는 史書의 기록이며 고려시대에도 이 跆拳道가 있었고 오늘날 軍敎本이랄 수 있는 武藝圖譜通誌에 이 跆拳道의 圖解와 論說이 있다는 데는 首肯이 할 수 없었고 모든 親舊가 새로운 것을 發見하면 못참는 性格인지라 이 親舊의 처음보는 熟練 모습까지도 다분히 흥미로운 바 있어 한층 귀의 분품을 높게 되었다.

이 親舊의 변론은 跆拳道가 이제 古代文化的 유산이 아니라 完全히 現代정기화되었다는 데서 끝났는데 요즘의 發達된 매스·콤에서 태권도경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와 국기원의 건립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報道라는 것이 다분히 常識의인 테에 그쳐 記者가 우리 程度밖에는 跆拳道에 知識이 없는 것인지 跆拳道가 아직 完全한 물음 만들어 合理化되었는지 當時로는 納得이 가지 않았다. 다만 곁에 있던 Y가 모든 運動의 發祥이 古代에서 부터였다는 것을 力說하기 始作했다. 레스링과 육상과 권투와 원반던지기(그리스의 壁畫와 조각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이것 또한 익히 冊에서 보아 온바이므로 東洋의 跆拳道와 西洋의 권투가 歷史 다름을하는 듯한 모한 착각에 빠져 들어갔다.

우리들은 모두 왜 어느 나라의 運動競技는 올림픽에 加入되고 어느 나라의 運動競技는 世界化되지 않는가 하는 우물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A가 우리의 跆拳道는 普通 妥當성의 原理에 依해 모두가 合理的으로 겨루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는냐는 見解를 내놓았다. 이때 K는 밀친에 동이 났는지



석굴암에 있는 金剛力士像위에 조각되어있는 이 조각者도 未詳이며 現跆拳道에서 이 방어의 포즈를「금강막기」라고 한다.

이번 週末에 開幕된 제1회 아시아 태권도 대회에 가보지 않았느냐고 미루는 것이었다. 자기는 그 입장권이 몇장 있었는데 경기를 보고 나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Z의 新婚處인 永東이 가까워 저녁을 한번쓰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께소리없이 술을 몇잔 더하고 아무 約束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고 모두들 金曜日부터 開幕된 跆拳道뉴스를 新聞과 T.V를 통해 눈여겨 보게 되었다.

나는 T.V畫面을 통해 이 大會가 高句麗時代 운운하

기와는 그야말로 時代적차를 느끼게 하는 산뜻한 경기장에서 예상외에 大觀衆과 現代의節次에 의해 開會式이 行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경기도 레스링처럼 링주위에 로프없이 토 매트도 깔지 않고 主審과 副審이있는 가운데 겨루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깐 비치는 畫面으로 보아 손 발을 交代로 즉 격렬히 구차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또 방어한다는 것 程度밖에는 더 이상의 궁금증을 풀수 없었다.

新聞을 다 뒤져 記事를 찾아보아도 간단한 戰績과 寫眞과 타이틀만이 톱으로 큼지막하게 나왔을 뿐 전문적인 內容을 찾아 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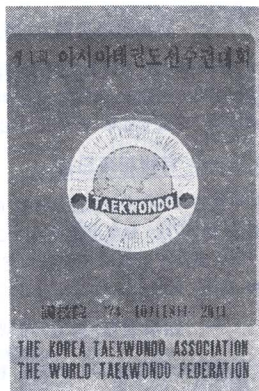
나는 또한 興味를 누를 길이 없었으나 T.V도 해설없는 뉴스쇼 또 신문도 그 혼한 경기규칙 비슷한 것 하나 보지 않았다. 모든 신문의 스포츠란에 「핀치·히터」나 「外野席」이니 하는 外國 競技의 규칙과 인기 스포츠의 까다로운 해설을 신는데 우리나라에서 主權하는 우리나라가 宗主國인 大會에 이토록 無心한가가 점점 劣化통이 터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高句麗와 大韓民國의 歷史의인 겹을 어떻게 跆拳道는 뛰어넘고 또 傳承했는가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 ※ ※

이상하게 우연이랄까? 跆拳道애기를 꺼냈던 親舊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왔다. 토요일 午前에 全部 전화가 되어 日曜日 一時부터 永東 國技院앞 매스점류장에 모이기로 했다. 이곳의 新市街를 구경할 생각으로 부터 모이는 까닭도 가지가지 인 해……

※ ※ ※

스폰서는 정해진 셀이어서 우리는 가볍게 입장했고 이미 자리가 짹 차 있어 겨우 비집고 복만 꺼내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決勝戰 8體級을 구경했다. 경기는 完全히 올림픽 方式이랄까? 아니면 東西 共히 納得할 만한 世界競技規定(?) 이랄까?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프로그램 表紙——世界를 跆拳道의 속도로 누는다는 뜻의 도안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에 준하는 것 같았다. 언뜻보기에 8m정도 사방 경기장은 白色 라인이 그려져있고 심판은 中央에 앉은 正審判(後에 倍審이라고 들었고 이심판이 最終판정관이며 이런 一級國際審判은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는데 아직은 20名밖에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과 경기를 진행시키는 主審(경기장안에서 선수와 같이 움직이고 반칙을 보고 접근근 選手를 때어 놓기도 했다)과 코너의 四名 副審등 좀 복잡한 편이었다. 그리고 계시원이 時計를 들고 있는 걸 보아 時間制 中間休息이 있는 것 같았다.

코치들은 링밖의 의자에 앉아 선수들을 격려했는데 선수들의 움직임이 바로 기막힌 것이었다.

그리고 A가 提示한 위험說은 別로 없는 것이 권투가 주먹을 아예 손으로 싸버리듯이 跆拳道는 맞을 만한 곳을 감쪽 비슷한 호구로 감싸버리고 또 얼굴을 발로 때리는 것은 鞭撻이나 손으로 때리면 失格 내지는 反則이 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놀란것은 各國의 마크를 단선수들이 한국과 차례로 대결하는데 그들의 기술이 기막힌 것이었다. 그들을 노려보다가는 느닷없이 등을 보이며 돌아서 뛰

며 상대의 복부를 공격하고 正面 對峙끝에 발을 휩 둘러 가슴이나 턱을 기습하는데 그것이 단발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시돌리기처럼 공중을 계속 회전하면서 연속 공격을 하는데는 저절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뒤에 앉은 관중은 제법 태권도에 一家見을 갖은 모양인지 이 어리석은 나의 觀戰에 짜증을 부리면서 자꾸 주저 앉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국팀이 우승배를 大會長으로부터 수여받고 기막힌 시범까지 觀戰한 後에 Z의 집에 들러 술상을 나누며 이 이야기에 꽃을 피웠고 우리 民族의 固有한 스포츠가 世界에 활개 칠수 있다는 데에 無限한 기쁨을 갖고있고 우리 文化財가 世界에 몇몇이 紹介되고 찬양받을 수 있는 높은 경지에 있다는 것을 實感하고 팬스레 어깨가 절로 으쓱해 지는 것이었다.

태권도——現代競技, ——거북선도 현대화 되어 쇠신형 배가 우리의 것이면 좋겠고 급속화자도 우리의 것으로 부터 世界 最高의 것이 되고 수출도 제일이 되어 어깨를 펴고 사는 1975년이면 좀 좋겠나?

## 社 告

百五〇萬跆拳道人 여러분의 성원으로 跆拳道誌는 發行部數 一萬部를 突破하게 되었으며 季刊에서 격월간으로 여러분을 對할 準備를 갖추고 部數擴張을 爲해 定期購讀等을 기획하고 있으며 資質向上과 科學化에 앞장서기 爲한 몇가지 事業을 마련했사오니 能動的으로 參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一. 跆拳道研究論文 대모집

★ 原稿枚數 및 寫眞圖解에 制限없음.

★ 內容 및 언령에 制限이 없으며 품세, 격파, 겨루기, 기타 特技에 대한 것을 分類할 것.

★ 期間: 一九七五年 五月 二十日

### 一. 特輯記事모집

本誌는 이미 市道支部巡禮를 四회에 걸쳐 企劃한데 이어 아시아의 跆拳道와 유럽 미주等の 世界로 뻗어가는 跆拳道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男女老少와 公私의 團體를 막론하고 태권도지를 위해 記事와 取材對象을 提供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期間: 每發行日の 二十五日前까지

### 一. 跆拳道紙 광고 게재 案內

發展하는 跆拳道誌의 廣告를 利用하실 분은 언제든지 連絡해주시면 親切히 이에 應하겠습니다.

大韓跆拳道協會 編輯室

서울特別市 中區 茅교동 19번지 609號室



연재만화 ㉓

# 태산양

최경철



# 金庫앞의 安樂椅子

金 哲 揮

집에 가던 저녁밤이 싸늘할 것이다. 아내가 돌아가지 않았을 데니까, 漢江을 건너는 橋에서 실비를 맞고가는 두 男女를 바라보며 생각해본다. 人道橋의 난간을 따라 大理石 기둥마냥 江물에 가로지른 水銀燈 불빛에 視線을 메지않는 處女는 青年의 어깨에 소담스런 머리채를 기대고있다. 실비는 가을저녁을 차올게 내릴텐데 발그레 삼기한 불에는 오히려 상쾌한가 보다. 그러나 아내는 分明히 가을의두 포켓속에 두손을 찌르고 덕수궁 鐘棚을 따라 걷고 있었다. 男子는 집을 雨傘을 펴들어 아내쪽으로 기우려 들고, 自己의 한쪽 어깨는 빗속에 내버려둔 채 따르고 있었다. 漢江을 넘어서 내린 나는 다시 人道橋를 따라 市內쪽으로 돌아온다. 이런 習慣은 뎌 처음 自殺을 示圖한 때부터 비롯되었다. 처음 아내를 목격했을 때 나는 무척 당황했다. 圖書館에서 나오던 아내는 사내를 向해 潤氣있게 웃던 흰 목덜미를 돌리자 얼굴表情마저 싸늘히 굳어 있었다. 나는 흩어진 애들의 신발푸러미를 모아 들고 발갈된 소매치기마냥 群衆을 헤쳐 外牆이 가물거리는 退溪路까지 뛰었다. 신발푸러미를 내팽개치고 싶었으나 참았다. 택시를 타고 끝없이 달려가고 싶었으나 주머니엔 電車票 두장이 옹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파트에 돌아와 애들의 歡呼에 힘쌓이자 孤感한 英雄의 悲感한 心腔을 더욱 억누를 길이 없었다. 睡眠劑를 두알씩 十分간격으로 두번에 먹었다. 다음날 職場에서 꺼질해진 얼굴을 쓸면서 始末書를 쓸때에도 나는 살고싶지 않았다.

「主人하고 求最한번 한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밖에선 나를 무어라고 紹介하오?」

「그렇게도 生覺이 좁아요? 女社員하고 커피한잔 안 드시겠네요?」

「茶房에도 들러왔구려」

내가 깨었을 때도 아내는 일터에 가고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漢江을 건너서 돌아오는 習慣을 더욱 버릴 수 없었다. 비오는 날이면 물에 빠진 장담처럼 부르르 떨면서도 어깨를 한껏 펴고는 아내를 찾으면서 強風이 솟구치는 다리를 건너서 아파트단 停留場에 고

개를 휘둘러보곤 했었다. 希望이 비처럼 瞬間에 스러지고 걸위를 흘려가 버릴뎌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리듯 한참이나 그대로 서있곤 했었다. 마치 종각時節에 丈人몰래 아내를 기다리던 追憶속의 나와같이——다시 어깨를 펴며 나는 現實을 찾아내어 내 房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벽스에서 본 青春들과 마주칠까와 나는 江心에 水銀燈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쪽으로 걸어왔다. 어느덧 나는 무엇을 생각하려 했는지도 잊은채 다리를 다 건너와 버렸다. 그리고는 지나버린 아쉬운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제 落葉도 말라버리고 熱氣없은 白沙場도 추련한 모습이다. 무엇을 斷念이나 한사람처럼 고개를 비쩍 쳐들고 비오는 하늘을 야유라도 할듯 노력하던 나는 서서히 내집으로 돌아오곤한다. 그레도 비오는 날, 사람들이 제 방을 지키는 아파트는 共同沐浴湯이나 國民學校같은 느낌은 덜어준다.

큰 애가 아직 잠들지 않았으나 보다 나를 부르고는 얼떨쩍한 바지가랑이를 붙든채 비임 한바퀴 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아도 손을 벌리고 올려다보는 눈언저리의 變化를 느껴 안다. 돈으로 주는 것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나를 슬프게 하는 感情을 억누르려고 동전을 얼른도 쥐어주고만다. 애미에게 귀엽받지 못하는 아들은 내게도 싫다. 나는 銀行門을 열고 들어선 손님마냥 入口에 한참이나 서있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門을 열고 등뒤에서 닫는다. 門이 닫히자 잠겨지는 소리와 함께 虛氣는 가신다. 이해 들어부터 이렇게 매를 넘김으로 虛氣를 잊는 習慣에 배어들게 되었다. 한두번 매를 걸르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고 이럴 수 있음을 깨우친 것이리라.

玄關에서 門을 열면 마루 마루에서 오른쪽이 내 房 왼쪽이 애들과 食母의 房 그리고 뒷방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침소리가 난다. 銀行의 構造를 너무도 닮았다. 父母任 房옆 오른쪽 부엌에 金庫가 있는 셈이다. 金庫앞의 내 房이 銀行에서도 내자리이니까.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아도 내가 기댄 딱딱한 椅子는 조금의 變

化도 주지 않는다. 復道를 스치고 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커질 때마다 내 손은 주판이라도 뛰기는 듯 바르르 바르르 땀다. 그리고는 발소리가 이윽이 멀어지면 아내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追加시킨다. 이제는 텅 빈 빈 뱃속처럼 혼자있는 것이 좋다. 이 無心한 빈 房은 언제나의 親鸞이다. 이 조용한 밤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壁에게 나는 감사의 祈禱라도 드리고 싶다. 나의 宗教는 迷信이다. 누구는 神이 죽었다고 그의 죽음을 確認한 모양이지만 내 生覺으로 神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 었다. 神에 依해 내 生의 尊嚴이 侵害當한다면 내 生의 絶對的價値가 無視될테니까, 아무튼 迷信教는 宗主도 없고 布敎者도 近者엔 줄어든 셈이지만 아무나 敎主이라고 나설 수도 있고 꼭 布敎者가 있을 必要도 勿論었다. 銀行이 定礎를 하며 告配를 지냈을 때 나는 얼마나 恰足했는지 모른다. 더욱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도 그랬으리라 믿으며 나는 同志를 얻은듯 아늑하다 내 아내가 便利 돌아오기를 그리고 내 마음이 安定되도록 나는 오래도록 두눈을 감고 있었다. 椅子가 나를 무대걸하기 시작하자 나는 웃을 바퀴립는다. 外出服을 椅子의 등받이에 걸치곤 양말을 반쯤 벗어 이불속에서 벗도록 발끝에 남긴 채 차디찬 아랫목을 밀치며 드러눕는다. 내 등뒤에 깔려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잠들었을까? 내 이마위 五層에는 누가 앉아있을까? 天井을 노려보며 나는 배를 쓸어본다. 그러나 찬밥은 먹기 싫다. 개가 미운 밥을 꺼리는 것은 이가 빠지는 理由라도 있지만 내가 찬밥을 싫어하는 것은 情이 가진 冷氣가 두려운가 보다. 이제야말로 나는 잠이 들 수 있다. 이불처럼 폭신한 漢江의 밀바닥에 드러누운 듯이——

※ ※ ※

나는 어제밤 아내가 돌아온 것을 알았었다. 벵타이를 매며 옷장 거울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찾아본다. 피로에 지친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 머무른다. 나는 눈이 마주친 것을 알고 등을 스스로 굽힌다. 등뒤의 部長에게 神經을 쓰듯이——, 움츠렸던 마음을 풀면서 비두리친 벵타이를 한참이나 바라본다. 어린이의 토라진 마음처럼 타이는 입을 비죽거리고 있다. 아내의 앞כות은 웃음 속에 감박거리는 눈물 에세 바로하서 벵타이를 타서 땀다. 돌아서며 나는 스카팅을 신는 아내가 무척도 청초해 보임을 느낀다. 아내는 내미는 손끝을 잡고 머리태를 제끼며 웃는다. 劇場앞에서도 사내에게 웃지않았었다는 생각을 나는 해본다. 나를 노려본 것이 아니라 당황한 것이었으리라고 想像해 본다. 아내는 일어나 내 턱밑에 머리를 묻고 스스로 눈을 감는다. 살결이 아른아른 비치는 얇은 화장과 돋보이는 불그레한 입술이 가즈런한 숙눈썹아에서 향긋한 내음을

풍겨준다. 어제의 人道橋의 女人처럼 젊고 幸福한 아내다. 아내는 듣지 못한 電話벨이 한가하게 울려온다. 나는 까실까실한 턱수염이 주뿔함을 느낀다. 그리고 時間이 늦으리라는 조급한 마음을 달래본다. 아내가 눈 뜬 새벽벌처럼 해발장개 올라다본다. 어제밤 비내리는 어두운 강물에 아내의 얼굴을 그려놓고 끌어안은채 죽어버리고 싶은 짜릿한 충동을 돌을 던져 깨버리며 이겨내던 순간이 떠올라온다. 波紋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갈라지는 메아리와 함께 고요해졌었다. 그리고 사본사본 내리는 빗노래에 잠겨지고 말았다. 나는 오늘을 순교하는 사람처럼 아내의 손목을 꼬옥 누르고는 앞서서 門을 나선다. 復道, 階段, 玄關, 그리고 아스팔트길, 지금은 꺼진 街路燈, 人道橋를 뚫고 宿命처럼 질주해 와서 회오리먼지와 더불어 머무는 大型合乘 아내는 내 뒤를 自轉車의 뒷바퀴처럼 따라왔다 타면 종고 안타면 대수냐는 듯 좁은 入口에 머리를 더밀며 客속에 나는 물허버린다. 왼쪽 가슴의 萬年筆과 백원의 오른쪽 주머니돈에 神經을 주면서 눈앞의 의지대에 붙잡힌 나는 收容所에 들어가는 포로처럼 自身의 運命을 합승에 내맡기고 가련하게 매달린 하얀손을 창백하게 노려본다. 그리곤 내 손에서 풀려나 彫刻같은 손목을 虛空으로부터 서서히 포켓으로 옮겨가는 아내의 서운한 모습을 본다. 자리에 앉아 되도록 外面하며 어디론가 실려가는 나는 또 생각해본다. 아내는 언제나 내 손목을 잡는다. 他人과 만날 때는 언제나 포켓에 찌르고있다. 고운손 그리고 불려본다.

「여보!」

어제밤의 그 보드랍던 살결을 후회하듯 대꾸하며 등을 뒤채쳐 잠들던 내가 세상 후회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다. 아무리 착각은 나래를 펴고, 意識은 줄고 있어도, 나는 밤주어는 時計처럼 내 停留場에서 따르릉 鐘을 울리며 내린다.

차가 지나치다 치어도 좋다는 듯 한쪽나리를 내민 나는 交通警署이 부랴린 눈알과 호르라기를 본 부들은 입술 앞에 차렷하고 서서는 國民學生처럼 說明을 듣는다. 나는 두말없이 손가락을 따라서 陸橋를 건너간다. 이곳을 건너다 아스라이 숨겨진 어린 원혼(怨魂)을 위해 세웠노라고 써여있다. 나는 이 은총받은 陸橋를 두 고도 스스로 죽임의 길을 擇할뿐 뻔다. 銀行앞에서 나는 아직 鐵門이 죽음처럼 육중히 내려진 正門을 마치 시비하러운 사람같이 바라보고있다. 銀行 왼쪽에는 大門을 두르고 내가 드나들어야하는 좁은 門이 있고 오른쪽에 上層으로 通하고 地下室로 내려서는 층계가 걸려있다. 그 적은 門 하나가 이 十層건물을 요리조리 連結하는 것을 想起하고 나는 내 推理力을 정찬한다. 그



入口에 카바레에서 퇴관사무실과 수위실에 이르기까지  
案内의 간판이 붙어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서있었을까? 그 간판속에서 茶室「現代」이라는 현판  
을 읽는다. 〇자밑에는 地下로 꼬부라지는 붉은 標示  
가 딱 癡情的으로 꾸부러져있다. 三〇分前! 아침커피  
를 들수 있는 最適의 時間이다. 나는 찻을 꿀꺽삼킨다  
그리고 커피잔에 동그마니 쓴 달걀노란자위를 黃海에  
떨어진 달걀아서 차마 마실 수 없다고 同情해본다. 二  
層엔 레스토랑이 있고 그 옆에는 이발소가 있도록 設計  
되어있나 보다 왼쪽발뿌리를 왼편으로 옮기고 오른쪽무  
릎을 틀면서 문앞에 들어선 꽃집을 바라본다. 꽃을 사  
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富者라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  
다. 벌안드는 빌딩 사이 궁둥이를 비집기에도 좁은 진  
열대에 갈매가 유리창을 밀치기라도 할듯 허우적거리  
고 있다. 갈매라도 菊花속에 하늘거리게 하고픈 都市  
인의 슬픈 詩情! 나는 그만 누군가가 내 棺에 갈꽃이  
라도 장식해 준다면 죽을 수 있다고 豪言해본다. 한숨  
이 찼잖한 大氣속에 용트림을한다. 나는 그 숨을 도로  
들여마시기라도 할듯 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골목속  
에 빠져들어버린다. 部長의 注意를 들은 다음부터 銀  
行入口에서 담배를 물고 들어서서 天罰을 받을 짓은아  
예 없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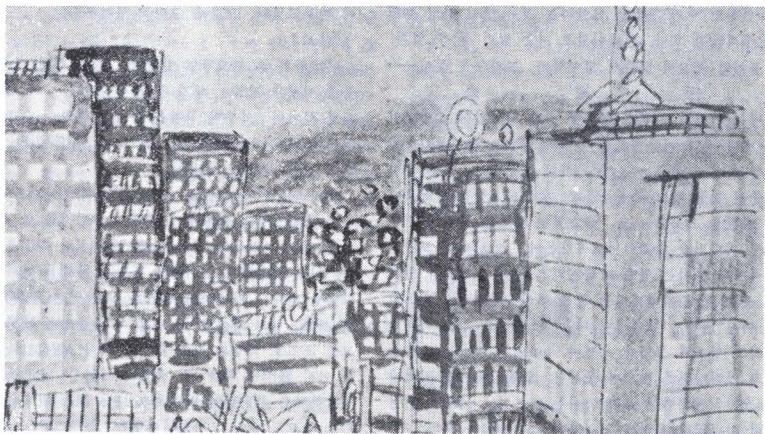
金庫가 있는 쪽 뒷문을 지나 나는 손님들이 접을 썩

으며 熱帶魚를 바라보는 홀을 거쳐 正門쪽 구석에 난  
 뒷문을 밀치고 칸막이의 안쪽으로 들어서며 앞가슴을  
 약간 펴고 양 어깨를 두번쯤 으쓱해 보이고는 事務冊床  
이 네개씩 등열대로 있는 틈을 지나 내자리까지 온다.  
그리곤 뒤를 돌아본다. 部長이 아직 오지않았다. 카페  
의 카운터값은 窓口을 向해 冊床들은 의자와 더불어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있다. 係員의 뒤통수에 係長의  
콧김이 쏘이고, 係長의 쌍가마에 部長의 김이가 빛나  
고, 部長의 대머리에 事務의 돌보기가 반짝거리도록  
椅子는 놓여있다. 뒤로 갈수록 椅子는 비닐에서 우단  
으로 바뀌어가고 등받이가 조금씩 누어져 간다.

나는 내 앞에 기름바른 뒤통수를 휘두를 係員을 만  
만찮게 노려보며 前代未聞의 退職辭를 構想한다. 그리  
고 잉크스탠드의 뚜껑을 열고는 머리속에서 맴도는.달  
문을 터 본다.

「그래도 專務가 美國에 다녀오고 美國人經營專門家  
가 내 앞의 成君의 通譯으로 椅子配列을 지금같이 하  
기前엔 조금은 나았었다. 茶房에서 달덩이를 전져마시  
고 점심엔 레스토랑엔 돌리고 週末마다 이발소의 安樂  
椅子에 나른한 어깨를 맡길 수 있었다. 物價가 오르고  
月給은 묶인채여 그런지 아니면 이冊床을 감독하기 쉬  
움도록 配置하여 그런지 싸라리맨의 悲哀를 잉크스탠  
드는 모르는 모양이다.

<다음호에 계속>



# ＜協 會 動 靜＞

- 8월 9일** 경남경찰승단심사대회  
장소: 경남경찰국중앙  
응심인원: 104명
- 8월 11일** 제29회 소년부 승단심사(국기원)
- 9월 2일** 국기원정문 상량식  
제1회아시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一柱기와 造 한국적 정취를 품은 정문이 국기원 入口에 건립되다.
- 9월 6일** 제1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선발대회개회(211명참가) 최정도, 양영관, 김철환, 이기형, 등 8명선발
- 9월 8일** 제30회소년부승단심사(국기원)  
이승환의401명참가
- 9월 9일** 우간다수련생(킷토의 12명)국기원에서 합숙 훈련  
김남석우간다주재사범과 김희근, 이문호 사범이교육실시
- 10월 5일** 제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한국대표선수결단식(국기원)
- 10월 6일** 제31회소년부승단심사(국기원)  
김동섭의 360명참가
- 10월 9일** 제55회전국체육대회개막  
우승서울 二위전북 三위경남(詳報本文)
- 10월 18일** 제1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개막  
10개국입원선수93명이참가한 가운데 국기원에서개회  
종합1위 한국(52점)  
종합2위 자유중국(35점)  
종합3위 크메르공화국(19점)
- 10월 20일** 아시아 태권도연맹창설준비위원회회의  
장소: 국기원  
참가국: 10개국  
안건: 아시아태권도연맹창설에관한건  
75년제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지전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기로결의하고 준비위원국에 한국 호주 필리핀 자유중국 싱가포르를선출
- 10월 24일** 제1회전국중고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국기원)  
참가선수326명  
고등부: 최상진(남산공전)의 7명  
중등부: 김상진(동두천중)의 7명 우승  
美아마스포르츠연맹(A.A.U)에 태권도를 정식경기종목으로채택  
美아마·스포르츠연맹제87차총회(13일~19)에서 태권도 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

- 10월 31일** 기술심의회개회  
(안건)군, 민통일소위원회회의의경과 및 국제대회관계규정토의
- 11월 3일** 제32회소년부승단심사(국기원)
- 11월 3일** 태권도소개책자: 스페인語판프렛발간
- 11월 16일** 제3회 서울교육대학장배쟁탈국민학교선수권대회  
장소: 서울교육대학체육관  
참가인원 270명
- 11월 22일** 1974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장소: 국기원 참가선수289명참가  
中技部이종율의 7명  
高技部박관식의 7명우승(詳報本文)
- 11월 25일** 제11기지도자교육  
장소: 국기원  
참가인원: 115명
- 11월 29일** 자유중국과전대표선수결단식  
제1회아시아선수권대회에참가한 한국대표선수 고의민코치의외선수 8명
- 12월 2일** 세계태권도연맹부총재 Reo. Wagner씨 대한 유림태권도 연맹창설및 유림태권도대회개회를 위한 협의차
- 12월 4.** 제7기3급 심판원교육(국기원)  
148명이수



九德體育館에서의 昇段審査任員(上) 下는 배영기씨의 훈시들은응심자들

## NEWS ON TAEKWONDO

### ★ August 9, 1974

Promoting test for Kyung-nam Police Department. Place : Auditorium of Kyung-nam Police Bureau Number of applicants : 104 persons

### ★ August 11, 1974

The 29th promotion test for Junior Division held at the Kuk Ki Won.

### ★ September 2, 1974

Erection ceremony of Main-Gate of the Kuk Ki Won time : 16 : 00 hrs

### ★ September 6, 1974

The Korea Preliminary Taekwondo tournament for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Number of participants : 211 persons

### ★ September 8, 1974

The 30th Promoting test for Junior Division. At the Kuk Ki Won and 402 applicants

### ★ September 9, 1974

Ugandan Students commenced lesson at the Kuk Ki Won

### ★ September 13, 1974

Representative meeting of the National Athletic Games

Time : 14 : 00 hrs

Place :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 ★ September 20 1974

Technical Council Directors and Departmental heads Seminar.

Place :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Athletic Association

Subject : Concerning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1) Selection of the Officers

2) Selection of Head of demonstration.

### ★ October 2, 1974

Completion Ceremony of the Ugandan trainees

Special Training Course

Time : 16 : 00 hrs

Place : Kuk Ki Won

### ★ October 5, 1974

The Inaugural Ceremony of the Korea National Taekwondo Team for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ime : 9 : 30 hrs

Place : Kuk Ki Won

Participants : President. Kim, UnYong

Head of Team, Bae, Yung Ki

Manager Song, Sang Keun

Team Coach Ko, Ui Min and

8 of Players

### ★ October 6, 1974

The 30th Rank promotion test for Junior Division. At the Kuk Ki Won and 361 applicants

### ★ October 9, 1974

The 55th National Athletic Games

### ★ October 17, 1974

The Representative's meeting for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 World Taekwondo Federation office (Kuk Ki Won)

Time : 13 : 00 hrs to 14 : 00 hrs

Participants : 10 participating nations

Subject : Confrontation Schedules and operation of the Championships

### ★ October 19, 1974

Representative Committee mee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Taekwondo Federation

Place : Kuk Ki Won

Time : 11 : 00 hrs

Participants : 10 participating countries

Subject : Establishment of the Asian

Taekwondo Federation

1) Head of preparation country :



Republic of the Korea Preparatory members : (Philippines, Australia Republic of Khmer, Republic of China)

- 2) Meeting of promoters to be held at before the 2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in 1975.

★ **October 18, 1974.**

The Opening Ceremony of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 Ki Won

Time; 14 : 00 hrs

Participants; 10 participating nations

★ **October 20, 1974**

The Closing Ceremony of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Champion : 52 points

The Republic Korea

Second Prize ; 35 points

The Republic of China

Third Prize ; 19 points

The Republic of Khmer

★ **October 24, 1974**

The 1st National High Schools Championships was held (for individual matches) at the Kuk Ki Won and 326 players

★ **October 25, 1974.**

Dismissal Ceremony of the Korea National Taekwondo Team for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 Ki Won

Time; 11 : 00 hrs

★ **October 26, 1974.**

President. Kim, Un Yong departs to Taipei, Taiwan according to invitation of China Taekwondo Association.

★ **October 31, 1974.**

Technical Council Committee meeting

Subject; 1). Establishing a sub committee to unite Military and Privates.

- 2). Regulations concerning to the international Championships

★ **November 3, 1974.**

The 32nd Promotion test for Juniors Division At the Kuk Ki Won and 425 applicants

★ **November 13, 1974.**

Phamplets in to the Spanish version (2,000 copies)

★ **November 14, 1974.**

Seminar for the Technical Council Committee and Sub Committee Head Members

1). Report of results to unite Military and Private by Sub Committee

2). Nomination of Technical Council Committee Members

3). Orientation for regulations of the 2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 **November 16, 1974.**

The 2nd Dean's Flag of Seoul Educational College Taekwondo Championships

(Elementary School Taekwondo Contest)

Place; Gymnasium in Education College

★ **November 22-24, 1974.**

The 1974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At the Kuk Ki Won and 289 players

★ **November 25-30, 1974.**

The 11th Instructors training Course

At the Kuk Ki Won and 115 participants

★ **November 29, 1974.**

The Inaugural Ceremony of the Korea National Taekwondo Team for delegate to the Republic of China

Place ; Kuk Ki Won

Time ; 12 : 00 hrs

Head of team; Bae Yung Ki

Team Coach ; Ko Ui Min

with 8 players

★ **December 2, 1974.**

Mr. Leo Wagner, Vice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observed the demonst

## 釜山直轄市支部

### ——跆拳道競技의 大家化——

사진 左가 송규원회장 (우)전무이사



十一個市道支部와 三개 산하聯盟 순회를 마친한 二四  
日 釜山직할시 支部를 찾은 것은 지난 9월 20일 부산지  
역 승단심사 때였다.

國技跆拳道! 이는 二千年的 이었던 歷史로 부터 비  
롯되어 우리 民族의 새로운 肯持로 대두 되었으며 이  
런 위업은 全跆拳道人의 自覺과 양보——또 끝없는 노  
力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跆拳道協會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組織의 이고 體系  
의으로 跆拳道를 보급하고 올바른 精神이래 永遠한  
發展을 꾀해야 한다는 막중한 使命을 갖고 있는 것이  
다.

各 支部는 跆拳道協會의 이러한 基本방침이래 一線  
에서의 技術向上 저변확대 行政 및 技術體系의 統一을  
기하도록 모든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國技院의 기능강화와 諸規定의 統一  
等으로 이제 完全한 자리를 잡은 跆拳道는 平준하고  
誠實한 精進으로 大發展의 歷史를 짚아나가야 한다.

釜山直轄市 跆拳道協會는 國際港都의 새로운 면모담  
게 송규원 會長과 손석진 전무이사로 묶어져 一線  
指導者들에 이르기까지 一致團結하여 跆拳道一體化를  
꾀하고 있다.

釜山支部가 내세운 目標은 첫째 單一化된 跆拳道精  
神이래 汎跆拳道人의 규합협동 團體)協會를 通해 制定  
된 모든 法規와 規定의 준수 셋째)釜山跆拳道의 技術向  
上和 一線師範의 資質向上( 넷째) 跆拳道 室內體育館의  
建立이다.

손석진 專務理事는 그러나 이 네가지의 事項中 어느  
하나라도 分離해서 생각 할 수 없는 조건이며 相互關  
聯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會社 代表와 統一主體國民會議代表로 있는 송규원 會  
長은 『眞正한 跆拳道精神이란 盲從도 아니고 屈從이나

自慢도 아니며 內的修養과 成長에 依한 敬禮와 忍耐과  
고 밝히면서 그러므로 跆拳道人은 신중한 行動으로 무  
모한 自害行爲를 삼가고 희생정신으로 團結을 꾀할  
수 있는 것』이라고 前提하면서 『다만 跆拳道가 幾何級  
數의으로 人口를 擴張하면서 本來의 嚴格한 師範對 弟  
子의 以心傳心의 修練關係가 弱化되어 선배에 對한  
존경심이 무너져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견제——  
會長團과 實務陳——그리고 現跆拳道人의 유대 關係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實質의으로 宋會長은 釜山體育發展을 위해 各者 할  
수 있는 奉仕를 하는 것이 協同이라고 말하면서 發展의  
기틀을 위해서는 經濟的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  
히면서 各鍾大會에서 釜山팀의 實力이 急上昇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 一線指導者들의 資質向上을 위해서는 釜山에 協  
會가 實施하는 指導者教育을 유지하고 이어 審判教育  
들을 통해 釜山 지도층의 技術向上과 精神統一을 기하  
겠다고 밝혔다.

또한 跆拳道競技力을 向上시키고 宗主國跆拳道의 永  
久한 發展을 꾀하기 위해서는 地域大會가 盛行되어야  
한다고 본 協會에서는 교육감기, 시장기, 協會장기등  
을 준비 그간 양성한 심판과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활  
발한 경기를 유도하여 국민학교에서 一般에 이르기까  
지 선수층을 두텁게하고 메스퀀을 동원 태권도 경기의  
市民化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釜山 태권도 협회는 우선 이 경기들을 九德體育館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것이지만 이제부터 힘을 모아  
跆拳道를 위한 전용 경기장과 체육관을 세워야한다고  
이곳 태권도계의 중진인 趙增德씨와 성백규씨는 입을  
모으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태권도경기의 發展과 汎市  
民化를 위한 근간을 세우고 이를 母體로 강력히 추진  
해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차)



## 慶尙南道 支部

—團合과 會員間의 친목—

사진 : 좌에서 두번째가 이상래회장

慶南跆拳道協會를訪問하러 釜山에서 손석진전무이사의 안내를 받고 馬山을 거쳐 鎮海로 들어가면서 一見 地域上 서울과 京畿道의 問題點이 얼핏 떠오르는 것이었다.

道協會가 中心地에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行政上의 交通關係가 어려운 것이라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釜山에서 만난 慶南跆拳道協會副會長인 김태진씨는 『70年代의 祖國近代化와 더불어 이제 跆拳道界도 意慾의인 出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慶南 理事會에는 특종우가 南海를 휩쓸고 특우가 낙동강을 휩쓸었는데도 3分之2以上이 참석——참석자들끼리 서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團合——함께 무엇이란 이루어야겠다는 精神이 發展의 제일보가 아니겠습니까?』

텍시가 市內에 진입하자 “경남태권도대회선수”합숙 훈련장 이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連絡이 잘 되지 않은 關係로 이 道場에서 최오식 전무이사의 거처를 알아 取材에 接하게 되었다.

그러나 支部 事情上 지금까지 慶南協會長을 달아오 시던 안우상씨가 사퇴하고 이상래(진해, 창원지구 원예조합장)씨가 새로이 協會長을 맡고 있었다.

이로서 경남태권도협회는 이상래회장아래 부회장으로 이도재, 이현오, 김태진, 김태운, 정중섭씨가 회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전무이사 최오식씨를 비롯해 유기준, 구영춘, 조희삼, 박응용, 김위수씨등이 中心이 되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道協會는 國技跆拳道의 世界化를 위한 底邊의 形成과 世界제패의 技術開發을 目標로하고 會員間의 친목 단합을 통해 相互의 協助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남협회는 中央協會에서 실시하는 각종의 大會參加와 指導者教育과 審判教育등의 활발한 參加에 力點을 두고 있다. 中央大會의 參加는 選手들의 技術확대뿐 아니라 來日의 指導者를 養成하는 淸경인 집에서 경

남태권도의 發展을 기하는 活力素요 主役인 것이다.

또한 指導者의 育成은 언제나 모든 部門에서 그렇듯이 훌륭한 指導者야말로 훌륭한 弟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체계를 먼저 못했던 이유의 하나가 跆拳道의 非體系化와 非綜合化에 있다고 보는 이들은 이 때를 맞이하여 確固한 體系確立을 위한 指導者및 審判教育에 적극 참여하자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道內의 모든 師範과 跆拳道人口의 冬태과학에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年末까지는 會員방명록도 發刊할 계획으로 있다. 간단한 경력과 現住所 및 자격증유무를 실은 방명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協助가 아쉬운 實情이다.

그리고 今年 6月 이미 80名의 高等學校, 大學選手들이 參加한 가운데 열린 경남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11월초에는 道教育監旗爭奪戰을 벌였는데 意外의 많은 관람객들이 좋은 호응을 보였다.

會員間의 원활한 協助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서 競技를 통해 實踐될 때 확실히 우리의 跆拳道는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協會의 어려운 살림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道體育會의 보조비와 協會長및 임원진의 눈물겨운 協助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說明한 최오식 전무이사는 김운용회장의 道支部 보조비가 사기를 크게 북돋았다고 傳하면서 어려운 會員들이 指導者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경남에서 指導者교육과 심판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진해시 도만동에 자리잡은 진해체육회 사무실에 협회장의 호의로 건립(진해3436)를 開設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기둥으로 出發할 경남태권도협회의 앞날을 기대한다.



## <태권도 榮光의 얼굴> 大韓體育會制定 一九七四年 最優秀이기형選手

해마다 大韓體育會가 當年度의 활약을  
를검검 選出하는 最優秀選手 跆拳道部門  
에는今年 이기형 선수가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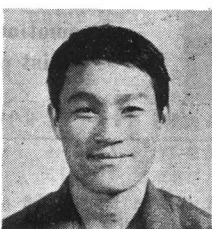
본적을 전남장성군월정리불정동에 두고  
있는 이 選手는 1951年 11月 28日生,  
體重 68kg 身長 172cm이며 태권도 수련경  
력은10년에 國技院三段이다.

이기형선수는 태권도의 精髓인 화려한  
발차기를 주무기로 삼고 있는데 이번아시  
아大會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할 때 이 발차기는 더욱  
빛났다. 오른발에는 자신이 있었으나 왼발차기에 고심  
을 해오다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분발하여 이제 左右  
를 自由自在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이기형선수는 아시아大會 우승뿐 아니라 지난해 세  
界大會에서도 한국대표로 出戰 金메달을 획득한 바 있  
다.

이번의 受賞 所感에 對해 李選手는 『이번으로 10年  
째 跆拳道를 修練했습니다. 1965年 칼날같은 겨울바람  
을 헤치고 전남광산에 있는 무양중학교 뒷산 가래봉을  
오르내리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소나무 등걸을 두드리고 마을창고 흙바닥 道場에서 運  
動을 했던 저는 光州 崇一高 三學年때 처음 우승한 후  
출판 幸運을 잡아왔습니다.』

이런 피눈물 나는 修練은 여러차례 시련을 겪고 몸  
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좌절도 하고 그러고 나면 집  
어치우자고 몇번씩이나 생각했지만 굳은 精神力과 선



배님의 격려로 오늘까지 맨발에 흰 도복  
을 버리지 않았고 이제는 피부의 一部가  
된 것처럼 道服은 친근해 졌습니다.』

감격에 어린 이기형 선수는 今年의 계  
획에 對해 『순발력과 유연성이 좋은 外國  
選手를 공격거리에 잡기 위해서는 경기력  
과 기본體力 및 走力의 양성에 힘을 기울  
여 결코 맞지 않고 빠른 순간을 잡아 정  
확한 공격』을 目標로 하고 다시한번 世界

챔피언메달을 목에 거는 일……三國誌를 즐겨 읽는 이  
選手는 망상을 즐기기도——現 陸軍代表跆拳道選手團  
에 服務中

### ——主要優勝經歷——

1970年度 신인선수권중기 라이트급우승 제52회 전국  
체전 중기라이트급우승

1971年度 全國우수선수선발대회 동급우승 제53회 전  
국체전 同級 우승

1972年度 全國우수선수 선발대회 동급우승

1973年 3月 제1회 世界大會한국대표선발(同世界大會  
個人輕量級우승)

1973年 7月 제8회 대통령기쟁탈우승

1974年 8月 제1회 아시아大會 한국대표선발(同아시  
아大會라이트급우승)

제55회 전국체전 高技 라이트급 우승

1974年 12月 자유중국 원정(對自由中國國家代表에  
二連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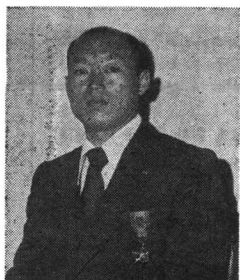
## 綠條謹呈勳章 朴海滿씨 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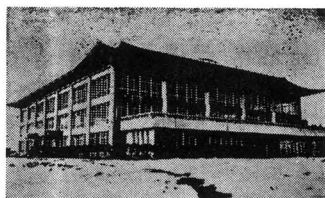
1974年度 大韓跆拳道協會 技術審議會의 教育分科副委員長을 역임하고 今年부터  
는 教育分科委員長으로 활약할 朴海滿師範은 政府로 부터 지난 年末 綠條謹呈勳  
章을 받았다.

朴海滿씨는 서울 西大門區 佛光洞을 本籍으로 1933年生, 1958年 전국대학 政治  
外文學科에 적을 두었으며 同年 中央大學校태권도사범으로 出發하여 1959年 서울  
大學 商科大 사범 1960년에는 同 文理大사범 1964년에는 大統領府호실의 태권도  
부를 맡아왔었고 66年 韓일親善 태권도경기코치로 日本에 遠征 72년부터 發足된  
技術審議會의 員인으로 활약해 왔다.

요즈음은 교육대학의 태권도부를 맡아 오는 한편 새로 發刊될 英文敎本の 發刊  
關係로 몸이 두쪽이라도 못건디겠다면서 동문서주.

앞으로 더욱 跆拳道의 技術開發과 理論의 體系化에 專念하겠다는 朴師範은 태  
권도지의 품체교실에도 많은 協助을 아끼지 않고 있다.





# 國技院昇段審査 合格者名單

Promotion Test at Kukkiwon  
List of those Passed.

심사에 응하는 태권도인과 지도자를 위해 당협회 기술심의회와 심사위원회 세칙을 연재한다. (三回)

審査委員會 細則 (前號에서 繼續)

## 第6條 採點要領

아래의 要領으로 各審査委員別로 採點하며 품세 겨루기를 A, B, C로 採點하되 품세가 겨루기에서 C를 3개 받았거나 품세나 겨루기 합하여 C가 4개인者は 落第로 한다.

### 第1項 품세(實技)

가. 精神(품세신, 視線, 氣合) 나. 자세(重心과 動作) 다. 힘에 강약(완, 속)

### 第2項 겨루기(實技)

가. 精神(視線 氣合거리) 나. 動作(攻防의 正確性) 다. 技量(特異한 技術)

### 第3項 特技(實技)

가. 打 力 나. 特殊手技 다. 特殊足技

### 第4項 敎養(學力)

가. 筆 答 나. 論 文 (但 特技 및 敎養科目의 採點方法은 別途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7條 昇段年限 및 年齡區分

| 단   | 별     | 승 단 년 한 | 년 명 구 분   |
|-----|-------|---------|-----------|
| 소년부 | 초단—2단 | 2년      | 만 9세 이후   |
|     | 2단—3단 | 3년      | 만 12세     |
| 일반부 | 초단—2단 | 1년 6개월  | 만 17세 6개월 |
|     | 2단—3단 | 2년 6개월  | 만 19세     |
|     | 3단—4단 | 4년      | 만 23세     |
|     | 4단—5단 | 5년      | 만 28세     |
|     | 5단—6단 | 6년      | 만 34세     |
|     | 6단—7단 | 8년      | 만 42세     |
|     | 7단—8단 | 9년      | 만 51세     |
|     | 8단—9단 | 10년     | 만 61세     |

(但: ① 少年部에서 初段을 得한 者가 一般初段部에 編入할 境遇 滿 15歲가 經過되어야 하며 編入申請書와 手數料을 納入해야 한다.

② 少年部에서 2段을 得한者가 一般 2段으로 編入할 境遇滿17歲가 經過되어야 하며 編入申請書와 手數料을 納入해야 한다.

③ 少年部에서 3段을 得한者가 一般 3段으로 編入할 境遇 滿20歲가 經過 되어야하며 編入申請書와 手數料을 納入해야 한다.

④ 4段은 滿 23歲 以上 者로서 資格證을 賦與한다.

## 第8條 審査處理

第1項 審査가 執行終了되면 査定된 結果를 院長의 決裁를 得한 後 合格者에 對한 段證을 遲滯없이 發給한다.

## 第9條 特 典

第1項 國技跆拳道의 發展에 功勞가 至大한 社會人事로서 功蹟事項에 따라 名譽段을 授與할 수있다  
【但: 國技跆拳道의 高段者로서 功勞가 至大한 人士가 殉職하였을 때에는 一階段을 追贈한다】

## 第10條 附 則

第1項 本規定 및 細則은 制定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畵)

# 제29회 소년부 승단심사 8. 11. The 29th Junior Rank Promotion Test

|                  |      |     |     |     |     |     |     |     |     |
|------------------|------|-----|-----|-----|-----|-----|-----|-----|-----|
| 문용복              | 金富漢  | 金性俊 | 張世薰 | 엄경훈 | 任金成 | 최병운 | 金恒緒 | 趙鎭赫 | 정성운 |
| 崔大福              | 李光烈  | 張在雄 | 김재열 | 왕 군 | 金熙結 | 최문규 | 徐學成 | 鄭昌桂 | 金寧民 |
| 康仁哲              | 姜昌求  | 閔鉉哲 | 안상규 | 윤지선 | 鄭鎭承 | 石光峰 | 이형선 | 姜弼聲 | 김동기 |
| 徐成齊              | 安貞泰  | 이선학 | 김선영 | 윤성준 | 李建郁 | 柳泰興 | 송병현 | 金明吾 | 정학재 |
| 愼鎭泰              | 박용호  | 韓濟學 | 유해민 | 정형진 | 김한균 | 崔亨元 | 김동완 | 박경신 | 張國辰 |
| 崔 堯              | 金善國  | 金弘敎 | 李相旭 | 高炯國 | 金賢鎭 | 裒晨段 | 黃昌德 | 이 진 | 柳泰榮 |
| 金哲韓              | 남강우  | 이지희 | 이동수 | 엄태민 | 이주한 | 馬錦憲 | 金英俊 | 權 稻 | 이우영 |
| 朴庭煥              | 박종진  | 박해진 | 韓鍾赫 | 김윤홍 | 吳基泳 | 최종범 | 尹泰奉 | 김홍태 | 沈東鎭 |
| 尹周培              | 김성태  | 조승제 | 林夏湧 | 申東浩 | 이성호 | 이규준 | 정규태 | 이운영 | 金容憲 |
| 郭永信              | 김경태  | 백정백 | 李知勳 | 양희경 | 韓承憲 | 李雲錫 | 정형철 | 김태훈 | 정형균 |
| 박문수              | 金鍾勳  | 오혁진 | 조영복 | 曹光鎬 | 李鍾仁 | 奇 勇 | 金宗燮 | 高龜淸 | 박봉출 |
| 權起瑛              | 임택성  | 朴榮晚 | 김상환 | 이재훈 | 조남진 | 임주호 | 高成昊 | 황영찬 | 俞在福 |
| 임창용              | 李全浩  | 梁華秀 | 張佑佑 | 김정현 | 朴貞愛 | 공세환 | 金政學 | 윤정호 | 金美淑 |
| 한남석              | 이운용  | 孫大圭 | 金東胤 | 엄창훈 | 姜盛弼 | 李海玟 | 金哲鎔 | 韓詳學 | 金鉉瑒 |
| 김용두              | 權 衡  | 朴智鴻 | 李世鎭 | 정근채 | 엄종훈 | 李勝順 | 盧浩植 | 具剛膜 | 段鉉昊 |
| 장한승              | 정재학  | 강찬영 | 金爽祐 | 정일균 | 方正烈 | 姜宇振 | 채형훈 | 유형진 | 李世柱 |
| 崔慶一              | 오세창  | 이승하 | 김일도 | 유광호 | 金漢圭 | 김유진 | 李榮達 | 李丁藐 | 姜弘振 |
| 허 남              | 柳濟結  | 양수영 | 이재승 | 李東天 | 최 훈 | 서홍석 | 金明珠 | 徐碩淵 | 정백호 |
| 이승현              | 이택준  | 金淳榮 | 김선영 | 이세훈 | 金石根 | 신재우 | 김준태 | 박철훈 | 이상일 |
| 남원식              | 오수익  | 유태준 | 李彰鍾 | 강경원 | 조태규 | 황형식 | 김성우 | 신동혁 | 신동혁 |
| 함재욱              | 金兌昊  | 김정욱 | 신명준 | 朴昌海 | 이재완 | 강나익 | 유영배 | 李美里 | 이규윤 |
| 장재원              | 문석원  | 李應昌 | 김형민 | 이장원 | 우영택 | 김관수 | 조혜원 | 이지영 | 김재진 |
| 羅裕鎭              | 설문수  | 남영우 | 김동석 | 김형태 | 안승준 | 최기환 | 김지형 | 주지혜 | 오기환 |
| 이영준              | 金裕結  | 황영칠 | 서성식 | 정용선 | 홍윤기 | 조용규 | 趙容駿 | 田春福 | 전현일 |
| 강석영              | 安昌根  | 신동환 | 林聖根 | 노종윤 | 徐完碩 | 양봉성 | 李泳洙 | 정의식 | 배성호 |
| 李相德              | 서영국  | 강석원 | 鄭學正 | 김정동 | 柳在權 | 이승일 | 하재서 | 金三仁 | 이영현 |
| 玄容濠              | 張에미아 | 李東健 | 김한규 | 노명구 | 한창호 | 김현철 | 유 근 | 韓源一 | 이상주 |
| 黃春記              | 김태수  | 송태오 | 閔明基 | 高慶미 | 이종진 | 崔昌植 | 송명산 | 崔圭煥 | 宋景鎬 |
| Michael M. moore | 韓載熙  | 曹圭範 | 윤영민 | 이종욱 | 韓官善 | 黃仁訓 | 김한준 | 김상웅 | 이영민 |
| 柳敬薰              | 성희준  | 朴京植 | 崔東雲 | 한방희 | 전승호 | 李丙斗 | 김기만 | 金成彰 | 李 勳 |
| 全始校              | 김진용  | 康榮旭 | 신용상 | 金碩漢 | 朴與信 | 趙容洙 | 崔玼燾 | 李成泰 | 金雨正 |
| 송정욱              | 金榮敏  | 김홍준 | 이형재 | 이형재 | 하정수 | 朴宰賢 |     |     |     |
| 김형필              | 이배원  | 이상철 | 박영만 |     |     |     |     |     |     |
| 송규학              | 정도욱  | 심창수 | 金日漢 |     |     |     |     |     |     |
| 元相默              | 梁承洙  | 白南明 | 徐水源 |     |     |     |     |     |     |
| 오상훈              | 金勝哲  | 崔允成 | 이봉중 |     |     |     |     |     |     |
| 朴珉石              | 박무기  | 盧奎鍾 | 강 훈 |     |     |     |     |     |     |
| 鄭宰勳              | 朴貞恒  | 김정수 | 鄭在勳 |     |     |     |     |     |     |
| 姜慶哲              | 강승훈  | 진홍덕 | 崔光洙 |     |     |     |     |     |     |
| 金源圭              | 金容在  | 김선배 | 소형섭 |     |     |     |     |     |     |

## 少年部 二段 2nd dan of Junior

|     |     |     |     |     |
|-----|-----|-----|-----|-----|
| 徐相勳 | 이건혁 | 金世媛 | 남유희 | 南基昌 |
| 李相穆 | 郭世根 | 전종호 | 琴瑟現 | 이경수 |
| 鄭 憲 | 金浩榮 | 曹永昊 | 이명재 | 최재성 |
| 송근형 | 黃振夏 | 송종배 | 이미옥 | 李鉉洙 |
| 박홍식 | 박삼경 | 안정슬 | 金坡範 | 金容德 |



# 제30회 少年部 昇段審査 (9. 8.)

## The Thirty Junior Rank promotion Test

|     |     |      |     |     |
|-----|-----|------|-----|-----|
| 李勝煥 | 全成龍 | 金廷勳  | 李弼赫 | 蔡 潛 |
| 尹堯安 | 金印雄 | 李學玖  | 鄭聖勳 | 박진완 |
| 朴鍾圭 | 金壯瑪 | 朴成澤  | 崔相洛 | 金勝培 |
| 朴玟澈 | 안상린 | 金宰鉉  | 李秉勳 | 李丙辰 |
| 이상명 | 김진모 | 황모수언 | 정윤석 | 백규호 |
| 반호병 | 김성원 | 반무병  | 석종민 | 장덕영 |
| 金珍晩 | 허창녕 | 李東憲  | 윤성주 | 강성호 |
| 安榮郁 | 구성완 | 韓영住  | 許詰會 | 한정봉 |
| 이정환 | 양우철 | 김태진  | 임강영 | 김용복 |
| 金昶默 | 안영규 | 안진호  | 김형규 | 金泰陳 |
| 김대규 | 안진용 | 정상석  | 姜在鐵 | 金志烈 |
| 임영성 | 엄형희 | 유성호  | 차용진 | 유순현 |
| 김광엽 | 李庭鎬 | 지용태  | 박장우 | 이기정 |
| 李龍世 | 李壬相 | 元虎正  | 金愛驚 | 金德垣 |
| 金泰浩 | 吳宗洹 | 조성학  | 林珍熙 | 전백범 |
| 李德熙 | 김기욱 | 노철근  | 申椿浩 | 吳宗錫 |
| 이정국 | 尹星植 | 宣鐵求  | 洪宗일 | 이진성 |
| 박만식 | 崔彰根 | 崔弘來  | 金鍾在 | 崔鍾訓 |
| 김진수 | 송희준 | 이자석  | 金鍾在 | 권내옥 |
| 최영욱 | 이상원 | 장희준  | 崔 鎭 | 金海龍 |
| 金玆稷 | 김성민 | 이강규  | 김준한 | 李容度 |
| 金大燦 | 이해만 | 趙希澤  | 김형식 | 崔龍國 |
| 尹化重 | 김신한 | 노태준  | 權起範 | 李直昌 |
| 崔大均 | 정제원 | 임인택  | 朴炳植 | 李承浩 |
| 권찬원 | 이해영 | 홍종배  | 김지영 | 崔大令 |
| 朴基性 | 朴聲植 | 崔剛源  | 李喜存 | 윤석종 |
| 신유덕 | 이준덕 | 姜碩熙  | 김상민 | 김정석 |
| 조남수 | 河晶旻 | 金光坤  | 安峻賢 | 김진모 |
| 김태균 | 최원근 | 鄭大一  | 김충한 | 朴亨基 |
| 吳世俊 | 白韓承 | 박영환  | 이상영 | 이호선 |
| 윤용성 | 권영철 | 洪仁久  | 崔弼瑋 | 林英浩 |
| 姜俊澤 | 이보영 | 姜仁奉  | 金一相 | 이용환 |
| 元京默 | 이주환 | 趙弘眞  | 李峻燮 | 김진민 |
| 鄭正煥 | 이근기 | 金英姬  | 박정식 | 李權熙 |
| 鄭大容 | 김기형 | 鄭世尊  | 姜晉基 | 嚴相虎 |
| 閔祥元 | 李相詰 | 黃正成  | 姜晉基 | 嚴相虎 |
| 崔範龍 | 田極湖 | 金俊漢  | 김용한 | 金昌熙 |
| 梁文錫 | 崔元均 | 정종훈  | 金明俊 | 田容熙 |

|                    |     |                    |     |     |
|--------------------|-----|--------------------|-----|-----|
| 金明微                | 姜承奎 | 송수호                | 金明煥 | 최상혁 |
| 金在昱                | 박동만 | 김홍섭                | 金學雲 | 閔丙熾 |
| 민범기                | 金賢杓 | 李相敦                | 이 철 | 沈揆岱 |
| 김중열                | 洪淳鎬 | 李桂榮                | 김재완 | 申東弦 |
| 임종호                | 洪性國 | 李智遠                | 金結洙 | 金壯垣 |
| 오명환                | 徐明鍾 | 李珍原                | 이호원 | 조훈영 |
| 이일준                | 金漢泰 | 金容範                | 최문길 | 김남수 |
| 李建學                | 서정우 | 한원희                | 변준형 | 원경구 |
| 서동원                | 金杻煥 | 박종서                | 안승용 | 오세환 |
| 원경환                | 李昊燮 | 金昊燮                | 이석희 | 최우혁 |
| 문서배                | 金承相 | 金昌輝                | 정지환 | 金亨鎬 |
| 최태범                | 洪性哲 | 李東奎                | 조맹훈 | 朴柱日 |
| 金珉微                | 최이범 | 姜聲鎬                | 趙載承 | 南基成 |
| 이명규                | 裴正賢 | 김승민                | 尹 淙 | 金準寧 |
| 宋政根                | 宋仁根 | 임교륜                | 金泰亨 | 노태현 |
| 徐東範                | 金勳範 | 宋珍詰                | 김동윤 | 정재환 |
| 이경용                | 정천호 | 손인규                | 金映秀 | 김일권 |
| 박홍준                | 송근택 | 이기훈                | 金秉東 | 李石友 |
| 최성철                | 정준원 | 김추성                | 金容均 | 최우철 |
| 김동현                | 송천이 | 노철수                | 宋錫峯 | 鄭彰基 |
| 이준형                | 곽윤길 | Wallace H. Reimold |     |     |
| Thomas. M. mignano |     | 李同基                | 윤영조 |     |
| 姜聲宇                | 강혁중 | 黃秉俊                | 조용성 | 손보락 |
| 朴潤湜                | 김성태 | 李承壽                | 김광수 | 金雲仙 |
| 박창환                | 김용태 | 이희석                | 김광진 | 민창욱 |
| 홍관영                | 김준래 | 이용삼                | 윤성주 | 崔相昊 |
| 김인옥                | 최우성 | 최재영                | 김석주 | 김대환 |
| 金聖基                | 김기현 |                    |     |     |

### 少年部 二段

#### (2nd dan of Junior)

|     |     |     |     |     |
|-----|-----|-----|-----|-----|
| 李東憲 | 金民晩 | 蔣永振 | 文享俊 | 張碩哲 |
| 韓進洪 | 崔珍洙 | 崔兌壽 | 尹商淳 | 최승우 |
| 國永洪 | 吳春根 | 李載澁 | 姜鍾吉 | 심규홍 |
| 朴炳沃 | 鄭基天 | 梁在潛 | 尹仁燮 | 申鉉龍 |
| 李時亨 | 朴宰永 | 金亨煥 | 白民호 | 이승덕 |
| 白容誠 | 韓光浩 | 최 승 | 이수근 | 손광식 |
| 김태균 |     |     |     |     |

## 제31 소년부(초단)(10. 6)

### The 31th Junior Rank Promotion Test

|     |     |     |     |     |
|-----|-----|-----|-----|-----|
| 이준성 | 김동섭 | 나익성 | 윤환식 | 정민희 |
|-----|-----|-----|-----|-----|



|     |     |     |     |     |                                       |                   |                    |              |               |
|-----|-----|-----|-----|-----|---------------------------------------|-------------------|--------------------|--------------|---------------|
| 정상은 | 노은석 | 金行坤 | 金正益 | 金衡基 | 고재용                                   | 金浪主               | 박성희                | Connu Ramos  | 李順子           |
| 尹京福 | 鄭柄文 | 韓英根 | 김광천 | 權淳容 | 한정에                                   | 張英玉               | 河奉華                | 徐賢珠          | 池英淑           |
| 金勝龍 | 박영선 | 임정호 | 황상욱 | 박상길 | 崔善姬                                   | 安京惠               | 李西淑                | 金相心          | 李允哉           |
| 이정진 | 신상호 | 柳秀滿 | 崔永煥 | 尹大東 | 김곤충                                   | 金大卜               | 林眞淑                | 任鍾姬          | 鄭春淑           |
| 鄭俊浩 | 서경택 | 李相彦 | 柳基奉 | 宋源鎬 | 吳炳禮                                   | 金香美               | 千亨順                | Herbert Chun | 韓葵洙           |
| 鄭大吉 | 梁大光 | 신성한 | 鄭仁福 | 유창덕 | 林在統                                   | Cummins           | Tames M.           | Brad M.      | Turner        |
| 尹台思 | 김상기 | 尹 淸 | 李哲周 | 金榮泰 | Sawyer                                | Lawrenc           |                    | Tokowitz     | Terry         |
| 徐光郁 | 백만택 | 吳基星 | 郭在敦 | 黃景顯 | Willy Clifford J                      |                   |                    | Clapie       | Richardv      |
| 安容基 | 이택규 | 오일상 | 문영성 | 박동훈 | Hayward D. Hesscup                    |                   |                    | Larry Y.     | Watson        |
| 최혜철 | 김승조 | 장성일 | 權五德 | 李長根 | Jorge F. castro                       |                   |                    | Frank        | Hall          |
| 姜民求 | 鄭成均 | 李炳喆 | 정용배 | 陳剛生 | George J. Thomas                      |                   |                    | michael      | corbett       |
| 許貞天 | 高燦永 | 鄭成膜 | 金富錫 | 金相完 | Richard E. Palmer                     |                   |                    | Jerry B.     | Rentie        |
| 趙漢義 | 吳允錫 | 姜映先 | 金榮柱 | 金明均 | Johnnym Wilborn                       |                   |                    | Benjamin A.  | perry         |
| 夫承洪 | 柳景林 | 金漢東 | 鄭鋪坡 | 池大烈 | michael E. Derby                      |                   |                    | Lloyd A.     | Sanderson     |
| 정수동 | 安秉相 | 崔星燮 | 김학곤 | 朴鍾烈 | John R. alesky JR.                    |                   |                    | Lewis R.     | Brooks        |
| 손해원 | 朴正道 | 신던기 | 梁龍男 | 金雲在 | George E. Døvis JR                    |                   |                    | Raul         | Jorres        |
| 윤강영 | 朴寅道 | 任印燦 | 崔永福 | 박종산 | Johnnil L. Sponn                      |                   |                    | Otis         | curtis Wilson |
| 金斗鉉 | 崔奧極 | 禹石亨 | 申奧均 | 朴鍾郁 | Bernard Charles Jones                 |                   |                    | Ortiy        | Edwin         |
| 安成淳 | 林根春 | 김원배 | 김단식 | 윤부국 | Robert E. Blanks                      |                   |                    | John         | Czochanski    |
| 이홍수 | 金芳鎬 | 朴奧進 | 梁義鍾 | 李光杓 | Jimmil Hines JR.                      |                   |                    | William      | Heller        |
| 한기은 | 李相德 | 최찬대 | 朴淳杓 | 黃在浩 | Charles A. Ray                        |                   |                    | David James  | Bryant        |
| 趙誠國 | 尹敬相 | 崔允端 | 양병렬 | 文弘植 | Charles Juartovac                     |                   |                    | Rock         | Dickenson     |
| 용영태 | 咸德勳 | 이상구 | 文基丹 | 李健基 | michael S. Bonville                   | 김진국               | michael D. mccaicy |              |               |
| 金云謙 | 文縹瀾 | 尹炳五 | 김경곤 | 金榮珍 | 성인부 2단 7.14<br>2nd dan of Adult Class |                   |                    |              |               |
| 鄭遇爽 | 민상기 | 尹碩漢 | 張錫岩 | 姜聲鎭 |                                       |                   |                    |              |               |
| 尹炳鉉 | 이기환 | 황성철 | 崔性秀 | 金弘基 | 尹哲舜                                   | Timothy L. norrus | 朴在旭                | 羅相憲          |               |
| 林東燦 | 黃義皓 | 陳忠福 | 김동탁 | 朱永直 | 吳明煥                                   | 林大植               | 金英愛                | 金在源          | 李完貴           |
| 金承來 | 丁在宗 | 문종욱 | 朴勝辰 | 최일용 | 金眞湖                                   | 金漢鎭               | 문영훈                | 鄭萬永          | 吳炳根           |
| 朴東遠 | 이영욱 | 윤종호 | 尹成勳 | 邊昌錫 | 이종관                                   | 朴聖泰               | 李弘規                | 洪相基          | 박상길           |
| 金東明 | 金英雄 | 權載永 | 李授泳 | 徐完一 | 김영진                                   | 金柱成               | 趙東植                | 孫男榮          | 金鍾植           |
| 金文植 | 金光國 | 吳英宗 | 김규성 | 張碩鎭 | 이제일                                   | 鄭株根               | 李鉉植                | 허윤식          | 申祐昌           |
| 崔元一 | 박준규 | 강병운 | 황진명 | 황의홍 | 성인부 3단 7.14<br>3rd dan of AdultClass  |                   |                    |              |               |
| 민대식 | 金光植 | 金鍾煥 | 민성준 | 송형석 |                                       |                   |                    |              |               |
| 崔山鎭 | 朴奧酉 | 김종성 | 鄭鎭化 | 정광만 | 성인부 4단 7.14<br>4th dan of Adult Class |                   |                    |              |               |
| 權泰歡 | 金春卿 | 沈用錫 | 金奧昨 | 최영  |                                       |                   |                    |              |               |
| 김현곤 | 이철수 | 김성수 | 孫石泰 | 韓周  | 李永萬                                   | 이종대               | 鄭雲京                | 조한수          | 우성길           |
| 吳權錫 | 金鍾旭 | 張仁錫 | 李海周 | 김성중 | 성인부 5단 7.14<br>5th dan of Adult Class |                   |                    |              |               |
| 柳承一 | 朴永國 | 朴性昊 | 崔相珍 | 조진섭 |                                       |                   |                    |              |               |
| 延濟寬 | 崔海淑 | 전동원 | 지필구 | 牟永君 | 성인부 6단 7.14<br>6th dan of Adult Class |                   |                    |              |               |
| 金鍾善 | 李漢卿 | 홍사복 | 鄭淳銅 | 강정구 |                                       |                   |                    |              |               |
| 李俊奎 | 李成訓 | 朴熙春 | 姜學善 | 洪錫柱 | 黃善模                                   | 郭亮燮               | 崔基雄                | 高漢洙          | 원인희           |
| 崔二萬 | 고재영 | 柳重國 | 李性宇 | 金敏根 | 林鎬成                                   | 潘鈞煥               | 崔載武                | 韓豐演          | 朴鍾敏           |
| 金源教 | 고영선 | 玉有盛 | 金光洙 | 한승만 | 李光善                                   | 姜承植               | 廉聖吉                | 高昌洙          | 鄭康龍           |
| 박홍동 | 金植培 | 李載華 | 김종용 | 李康馨 | 최범용                                   | 李昊杓               | 申永秀                | 황상성          | 權文紀           |
| 李建杓 | 韓民洙 | 유제원 | 柳敦星 |     |                                       |                   |                    |              |               |



金重完 이기태 李鉉坤 崔俊培 金泓起  
李英基 韓文男 姜文鉉 홍수희

## 60회 성인부 초단 (74. 9. 1) The Sixties Adult Class Rank Promotion Test

|     |     |     |     |     |
|-----|-----|-----|-----|-----|
| 金鎭祐 | 張 逸 | 梁甲錫 | 安昌洙 | 林容雨 |
| 崔正吉 | 柳五洙 | 金振示 | 崔淳東 | 박희상 |
| 李康奧 | 林寅澤 | 金兄福 | 李國立 | 丁元鉉 |
| 황태덕 | 崔明華 | 김흥민 | 韓偵敏 | 유형곤 |
| 廉英喆 | 韓基根 | 全宇中 | 崔世洪 | 安商寬 |
| 李鎬軫 | 기호숙 | 최갑출 | 박영호 | 변명운 |
| 마요착 | 남준희 | 정호범 | 沈相業 | 남재우 |
| 김상열 | 李忠南 | 김성식 | 權五鉉 | 김승호 |
| 李正實 | 이상원 | 林憲京 | 김문경 | 李殷豪 |
| 이규봉 | 김종근 | 원종복 | 李金相 | 金淳奎 |
| 鄭海任 | 洪大澳 | 吳玟錫 | 최정식 | 安九模 |
| 白明基 | 白龍吉 | 李奕澈 | 朴乙泳 | 梁在奎 |
| 朱祥哲 | 李相榮 | 백인학 | 이국진 | 이용주 |
| 박상태 | 金健會 | 白雲星 | 정삼식 | 李海利 |
| 장석환 | 鄭德容 | 徐晨榮 | 朴炯蓓 | 李永洙 |
| 成寅哲 | 柳明桓 | 朴忠九 | 문희수 | 尹龍淵 |
| 崔文秀 | 吳明錫 | 李鎬範 | 金德壽 | 鄭鎭官 |
| 辛鍾吉 | 김병찬 | 崔義善 | 趙楊秀 | 馬玉根 |
| 金鍾光 | 崔元龍 | 배기준 | 임상민 | 김영근 |
| 이경희 | 李昌雨 | 金尙哲 | 김일환 | 金正坤 |
| 김남기 | 趙秉善 | 박기택 | 安昌男 | 朴海東 |
| 박지열 | 서영원 | 김영휘 | 咸壽鎬 | 金利鉉 |
| 양영학 | 鄭雲道 | 金周弘 | 金俊學 | 鄭純煒 |
| 朴眞元 | 安一燮 | 李根玉 | 정복수 | 王之南 |
| 林永三 | 李文稷 | 林鍾讚 | 金熙榮 | 朴海石 |
| 임대식 | 申鉉玉 | 이순자 | 林賢珠 | 朴英愛 |

## 성인부 2단 (9. 1)

### 2nd Dan of Adult Class

|                       |                       |           |
|-----------------------|-----------------------|-----------|
| 金長河                   | Gary S Ogrin          | Joe Brown |
| Raymond E Benn JR     | Brad F. Revis         |           |
| Gene E Dillard        | Jess Petres           |           |
| Allen Davis           | Timothy David Tamplin |           |
| Williams F. Pfeifer   | Ferguson Evans        |           |
| Francisco Rosado Soto | Davis Jerry           |           |
| 김지호                   | Godfney Nsubuga       | 이해구 千鶴一   |
| (Homdan Haji Hassan)  |                       |           |

|     |               |     |     |     |
|-----|---------------|-----|-----|-----|
| 김명희 | 李富鎔           | 이영택 | 韓敬錫 | 高億萬 |
| 國水元 | 방진숙           | 金彥中 | 李文熙 | 朴永一 |
| 姜春熙 | 金宗星           | 李琺錫 | 張元俊 | 吳昌洙 |
| 李洹鎬 | 김경수           | 朴壽吉 | 鄭鎔采 | 장성용 |
| 吳文鍾 | 이광재           | 姜寶遠 | 박정한 | 陳觀喜 |
| 朴崗碩 | Frank Johnson | 金安子 |     | 崔允澈 |

(Akram mohammed Ziwedde Kitto)

(Yahaya Ssekabira) (Isahac Magemeso)

성경영 朴成洙

## 성인부 3단 (9. 1)

### 3rd Dan of Adult Class

|     |     |     |            |     |
|-----|-----|-----|------------|-----|
| 尹明玉 | 柳一衡 | 曹德鉉 | 김덕은        | 金長一 |
| 羅東植 | 金賢周 | 崔鐵鎬 | Afrea Isvi |     |

## 성인부 4단 (9. 1)

### 4th dan of Adult Class

|     |     |     |     |     |
|-----|-----|-----|-----|-----|
| 박근환 | 張英泰 | 梁成搏 | 黃堯煥 | 송재철 |
| 김원규 | 김득삼 | 姜健仁 | 李炫昇 | 李揆天 |
| 朱泰永 | 노정용 | 李商國 | 金學秀 | 沈赫根 |
| 신진호 | 朴卿煥 | 金鎭洙 | 金文煥 | 崔浙喆 |
| 閔舜基 | 이효용 | 조봉찬 | 李相烈 | 曹明熙 |
| 閔舜基 | 김유신 | 김경석 | 김영운 | 具昌會 |
| 朴聖國 | 朴均河 | 宋寅國 | 金錫成 | 구자삼 |
| 張基和 | 김영진 | 朴周浩 | 박헌명 | 金鍾洛 |
| 鄭雲謙 | 尹炳國 | 韓昌彦 | 韓啓鍾 | 姜聲龍 |
| 김영환 | 김우원 | 姜顯鎭 | 李玉淵 | 황병우 |
| 兪鉉穆 | 趙相來 | 양상식 |     | 張志鶴 |
| 韓孝鳳 | 金正卿 | 李碩求 | 성정환 | 南文植 |
| 고진수 | 黃今성 | 洪成厚 | 김학성 | 鄭時來 |
| 李恩植 | 우용계 | 金昔九 | 李用善 |     |

## 1975년도 전반기

### 국기원 승단심사 안내

1월 19일 제34회전국소년부승단심사  
2월 9일 제35회전국소년부승단심사  
3월 2일 제62회전국일반부승단심사  
3월 9일 제36회전국소년부승단심사  
4월 13일 제37회전국소년부승단심사  
5월 4일 제63회전국일반부승단심사  
5월 11일 제38회전국소년부승단심사  
6월 8일 제39회전국소년부승단심사

※美國 뉴욕의 全仁文사범은 協會發展을 위해 誠金 500 \$을 보내왔다.

# 跆拳道研究

이번號 태권도연구는 유근석교수의 『跆拳道를 위한 體力強化』와 품세교실 『태극一章』을 실는다. 태권도 경기력의 三大要素 卽 體力와 競技力과 힘(Power)가운데 모든 運動의 基本이될 體力의 強化를 堂堂 13회에 걸쳐 집필해 주신 유근석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유교수의 원고는 이번으로 대단원의 幕을 내리고 新年號부터는 새로운 連載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이 紙面이 보다 활발한 技術의 開發과 討論의 廣場이 되기 위하여 讀者여러분의 研究와 投稿가 要求된다.

부디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 跆拳道를 위한 體力強化

유 근 석 (漢陽大學教授) (最終回)

이제까지 筋力, 파워, 스피드, 지구력等 體力要素를 訓練하는 理論의 根據와 方法을 提示하였었다. 이번 號에는 體力要素中の 調整力과 柔軟性訓練으로 그골마무리를 하고, 全身을 고르게 強化하는 서어키트 트레이닝과 一般의 指導原則順으로 普及하려 한다

### 1. 調整力の 訓練理論

조정력이란 筋肉을 支配하는 神經網이 어떻게 一定한 目的을 위해서 秩序있게 作用하느냐 하는 能力이다. 이와 같은 能力은

1) 正確한 動作을 하도록 學習하므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動作을 正確하게 받아들여 行하여야 하며, 過勞하지 않은 範圍에서 動作 習得을 해야 한다. 그 理由로는 疲勞가 正確한 動作을 維持하지 못하게 하며 포움을 變形시켜 調整力에 큰 影響을 미치게 한다

2) 學習하고 있는 動作을 反復하게하여, 神經疎通에 一定한 回路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方法은 漸次로 意圖의인 것이 無意的인 것으로 發展하여, 勞力하지 않고도 反射의으로 正確한 神經의 支配 秩序를 維持할 수 있게 되는 까닭이다.

3) 習得한 動作의 秩序와 形을 維持해야 한다. 사람이 몸에 익힌 하나의 動作은 神經의 支配에 따른 하나의 움직임인 까닭에 神經網이 일어난 하나의 回路가 維持되려면은 外界에서 이 回路를 防害하는 刺戟이 除外되어야 한다. 그러나 人間의 生活이 複雜하고 多岐多樣的한 까닭에 外

界의 刺激이 이 神經回路를 紊亂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習得된 動作은 放置되어져서는 아니 되고, 恒常 正確한 動作으로 反復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恒常 神經回路를 維持하여 어떠한 境遇라도 이 回路가 파괴 되지 않게 되어야한다. 특히 試合같은 경우에 興奮하거나 멀리는 이 回路에 變動을 일으켜 意外, 動作을 하는 수가 있으므로 平時에 그와 같은 環境을 생각하면서 이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두어야 한다.

## 2. 柔軟性的의 訓練理論

柔軟性이란 關節의 可動範圍가 큰것을 말하며 이는 姿勢의 維持와 安全性 調整力과 行動能力에 크나큰 基調가 된다. 특히 高次的인 技巧과 技術은 이에 依해서 成立될 수 있고, 行動範圍도 이가 決定的인 基盤이 된다.

1) 內抵抗을 除去해야 한다. 卽 關節을 구성하고 있는 鉅帶와 腱, 그리고 關節낭이 부드럽지 않고, 彈性을 잃고 있으면 關節이 움직임에 있어 부드럽지 못하고, 그 可動範圍가 좁아진다.

따라서 이를 부드럽고, 彈力있게 하려면는 徒手體操나, 器具體操 或은 짝체조로 關節을 充實히 움직이게 해야 한다.

2) 現 可動範圍를 漸次 擴大한다. 關節의 可動範圍는 訓練에 의해서 그를 適當히 擴大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듯 老人이 되면 關節의 可動範圍가 줄어들어 그 폭이 적어짐은 關節을 一定한 範圍로만 使用하고 그以上の 運動을 하지 않는 데서 온 結果라고 하겠다. 이와 反對로 關節을 運動시키면, 그範圍에 따라 可動範圍가 擴大되고, 그를 維持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行動範圍도 크게 되는 利點이 있다.

3) 可動範圍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恒常 關節運動을 意圖의으로 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一定한 運動을 繼續하면 그에 따른 適應性을 보이나, 一段 中止하면 또 그에 따라 能力이 低下된다. 이것은 흡사 빗달길에 수레를 끌어올리는 理致와 같아 끌머는 수레가 올라오나 힘을 떼고 단길줄을 늦추면 수레는 도로

내려가고 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恒常 당기고 있어야 그 상태를 維持하게 된다.

## 3. 써어키트 트레이닝

以上 各號에 提示한 體力強化 方案은 體力要素 個個를 어떻게 訓練하느냐 하는 問題였으나 이 써어키트 트레이닝은 體力要素를 全部 고르게 訓練하는 方法이 된다. 卽 全身의 筋力, 筋持久力 全身持久力, 파워 등을 골고루 強化하는 目的으로 作用되는 訓練方法이라 하겠다.

1) 運動種目으로서는, 팔, 어깨의 운동, 등 운동, 배 운동, 다리·전신 운동, 복합(複合)운동 등이 있으며 써어키트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을 짤때는 같은 部位의 운동이 겹치지 않게 배려되어야 한다.

2) 自己의 體重이나 重量物을 使用하여 運動의 強度를 높이게 하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最大筋力의 2/3를 넘어서서는 아니된다. 이와 反對로 強度를 낮게 잡을 경우라면, 運動 反復回數 30回 程度로 하고, 筋力, 파워, 持久力의 強化를 꾀해야 한다.

3) 配列한 各 運動種目에서 強度를, 第一 크게하고 싶은 種目은 最大回數를 재서 그 回數의 1/2로 하고, 其他 種目들은 1分間에 할 수 있는 最大回數를 재서, 그 回數의 1/2를 強度로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것은 各自가 自己의 體力에 맞는 強度로 訓練하게 하는 좋은 方法이며, 自己의 能力의 半으로 세 바퀴 돌면서 하던 大體로 10~30分 程度의 連續的 運動으로 呼吸·循環系에 負擔을 주어서 有酸素의 持久力을 強化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4) 各 種目的의 運動은 正確하게 하도록 指導하고 3巡回하는 時間을 재서 漸次 빠른 時間에 終了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一定한 負荷를 가지고, 正確하게 動作을 해서 빠른 時間에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體力이나 動作의 技巧가 向上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까닭이다.

5) 이와 같은 訓練은 基礎體力 向上을 目的으로 하는 것임으로, 專門體力를 向上시키는 메



는 또 다른 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運動種目을 自己專攻 種目으로 한다 할지라도 基礎體力은 누구에게나, 重要하고 必須의인 것임으로 이것을 소홀히 하고, 頂上에 오르겠다는 것은 無謀한 생각이다. 自動車가 크거나 작거나 間에 그것이 움직일려면 갖추어야 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같이 種目이 어떠한 간에 基礎體力은 갖추어야 한다.

#### 4. 訓練에 있어서의 一般의 原則

訓練을 能率의으로 하기 위해서는 訓練의 目標가 뚜렷해야 하고 그 目標를 達成하기에는 目標에 接近할 수 있는 理論이 바탕이 되어 그것을 具顯化할 方法이 定立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이라 할지라도, 指導者和 被教育者 間에 適正한 原則에 따른 方法가 없이는 그 効率을 다 할수는 없는 것이다.

##### 1) 全面性的의 原則

頂上에 오르려는 選手는 어떠한 部分의 發達만으로는 充足치 못하다. 體力의 諸要素는 勿論 道德的, 意志의 條件에다, 優秀한 健康과 높은 教養을 兼備해야 한다. 이러한 條件들만이 專門의 體力이나 高度의 技術을 비롯하여 競技能力을 發展시킬 수 있는 資源이 된다.

따라서 스포츠맨은 어느 特殊한 技能에 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全面的 發達에 의해서 어떠한 特殊 才能이 育成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卽 참된 스포츠맨은 全人的이어서 어느 한곳도 不足함이 없는 體系 特出한 長技를 키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 2) 意識性的의 原則

運手 各者는 <무엇을> <무엇 때문에> 하여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卽 訓練의 意義, 目的, 手段, 方法을 適確明瞭하게 理解함으로써 運動의 技術, 作戰의 習得이 容易하게 되고 體力強化가 뜻있게 되며, 精神의으로나 意志方面에 必要한 條件을 習得하게 되며, 競技力向上에 効驗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效果는 自身이 自覺을 가지고 訓練에

臨하게 되고 理論과 方法을 스스로 研究하여 그에 따른 知識과 經驗을 豊富하게 하는 까닭이라 하겠다.

##### 3) 漸進性的의 原理

어떠한 學習이나를 莫論하고 한번에 高度에 이르는 勿함으로 漸進的인 經路를 밟아야 하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漸進性이라 하는 것은 負荷의 量과 強度의 增大, 練習되어야 할 課題의 順序와 動作의 漸進的 複雜化를 內容으로 하고있다. 스포츠 活動을 刺激으로 받아들이는 自身의 諸 器官과 組織은 오랜 期間을 두고 變化되어 가며, 이에 따라 機能이 向上됨으로 提해를 두고, 合理的이며 順序롭게 漸進的으로 이룩되어져야 한다. 卽 單純한 것로부터 始作해서 漸次 複雜한 것으로, 또는 容易한 것부터 始作해서 至難한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特히 始初에는 흔히하는 것부터 손을 대고 漸次 特異한 面을 創案하여 試圖한다는 것이 主要하다

##### 4) 反復性的의 原則

運動의 技術이나, 戰術, 特히 體力의 強化는 反復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根性이나 精神力 또한 마찬가지라 하겠다. 以外에 身體의 各器官이나 組織의 改良과 機能向上도 反復性이 얻어질 수 없고, 習性이나 知識形成의 安定性도 또한 마찬가지다.

運動에 있어서의 反復性은 거의 條件反射의 結合을 얻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安定되고 維持될수 있게 恒常 反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負擔없이 運動을 할 수 있게 되며 試合이라 할지라도 쓸데없는 緊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5) 個別性的의 原理

사람은 사람마다의 特性和 相互間에 差異를 가지고 있다. 까닭에 同一한 負荷와 同一한 方法으로 劃一的 訓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 個別性이라 함은 個人的 特性和 個人的 可能性和 身體的, 性的, 差異를 考慮하고 年齡을 參酌해서 이에 맞는 訓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 跆拳道 품세教室

TAEKWONDO ILLUSTRATED

태극 一章

200

太 極 (一章)

태 극

TAE-GEUK IL-JANG

지난號까지 技術審議會의 提供으로 절찬리에 게재하던 태권도품세교실의 고단자 품세는 아직 천권, 한수, 일여 등이 남아 있으나 編輯上의 제반 事情과 몇가지 理由로 태극품세를 먼저 다루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文敎部에서 태권도를 敎科課程에 正式으로 채택하여 國民學校 체육교과서에 태극품세 1장 2장 중학교체육교과서에 태극품세 3장 4장 5장, 고등학교에 태극품세 6장 7장 8장이 실리게 되어 이를 一線師範과 底邊人口에게 正確하고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되었으며 둘째로는 民軍跆拳道技術統合會議에서도 유급자품세는 태극품세로 單一化시켜 지도하게 되었고 셋째 태권도협회에서도 75年度부터는 국기원 및 기타 昇段審査에서 八段와 태극을 併用 테스트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이 태극품세의 연재가 끝나는 대로 곧 有段者품세를 계속 할 것을 約束하면서 原稿과 配列등을 지도해주신 敎育分科 林海滿 副委員長께 感謝를 드린다. ....(編輯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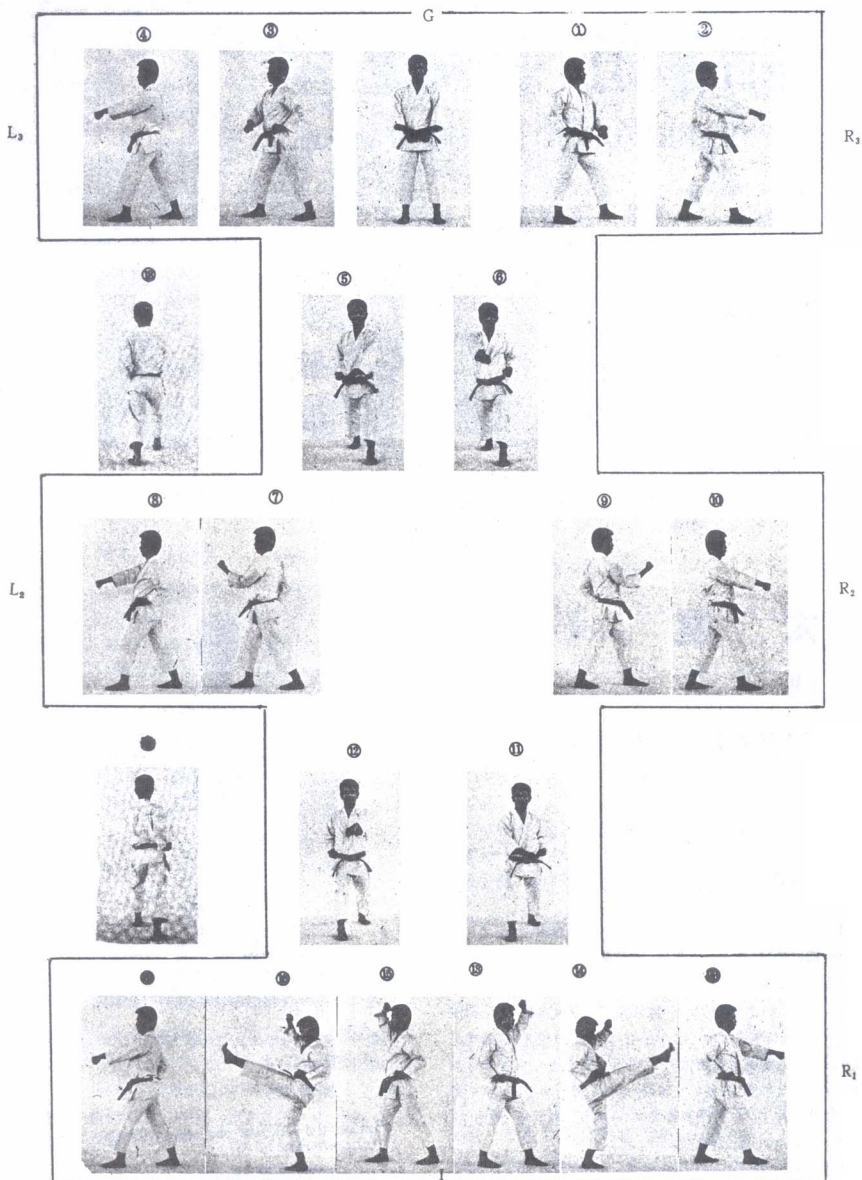


준비 왼발 왼편으로 "한발" 벌려 "G" 방향 향하여  
편이서기  
기본 준비

Spread the left foot one step sidewise and face the direction of G.

PYEONHI SEOGI  
GIBON JUNBI

폼세진행 배열표  
Plat plan line-up of Jitae



폼세 太極을 研究하실 때는 폼세 진행선(配置詳細圖)을 參考하여  
주시고 註를 살펴주시요



## 품 세 선

한 품세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을 행하기 위한 품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선으로 표시한것을 품세선이라 한다.

품세선은 글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 글자의 음을 따서 이름을 붙인다.

예 “上” 한글의 “오”자 오자 품세선

“一” 한글의 “으”자 으자 품세선

“工” 한자의 “지을 품”자 공자 품세선

## 품세선 보는 법

- 1) 수련자로서 품세를 행하기 위하여 준비서기를 하고 있는 위치를 “I”의 기호로 정하고
- 2) “I”에서 바라본 정면을 “G”의 기호로 정하면
- 3) “I”의 위치에서 “G”를 향하여 왼편을 “L” 오른편을 “R”의 기호로 정한다.
- 4) “I”의 위치에서 “G”를 향하여 뒷방향을 “B”의 기호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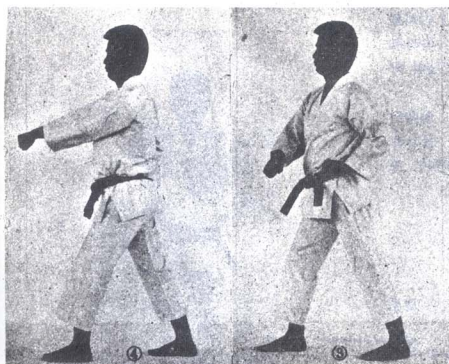
- 1 몸을 왼편으로 돌려 왼발 “L”선상에 옮겨  
왼 앞서기

아래 막기

- 1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L<sub>1</sub>”

**OEN APSEOGI**

ARAE MAKKI



- 3 왼발측 몸을 오른편으로 돌려 오른발 “R<sub>1</sub>”선상에 옮겨  
아래 막기 **오른 앞서기**

- 3 Turn the body to the right pivoting on the ball of the left foot to put the right foot on the line of “R<sub>1</sub>”

**OREUN APSEOGI** ARAE MAKKI

- 4 왼발 한걸음 나가 (“R<sub>1</sub>”선상)

왼 앞서기

몸통 반대지르기

- 4 Move the left foot one step forward(on the line of “R<sub>1</sub>”)

**OEN APSEOGI**

MOMTONG BANDAE JIREUGI



- 2 오른발 한걸음 나가 (“L<sub>1</sub>”선상)  
**오른 앞서기**

몸통 반대지르기

- 2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forward(on the line of “L<sub>1</sub>”)

**OREUN APSEOGI**

MOMTONG BANDAE JIREUGI

태극품세를指導할 때는 품세의 三要素인 身體의 신축(運動), 技의 완급(速度) 힘의 強弱(힘)을 조절 숙달시키도록 유의해야 하며 좌우 균형을 잘 配合하여 技術의 균형을 잡도록 해야된다.

특히 이 一章은 自然 그대로 行하게 됨에 따라 수련자가 소홀히 생각할 餘여가 있으므로 주의깊게 한 동작·한 동작을 節度있게 행하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구령없이 행할때는 제1동작부터 제18동작까지 약 25초 소요된다.

숙달이 되면 제5,6동작을 연결성있고 빨리 행하면 좋고 제 11, 12동작 제17, 18동작도 마찬가지다.

태극(太極)이란 동양사상의 가장 심오한 세계관과 우주관 인생관을 대표하는 철학사상이다. 太極의 太는 크다는 뜻이요 極은 窮極·無極을 의미한다. 따라서 太極은 곧 형상도 根源도 끝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만물이 거기서 나오는 그 무엇을 일컫는다. 즉 만물의 이치가 다 그 속에 포함된 어떤 것을 말한다.

태극사상은 원래 동양철학의 압권중 하나인 周易의 기본사상이며 이 太極으로 부터 세분화되는 철학이론을 64가지(요약하여 8가지)로 나누어 각기 상징적인 符號를 붙여 설명한다.

태권도의 태극 1장~8장은 이 周易의 8가지 요약된 이치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그 이치를 동작으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진행 연무선도 8가지 符號(8패라고 한다)로서 나타내며 이 연무선을 따라 동작하게 되어 있다.

이 품세의 중요한 생명은 호흡과 동작의 완, 속을 정확히 하고 속도가 있는 동작에서 중심이동을 바르게 하며 동작하나하나에 절도를 넣어 태극의 우주사상을 심분 음미하고 표현하려는 데 있다.

태극 1장은 8괘의 건(乾)을 응용한 동작이다. 건은 周易 64괘(요약해서 8괘)중 으뜸가는 卦다.

건은 하늘을 상징하고 밝음(陽)을 의미한다. 하늘은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취 땅위의 온갖 것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건은 천지만물의 시초가 되는 창조 의 근원이다. 건은 마치 열드려 있던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듯 왕성한 기운이 넘치는 남성적인 卦다.

따라서 태권동작도 이 건을 시초로 하여 발전한다. 품세 구성에 있어서도 미숙한 초보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걸기나 서기에서 앞서기를 많이 넣었다. 품세를 이루는 첫거름인 이 태극 1장은 지르기에 있어서는 몸통바로 지르기와 막기로 아래막기와 몸통막기뿐이고 14동작과 16동작에 앞차기 두 동작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5 몸을 왼쪽으로 돌려 왼발 "G"선상에 옮겨  
왼 앞굽이  
아래 막기

Turning the body to the left,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G".

OEN APKUBI  
ARAE MAKKI



6 제 자리  
서기 그대로 몸통 바로지르기

Keep both feet fixed  
OEN APKUBI  
MOMTONG BANDAE JIREUGI



8 왼발 한걸음 나가 ("R<sub>2</sub>"선상)

왼 앞서기

몸통 바로지르기

Move the left foo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R<sub>2</sub>")

**OEN APSEOGI**

MOMTONG BARO JIREUGI



7 왼발 제자리 오른발 "R<sub>2</sub>" 선 상으로 옮겨

오른 앞서기

몸통 안막기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R<sub>2</sub>" without moving the left foot.

**OREUN APSEOGI**

MOMTONG ANMAKKI



9 오른발축 몸을 왼편으로 돌려 왼발 "L<sub>2</sub>"선상에 옮겨

왼 앞서기

몸통 안막기

Pivoting on the right foot (ball)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L<sub>2</sub>"

**OEN APSEOGI**

MOMTONG ANMAKKI



10 오른발 한걸음 나가 ("L<sub>2</sub>"선상)

오른 앞서기

몸통 바로지르기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L<sub>2</sub>")

**OREUN APSEOGI**

MOMTONG BARO JIREUGI





- 11 왼발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발을 "G"선상에 옮겨  
오른 앞굽이  
아래 막기

Pivoting on the left foot, (hally turn the body to  
the body to the right and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G"

**OREUN ADKUBI**  
ARAE AMKKI

- 12 제 자 리  
서기 그대로  
몸통 바로지르기  
Keep both, feet fixed.  
**OREUN APKUBI**  
MOMTONG BARO JIREUGI



- 13 오른발축 왼발 "L<sub>3</sub>"선상에 옮겨  
왼 앞서기  
얼굴막기  
Pivoting on the ball of hte right foot,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L<sub>1</sub>"  
**OEN APSEOGI**  
EOLGUL MAKKI

- 14 오른발 앞차기 차고 내딛고 ("L<sub>3</sub>"선상)  
오른 앞서기  
몸통 반대지르기  
Do AOP-CHAGU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L<sub>3</sub>")  
**OREUN APSEOGI**  
MOMTONG BAMDAE JIREUGI



그런, 오른발축 몸을 왼편으로 돌려 "G" 방향을 향하여  
**편이서기**      기본 준비  
 Using the ball of the right foot as pivo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face the direction of "G".  
**PYEONHI SEOGI**    GIBON JUNBI

- 18 오른발 한걸음 나가 ("I"선상)

**오른 앞굽이**      몸통 반대지르기(기합)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forward(on the line  
 of "I")

**OREUN APKUBI**

MOMTONG BANDA E JIREUGI(Yell)



- 17 오른발축 몸을 오른편으로 돌려 원발 "I"선상에 옮겨

**원 앞굽이**      아래막기

Using the right foot as pivot turn the body to the  
 righ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I"

**OEN APKUBI**

ARAE MAKKI

- 15 왼발축 몸을 오른편으로 돌려 오른발 "R<sub>1</sub>"선상에 옮겨

**오른 앞서기**      얼굴 막기

Pivoting on the left foot, turn the body to the  
 right and move the right and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R<sub>1</sub>"

**OREUN APSEOGI**    EOLGUL MAK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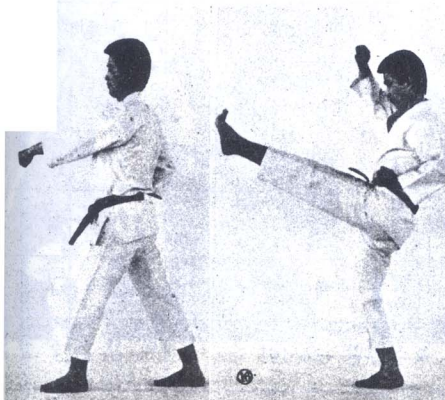
- 16 원발 앞차기 차고 내딛어 ("R<sub>2</sub>"선상)

**원 앞서기**      몸통 반대지르기

Do AOP-CHAGUI with the lef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R<sub>2</sub>")

**OEN APSEOGI**

MOMTONG BANDA E JIREUGI



# 第一回亞細亞跆拳道選手權大会

##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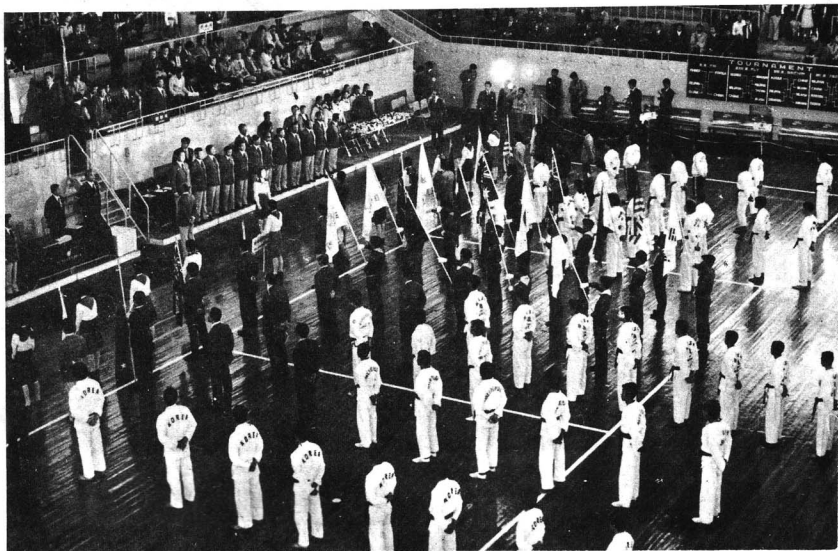
태권도는 한국의 태권도로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제 세계의 태권도로 발전시키는 일은 여러분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모든 태권도인의 총화된 전진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운용대회장의 개회사중에서)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taekwondo students here and abroad to make it a great sport of the World. And together we will move, and together Will achive under the spirit of taekwondo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pening speech by president, Un Yong KIM)

제 1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의 화려한 개막식에 입장한 10개국 93명의 임원선수들

93 Officials and players from 10 countries attending the grand opening ceremony of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한국의 양영관 대 자유중국 張祥興의 미들급결승전  
원발앞차기가 아깝게 빗나갔다.

A middle weight final match between Korea's Yang, Yung Kwan, and Chang Sang Heung, Republic of China. Yang's left front kick were just missed for an inch.

##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홍콩의 아우·옛싱對 필리핀의 미구엘·곤자레스  
준준결승전에서 열차기로 승리점을 얻은 아우·옛싱(우)

A preliminary fly weight match; Au Essing (Hong Kong) and Miguel Gonzales (Philippine).

On the right is vital Au Essing who won the game by a vital side kick.



날개들의 서니·츄·김대 필리핀의 폴·엠레웅의 뺨탄급 준  
준결승전. 서니의 앞축뒤차기가 폴의 턱에 명중하기직전.



Singapore, Sunny Chu Kim and Philippine's Paul M. Leon; The bantham weight preliminary match game. Just before Sunny's back kick hits Paul's jawbone.



종합 1위 대한민국의 송상근감독에게 김운용대회장이 상장을 수여하고 크메르의 톱툼감독이 3위 컵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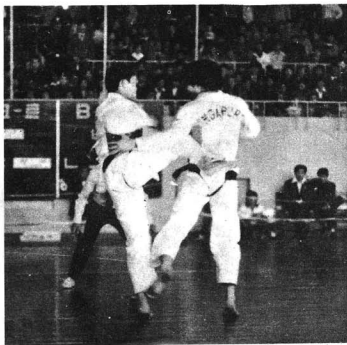
Coach Song, Sang Keun of Korea and Coach Long Teup of Khmer receives 1st and 3rd place trophy respectively

## 亞細亞跆拳道選手權大会

### 라이트급 결승전

한국의 이기형對 싱가포르의 로저·탐·파이퐁.

The final match game of light class; Korea's Lee, Kee Hyung and Singapore's Roger Tam Paipoong.



일본의 몬다·다이사쿠對 한국 김철환의 웰터급준결승전  
김철환의 돌려차기로 명치를 급습당한 몬다·다이사쿠

The welter weight semi-final game; Monda Daisaku of Japan and Korea's Kim, Chul Hwan.  
Turning kick to Monda's pit of the stom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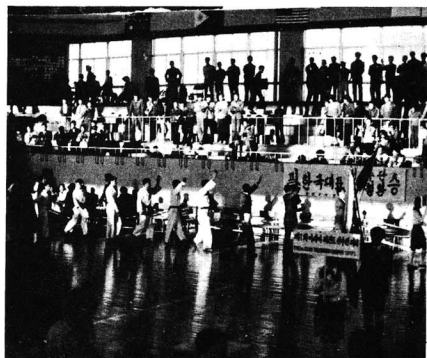


1976년 다시 만납시다. 안녕!  
성인시범단의 환송 푸라카드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는 참가선수들

Let's meet in 1976 again.  
Good by to all!

Participating players circling around the colosseum  
to bid fare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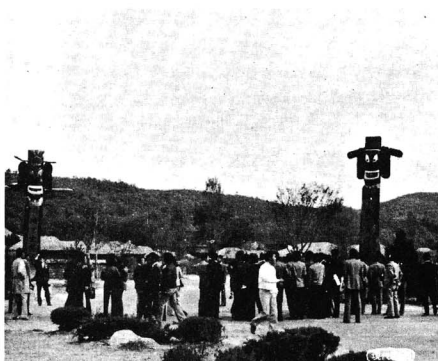


##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한국국 임원 · 선수들을 위한 리셉션광경

Reception party for the all of participants to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한국민속촌을 관광하는 각국 임원 · 선수들

Officials and players take sightseeing tour to the  
Korean folks village.





Köln 공항에 도착한金總裁 President. Kim, Un Yong arriving at Köln airport.

## 김은용 회장

세계 권컨도



Köln에 모인 유럽의 각국사범들

(김총재를 중심으로 왼쪽이 김만금, 박광철, 오른쪽으로 신 부영, 박중부, 이경명, 이범이, 합동통신사 이석형기자)

European instructors at Köln (at center president Kim, Un Yong to his left are Kim, Man Keum, Park, Kwang Chul right are Shin, Boo Young, Park, Jung Boo, Lee, Kyung Myong.)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시 태권도협회장 내외와 함께 (右端은 조 선일보 박갑철기자)

President and his wife of Insbruck(Austria) Taekwondo Ass'n.



Köln에 있는 김만금사범의 수련생과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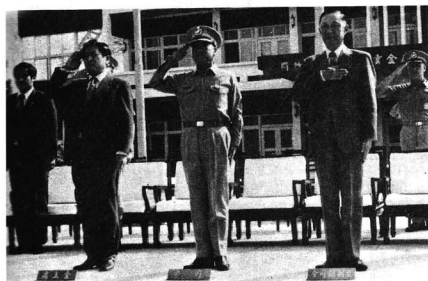
Instructor Kim, Man Keum and his trainees at Köln, Germany



# 세계 일 주

## 천황 파악차

뉴욕에서 활약하는 사범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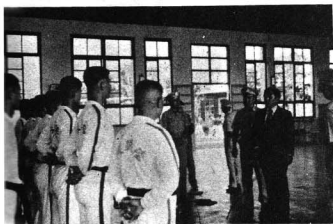


自由中國 陸戰隊의장대 사열  
(좌로부터 김충재 何恩廷사령관, 袁國微부사령관)

Honor guard at Marine Corps Headquarters.  
(from left, president Kim, General Ho Yin Ting and General Yuan Kuo Ch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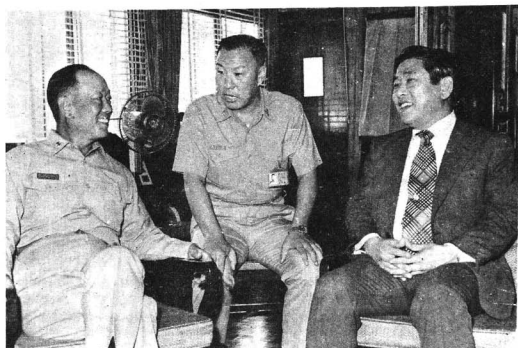
陸戰隊跆拳道部를 방문격려하는 김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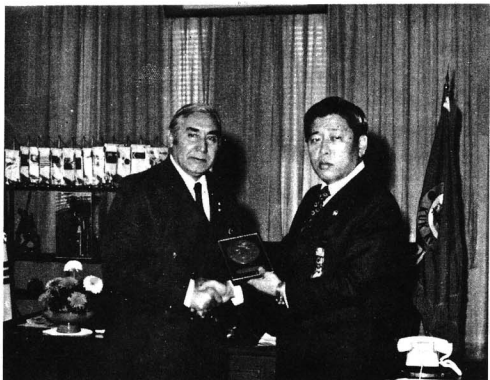
President Kim, encouraging taekwondo  
Brigade.



何恩廷陸戰隊사령관과 환담

President Kim, Chating with chief commander Ho Yin  
Ting of Chines Marine Corps.





세계태권도연맹총재의 초청으로 제 1 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으로 참가한 치아·우스칸 터키협회장이 공로패를 받고있다.

President. Kim, Un Yong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wards to the president. Chihat Uskan of Turkey Taekwondo Association.



국기원을 방문한 沈家銘(自由中國 C.O.C.副委員長)씨가 기념품을 받고있다. (12월 5일)

C.O.C. vice president visited Kuk Ki Won(December 5, 1974)



제 1 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한 하지·아스칸(사바 국방상)에게 메달을 달아주었다.

President. Kim, Un Yong awards a medal to Haji Askan, Head of the Malaysian team.



미국의 언론인 잭·앤더슨씨가 명예단증을 받고있다. (11월 29일)

President. Kim, Un Yong award to celebrated columnist Jack And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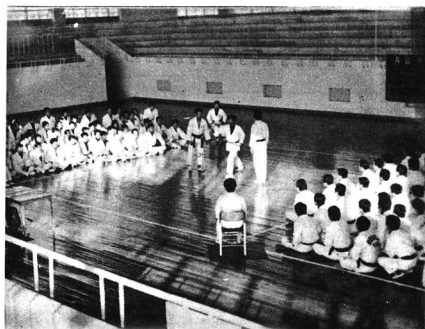


# 이런일 저런일

A Pictorial Report

of Current Events.

제 7회 3급 심판교육에서 실기를 하는 수련생들(12월 5일)  
Students demonstrating at the 3rd class referee Course.



1974년도 전국태권도우수선수선발대회경기장면(11월 24일)  
Competition scene of the 1974th National Taekondo Championships



11기지도자교육 수료식을 마치고…… The 11th Instructor Refresher Course graduation ceremony.  
(11월 30일)

